

# 太白文化

第十六輯



太白文化院



## 文藝中興宣言

우리는 民族中興의 歴史的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文化創造의 使命을 切感한다.

한 겨레의 運命을 決定짓는 根源的 힘은 그 民族의 藝術的 文化的 創意力이다. 藝術이 創造力を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文化가 自主性を 찾았을 때 나라는 興한다. 新羅統一의 偉大한 업적과 世宗時代의 文化創造는 이를 證明한다.

우리는 길이 남을 遺産을 開發하고 民族的 正統性を 이어받아 오늘의 새 文化를 創造한다. 맹목적인 복고경향을 경계하고 분별없는 모방행위를 배척하며 천박한 頽廢풍조를 一掃하여 우리 藝術을 확고한 傳統속에서 꽃 피우고 우리 文化를 튼튼한 主體性에 뿌리 박게 한다.

우리는 祖國의 現實을 直視하고 榮光된 겨레의 來日을 위하여 價値意識과 史觀을 바로잡고 表現의 自由와 文化의 自主性を 함께 누리며, 곳곳마다 文化의 전당을 세워 온 겨레가 함께 藝術을 즐기도록 한다.

우리는 自身의 姿勢를 새롭게 가다듬어 우리의 업적이 世界에 부각되도록 힘쓰며, 文化의 활발한 國際交流를 통하여 人類文化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한다.

이에 모든 藝術家 모든 文化人들은 온 國民과 同參하는 隊列에 서서 藝術과 文化를 아끼고 사랑하는 風土를 造成하고 정성을 다해 文藝中興을 이룩할 것을 宣言한다.

1973년 10월 20일



## 문화유산헌장

문화 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문화의 자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사랑의 바탕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 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 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 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 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2. 문화 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3. 문화 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 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
4. 문화 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5. 모든 국민은 자랑스러운 문화 유산을 바탕으로 찬란한 민족 문화를 계승·발전시켜야 한다.



## 2002년 태백문화원 화보



2002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입학식



제17회 백일장 대회





김강산의 풀피리 연주회



국악교실 수업광경





지역문화와 향토방위의 어울림



도자기교실 수업광경





한강대제 봉행광경



물 속에서 숨오래참기 대회





천제 봉행



가야금교실 수업광경





제10회 전통 향토음식 솜씨자랑 대회



2002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 문예중흥선언 .....	2
■ 문화유산현장 .....	3
■ 2002년 태백문화원 화보 .....	4
■ 차 레 .....	10
■ 발간사 .....	14
■ 임오년 향토문화소식 .....	16
■ 자생화훼 현황, 번식 및 재배기술 / 고재영 .....	26
■ 자생식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 사례 / 박광옥 .....	66
■ 고원농업에 관한 연구 / 이성열 .....	77
■ 나리 연구 / 우성룡 .....	82
■ 태백준용모터스포츠복합타운 / 이창주 .....	100
■ 취미로서의 음악감상과 오디오의 선택 / 이동형 .....	108
■ 칼라믹스를 알아봐요 / 공선녀 .....	117
■ 겨레의 영산 태백산 / 김강산 .....	126
■ 청동거울 / 장성유 .....	130



□ 제17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입상작품 ..... 153

▼중등부▼

<b>시</b>	-철쭉	/ 백소영
	-함성이 들리네	/ 윤관용
	-그 날의 함성	/ 이서진
	-너희들이 부러워	/ 홍선진
	-자화상의 그 녀	/ 김남윤
<b>시조</b>	-소녀의 사춘기	/ 진원미
	-아직은 작은 씨앗이지만	/ 전세희
	-철쭉	/ 안소영
	-바람의 속삭임	/ 김미정
	-고향에서 오던 길에	/ 손해영
<b>산문</b>	-집으로 가는 길	/ 주미진
	-나의 인생길	/ 김대혜
	-생각을 주는 길	/ 유지은
	-한·일 두 나라의 미소	/ 김선영
	-의미있는 길	/ 이보희

▼고등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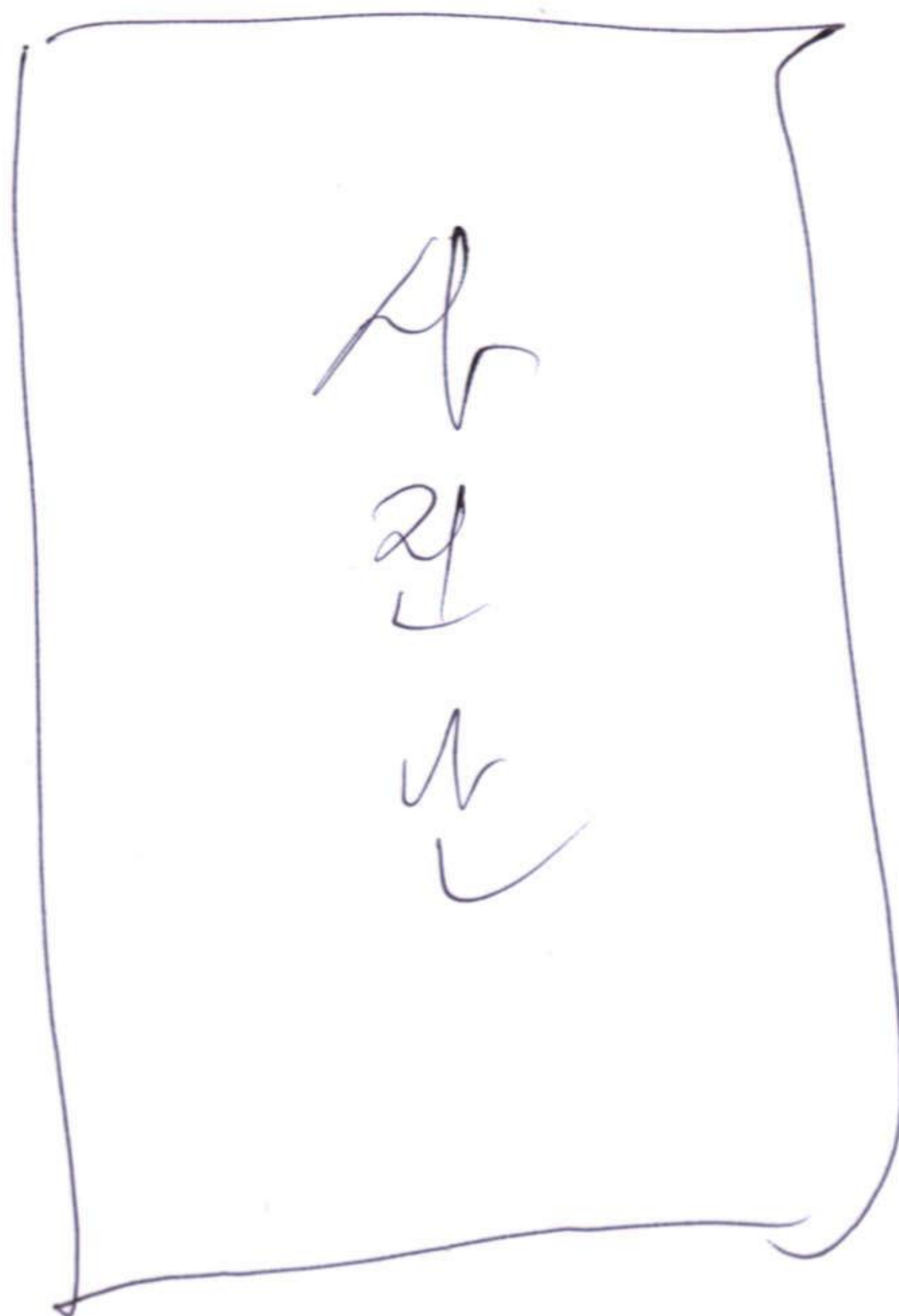
<b>시</b>	-사랑의 길	/ 남철민
	-아름다운 축제	/ 민지현
	-철쭉	/ 김관태
	-새로운 길을 걸어 가리	/ 한송이
	-길 위에 ...	/ 손수진
<b>시조</b>	-나의 바람	/ 김가람
	-길의 소망	/ 오지은
	-월드컵	/ 박용성
	-산길	/ 박용백
	-길	/ 박홍석
<b>산문</b>	-어린 철부지를 성숙하게	
	한 길	/ 이명수
	-세계를 하나로	/ 김혜실
	-행복찾기	/ 김홍석
	-내 꿈을 담은 길	/ 전명란
	-진흙길	/ 이청호

□ 태백문회원 연혁 ..... 199

□ 2002년 태백문화원 사업 ..... 201

□ 태백문화원 임원 및 회원명단 ..... 204







# 태백문화

제십육집

태백문화원



## 우리 문화를 지키자

올해 우리는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고 국민 결속을 과시한 월드컵을 성황리에 치렀고 새로운 세기의 새 대통령도 뽑았다.

그리고 우리는 희망찬 21C를 향해 가고자 하지만 세계의 험한 파도는 우리를 그냥 두지는 않고 있다.

지금 세계는 급변하고 있고 우리도 그 급변하는 기류에 편승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모든 것이 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

그러나 줏대없이, 무조건 변해야 한다는 식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면 우리 사회의 삶의 가치관이 혼란에 빠질 수도 있다.

우리는 지금 정제되지 않은 외래문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선진, 고급, 현대라는 명목으로 외래문화가 우리 사회를 짓밟고 있다.

선진문화라 하여 우대하고 자국문화를 멸시하며 고급에 물든 무리가 명품이란 이름으로 과소비를 부추기고 현대란 이름하에 인스턴트 식품이 활개치니 쌀과 보리를 먹지 않아 결국 농민들이 고사상태에 빠지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문화란 먹고 사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또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우 성 조  
(태백문화원장)

이 아니라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구제불능에 이르게 된다.

문화가 망가지면 오감(五感)마저 흐려지고 만다.

눈은 현란한 색을 좋아하고 입은 단것만 좋아하니 쓴것은 버리게 되고 귀는 큰소리만 들리고 가늘고 작은 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코는 자극적인 냄새만 맡고 촉각은 거친 것을 싫어하게 되니 은근과 끈기 거친 듯 소박한 우리 문화가 눈에 차기나 하겠는가 말이다.

물론 문화도 변한다. 그것을 알지만 그래도 우리 문화가 바탕이 되고 우리 문화 방식으로 건전하고 발전적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한다면 그나마 다행일 것이다.

문화는 개인에서 시작하여 가족과 지역사회 나아가 국가를 지키고 살리는 길이며 그것이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하는 도도한 세계화의 물결 속에서 휩쓸리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지키며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나라를 지키는 일과 같은 것이다.



# 임오년(壬午年) 향토문화소식

정리 : 김시자

## ▣ 태백산 눈축제 열려

제9회 태백산 눈축제가 1월18일~1월27일까지 열렸다.

1월18일부터 KBS 태백방송국에서 유명 연예인의 축하공연과 불꽃놀이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번 제19회 태백산 눈축제에는 댄스경연대회, 오궁썰매타기, 가족눈사람만들기, 눈썰매끌기, 팽이치기, 태백산등반대회가 열렸고 태백산 눈축제 눈조각 경연대회에서는 총 20개팀이 참석해 8개팀이 입상했다.

이번 태백산 눈조각 경연대회에는 핀란드 등 유명 눈조각가들이 출전했다.

## ▣ 징용광부 애환 한 눈에

태백석탄박물관은 개관 5주년을 맞이하여 5월부터 ~ 7월까지 일제 징용광부 사진전을 개최하여 많은 태백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징용광부들의 애환을 보여주었다.

사진전에는 징용광부 연구가인 김문길 교수가 소장 중이던 사진 50여 점을 전시해 징용광부들의 작업과 현지 생활을 소개했다.

## ▣ 제3회 3·1절 기념 태백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3·1절 태백도심 10km 구간에서 열린 제3회 3·1절 기념 태백시민 건강달리기 대회에 참석한 200여명의 태백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석하여 눈발이 날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 ☐ 2002학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입교식

2002학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입교식이 3월18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수강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문화학교 수강과목으로는 국악교실, 풍선아트교실, 도자기교실, 주부노래교실, 에어로빅교실, 종이접기교실, 한문교실, 사진교실, 스포츠댄스교실, 가야금교실, 메이크업교실 등 총11개 강좌로 3개월 과정이다.

## ☐ 전은영 시인 등단 기념식

4월13일 오후 6시30분 호텔 메르디앙 별관 2층에서 전은영 시인 등단 기념식이 열렸다.

## ☐ 시속 400km 카레이스 "구경 오세요"

태백 모터스포츠 경기장에서는 5월 12일 시속 400km대로 트랙을 질주하는 스포츠카 트래그레이스 시범경기가 관람객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 태백 본적사지 유적에서 현존 최고 기와 출토(사자문 수막새 기와)

태백시 삼수동 속칭 절골 입구의 본적사지 유적에서 현존하는 사자문 기와 중 최고의 기와로 밝혀진 사자문 수막새 기와가 발견됐다.

총 2점이 발견된 수막새 기와는 두께 1.1~1.9cm 길이 14.3~14.7cm 크기로 기와 중앙에 사지의 갈기와 다리 발톱 등 사자 모습이 정교하게 나타나 있었다.

## ☐ 제17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개최

5월 3일 오전 10시부터 태백문화원이 주최한 제17회 태백시 남·녀 백



일장 대회가 동점 구문소에서 열렸다.

시 관내 중, 고등학생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대회는 시부문, 시조부문, 산문부문으로 나누어 중, 고등부에서 각각 우수자를 시상했다.

▶ 중등부 시 : 장원(진원미)

차상(전세희, 안소영)

차하(손해영, 김미영)

시조 : 장원(백소영)

차상(윤관용, 이서진)

차하(홍선진, 김남윤)

산문 : 장원(주미진)

차상(김다혜, 유지은)

차하(김선명, 이보희)

▶ 고등부 시 : 장원(남철민)

차상(민지현, 김관태)

차하(한송이, 손수진)

시조 : 장원(김가람)

차상(오지은, 박용성)

차하(박용백, 박홍석)

산문 : 장원(이명수)

차상(김혜신, 김홍석)

차하(전명란, 이청호)

## ▣ 태백 태석회 화석회 회원전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태백시 소도동 태백산도립공원 당골광장 내에서 태백 태석회, 화석회 회원전시회가 회원, 관광객, 태백시민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 태백산 철쭉제 개최

제17회 태백산 철쭉제가 5월 25일 오후 6시 태백산도립공원에서 전야제를 시작으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당골광장에선 장기자랑 등 행사가 잇따라 열려 축제의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번 축제기간 중 향토음식 특판장, 태백산 자생식물 전시회 등 100여점을 전시해 축제의 분위기를 더해 갔다.

### ▣ 2002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2002학년도 제1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이 6월 24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있었다.

국악교실을 비롯 주부노래교실, 한문교실, 도자기교실, 메이크업교실, 종이접기교실, 가야금교실, 스포츠댄스교실, 사진교실, 풍선아트교실 등 총 10개 강좌를 실시한 제1기 문화학교는 200명이 수료했다.

### ▣ 태백산 사길령 산신제 봉행

단군기원 4335년 5월 26일 오전 11시 태백산 사길령 정상 태백산령각에서 시민과 기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제가 진행되었다.

이 날 태백산 사길령 정상 태백산령각에는 시민과 기관장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연신굿-강신-참신-초헌례-고축-아헌례-종헌례-음복-송신-소지-뒤풀이 순으로 의식이 행해졌다.

### ▣ 유령제 올려

단기 4335년 유령제가 6월 27일 오전 11시 태백시 통동 유령 산신당에



서 봉행돼 태백시와 삼척시 등 폐광지역의 번영과 주민간 회합을 기원했다.

이 날 유령제에는 홍순일 태백시장과 감영규 시의장 등이 헌관을 맡는 등 각 기관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오~ 필승 코리아" 16강 기원

태백지역 축구 동호인들은 5월 14일 저녁 황지동 중앙로에 설치된 특설 무대와 대형 스크린 3대를 설치해 방영된 한국과 포르투갈 간 한일월드컵 예선전에서 한국팀의 우승을 기원하는 대규모 응원전을 펼쳐 태백시민의 단합된 모습을 보였다.

이 날 특설무대에서는 축구 관람에 앞서 오후 6시부터 "아~ 대한민국"과 "아리랑목동" 등을 개작한 월드컵송 부르고와 에어로빅 댄스 등 프로그램이 펼쳐져 응원 열기를 더해갔다.

### ☐ 초금연주회

민속악기 연구가인 김강산 태백문화원 사무국장은 6월 7일 오후 2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풀피리 연주회를 열었다.

나뭇잎 한 장만 있으면 어떤 노래라도 연주할 수 있는데 이 날 민요와 가곡 등 20여 곡을 연주해 관람객들에게 호응을 얻었다.

이 날 연주회에는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 "태백동굴 보러 오세요"

7월 16일 태백시 도립공원 광장에서 '태백시의 날' 행사가 열렸다.

이 날 행사는 홍순일 태백시장, 최경섭 의장과 시민 황지초교 어린이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사물놀이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된 '태백시의 날' 행사는 태백민속에



술단이 참석한 가운데 소도농악놀이와 설장구, 모듬북 공연 등이 다채롭게 펼쳐져 이날 행사가 흥겹게 만들어졌다.

### ▣ 태백코리아로드레이스 대회

한국담배인삼공사배 코리아로드레이스 경기대회가 7월 28일 오전 10시 태백모터스포츠 경기장에서 라이더 130명이 출전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발표회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 발표회가 7월 26일 태백시 상장동 상장중학교에서 전국 초, 중, 고등학교 학생발명가와 지도교사 등 2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 군부대 위문공연

태백문화원 원장은 동료 이사들과 함께 7월 25일 육군 8087부대 2대대를 방문하여 부대장병들을 위문하고 삼계탕도 대접했다.

이날의 위문행사는 군인 200여명과 문화가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레크레이션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쳤다.

### ▣ 태백 철암 쿨 페스티벌 개최

태백시 철암동 철암역 일대에서 7월 30~7월 31일 이틀간 제1회 철암 쿨 페스티벌이 열려 태백지역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석하였다.

### ▣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 개최

제6회 태백산 쿨 시네마 페스티벌이 8월 1일~8월 8일까지 태백산도립공원 특설무대에서 화려하게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 제6회 한강대제 열려

제6회 한강대제가 8월 4일 오전 11시 한강 514km의 발원지인 태백시 창죽동 검룡소에서 태백문화원 주관으로 열렸다.

시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용신제를 시작으로 펼쳐진 제6회 한강대제는 검룡소에서 흘러내린 물로 물 많이 먹기, 물 빨리 먹기, 물 속에서 숨 오래 참기 등의 대회가 진행되었다.

또한 유두면 시식회가 열려 많은 관광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 ☐ 철암그리기 9인전

8월 17일부터 9월 27일 태백시 철암동 철암역 갤러리에서 전시회가 열렸다.

### ☐ 2002년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입학식

2002학년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입학식이 9월 2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수강생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태백문화학교 수강과목으로는 국악교실, 칼라믹스교실, 도자기교실, 주부노래교실, 한문교실, 테디베어교실, 스포츠댄스교실, 가야금교실 등 총 8개 강좌로 3개월 과정이다.

### ☐ 태백산 천제 올린다.

단군 4334주년 10월 3일(개천절) 오전 11시 태백산 정상 천제단에서 많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천제가 진행되었다.

태백산 상상봉 천제단에서 거행된 천제는 태백산천제위원회(위원장:김강산)에서 주최하였으며, 이날 태백산 천제단에는 전국에서 온 관광객들



로 인산인해를 이룬 가운데 영신굿-강신-진설-참신-주유-헌작-고천-송신-소지 순으로 의식이 행해졌다.

### ▣ 태백시 시민대상자 선정

10월 4일 태백시민의 날을 맞아 시민대상 수상자들에게 상패와 행운의 열쇠를 수여했다.

이 날 시민대상 수상자는 5명이었다.

부분별 수상자로는 문화예술부분에 박용근 강원도태백교육청 중등장학사, 지역개발부 부문에 박광덕 태백시번영회 사무국장, 체육진흥 부문에 김형주 태백시 태권도협회회장, 효행선행부분에 곽지순씨, 모범공무원 부문에 양재중 장성동 예비군중대장이 선정되었다.

### ▣ 제3회 진폐입원환자 작품전시회

10월 15일부터 10월 18일까지 태백중앙병원 진폐입원환자들이 병원 로비에서 제3회 들꽃전을 열었으며, 전시회 작품으로는 종이공예 및 숯공예 작품 등이다.

### ▣ 문화유적지 탐방

태백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문화유적지 탐방 행사가 많은 회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10월 23일에 개최되었다. 이 날의 행사는 오전 7시 문화원을 출발하여 서울 경복궁을 탐방하였다.

이번 문화유적지 탐방에는 문화학교생과 시민 100명이 참석하였다.

### ▣ 태백섬프리악단 연주회

낙동강의 발원지인 황지연못에서 11월 4일 태백섬프리악단의 연주회가 열려 지역 시민들에게 감미로운 음악의 선율을 들려주었다.



이 날 행사는 시민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쳤다.

## ☐ 제 10회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열려

태백문화원이 주최한 제10회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가 11월 13일 오전 10시~오후2시까지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대회에서는 총 25개팀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경연을 펼쳤다.

제10회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심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으뜸상/ (김태선) 영양갱

버금상/ (박재옥) 옥수수붉은시루떡)

(박철성) 메밀부침

솜씨상/ (김명자) 옥수수동동주

(이금순) 한약동동주

(박훈남) 옥수수도너츠

장려상/ (김노미) 콩비지밥

(이경옥) 무보쌈

(심금량) 김치속감자송편)

특별상/ (안연금) 감자송편

(김갑순) 옥수수찹쌀떡

(권수교) 갯김치전병

진미상/ (김미영) 두부와 국수의 조화

(강향숙) 창포묵

(서선주) 꽃동지미

(박미숙) 감자시루떡

별미상/ (김일연) 과일빵

(이춘예) 메밀부침

(김옥성) 소고기찹쌀말이



인기상/ (어순옥) 흰떡구이

(권후남) 칩부침

(권길자) 칩전병

(주길자) 초두부

노력상/ (김윤자) 찰밥

(김화자) 해바리기김밥

### ▣ 가을 철암(철암에 색 입히기)전

11월 1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철암동 철암역 갤러리에서 시민 및 관광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 ▣ 2002학년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

2002학년도 제2기 태백문화학교 수료식이 12월 2일 오전 10시 태백문화원 강당에서 열렸다.

국악교실 을 비웃 칼라믹스교실, 도자기교실, 주부노래교실, 한문교실, 테디베어교실, 스포츠댄스교실, 가야금교실 등 초 8개 강좌를 실시한 제2기 문화학교는 200명이 수료했다.



# 자생화훼 현황, 번식 및 재배기술

농학박사 고 재 영  
강원도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

## 제 1 장. 자생화훼 현황

### 1. 세계 화훼산업 흐름

- 유럽: 126억불, 미국: 41억불
- 아시아, 아프리카등 신흥생산국들의 재배면적 및 생산액 증가
- 화훼신흥국: 에콰도르, 케냐, 남아공, 중국, 인도, 베트남

표 1. 세계 꽃 생산현황(1999)

국 가	생산면적 (ha)	생산액 (US 백만\$)	비고
전 체	313,090	25,000	'97
유 럽	46,330	12,581	'95
아메리카	58,100	4,100	미국
아시아	225,500	451	중국
아프리카	4,360	?	



## 2. 세계의 신화훼 개발 방향

현재 네덜란드 꽃시장에서 거래되는 품목수는 800-1,000종류로 지구상에 꽃피는 식물이 25만 종류임을 감안할 때 현재 꽃으로 이용되고 있는 품목은 1%도 채 안됨. 따라서 아직 많은 식물종이 원종 그 자체 또는 약간의 선발과 교잡을 통해 화훼로 이용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

### 가. 신화훼작물 구비조건

- 관상구분은 분화는 최소한 1주일이상, 절화는 5일 이상
- 재배기간은 분화의 경우 20주 이하이어야 한다.
- 병해충에 대한 저항성이 있고, 그밖에 인체에 유독물질이 있으면 곤란

### 나. 신화훼 도입을 위한 식물별 유형

- 1형: 재배체계가 잘 확립된 품목으로 화형, 화색, 엽형 등의 형질개발이 필요
- 2형: 재배법은 어느 정도 확립되었으며 이용이 점차 증가되는 품목(정원이나 분화용, 매발톱꽃, 산호수 등)으로 연중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들이 필요
- 3형: 아직 거의 알려져 있는 않은 품목에 대한 연구로 기초 생리생태 조사, 특성평가, 생산체계 및 개화생리 연구가 필요한 식물

### 다. 각국의 신화훼 개발 현황



○ 미국: Cupres년 'Goldcrest', Eustoma, Clematis, Gentiana, Curcuma 등

- 1단계: 수집자원을 온실조건에서 기초특성 평가/1-2년소요 (10-20종)

- 2단계: 1단계선발품목의 번식 및 개화조절 기술개발/2-3년 (10종)

- 3단계: 2단계 선발품목의 생육 및 개화조절 체계 확립/1-2년 (1-3종)/ 민간에서 연구비 지원

○ 이스라엘: Rosa, Carnation, Gypsophila, Hypericum, Aster 등

- 현재 10년전에는 재배되지 않았던 신화훼 작물이 60% 차지

○ 호주: Protea과 Grevillea, Anigozanthos, Waxflower 등

- 세계 27위 수출국 (25백만불), 시드니올림픽 야생화꽃다발 성과

### 3. 한국의 자생화훼 현황

#### 가. 자생화훼란?

자생화(Native flower, Wild flower)의 의의(意義)로는 협의(狹義)로는 어떤지역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토착꽃(indigeneous flower)이며, 광의(廣義)로는 어떤지역에서 인공적 보호를 받지않고 자연상태 그대로 자라고 있는것(spontaneous flower)을 말한다. 따라서 외래식물 이라도 오래전부터 그곳에 귀화되어 살고 있



는 귀화된 꽃도 토착의 꽃과 함께 자생화 범주에 포함 시키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 또는 들에 자연적인 상태로 발생되어 우리나라의 환경에 잘 적응하여 뿌리를 뻗어 계속해서 생육 및 번식을 하는 식물을 일컫는다.

이러한 자생식물중 화훼로서의 관상가치를 갖고 있으며 사람이 관상용도로서 이용할수 있는 식물을 자생화훼라 하고 야생상태의 식물을 사람이 이용하고자 하는 용도, 즉, 분화, 절화, 화단 및 꽃꽂이소재 등 관상가치를 높여 재배 및 이용하는 식물을 일컫는다.

#### 나. 자생식물의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80과 243속에 속하는 총 4,210종의 야생식물이 조사된 바 있으며, 외래종은 438종으로 국내에서 귀화된 종류들이다.

종수는 쌍자엽식물이 가장 많고, 단자엽, 고사리류, 나자식물순이다. 또한 목본식물이 21.6%이며 종 이하의 것을 합치면 28.3% 이다.

#### (1) 전국 재배현황

자생화의 전국재배면적은 1998년 78.7ha로 일반화훼 재배면적 5,486ha의 1.4%에 불과하지만 점차 그 면적이 증가되는 양상이다. 또한 시설재배는 12.6ha로 16%에 지나지 않아 일반화훼의 59.1%에는 크게 못미치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노지재배에 많이 의존하는 형편이나 점차 시설에 의한 고품질 생산이 증가되는 양상이다.



표 2. 생산규모별 농가수 및 품목명('98 원예연구소)

생 산 규 모	품 목 명
10만본 이상	구절초, 금낭화, 꽃창포, 난류, 바위솔, 벌개미취, 비비추류, 얼레지, 용담, 패랭이
5만본 ~ 10만본 미만	평의비름, 매발톱꽃, 원추리, 할미꽃
1만본 ~ 5만본 미만	개미취, 기린초, 꽃무릇, 나리류, 노루귀, 동의나물, 맥문동, 범부채, 복수초, 복주머니난, 석곡, 초롱꽃, 층꽃, 털부처꽃, 투구꽃, 해국
1만본 미만	속새, 앵초, 인동, 감국, 꿀풀, 난쟁이, 담쟁이, 겹도라지, 돌단풍, 동백, 두메부추, 만병초, 미선나무, 바위취, 병아리오줌, 상사화, 섬잔대, 섬초롱꽃, 선이질풀, 수호초, 제비동자, 처녀치마

### (가) 자생화 재배농가

자생화 재배농가의 생산은 주로 판매가 82.2%로 가장 많고 취미 재배도 17.8%로 비교적 많은 편이다.

표 3. 재배규모별 분포

계	3,000평 이상	1,000 ~ 3,000평 미만	500평 ~ 1,000평 미만	500평 미만
45(100)	14(31.1)	10(22.2)	4(8.9)	17(37.8)

표 4. 판매처별 분포

계	조경회사 납품	꽃시장으로 출하	소매(개인)	미출하(취미 재배)
45(100)	13(28.9)	13(28.9)	7(15.6)	12(8)

### ○ 재배농가의 해결 요구과제

- 판매 활성화 방안 모색(외국수출방안) : 10
- 육종 품질개량(짧은 개화기간, 단순한 화색 등의 단점보완) :



- 각 품목의 생리?생태적 특성연구를 통한 재배법 확립  
(조경이용 확대 차원, 단가인하 등) 및 보급 : 7
- 우리꽃에 대한 홍보 : 5
- 조경식재시 관리요령 및 식재 디자인 개발 : 2
- 대량번식 방법 연구
- 외국에서의 우리 야생화에 대한 이용 및 연구현황 파악
- 야생화 재배시범단지 조성

표 5. 이용처별 분포

공원 및 정원조성	도로변 화단조성	아파트단지 및 건물주변의 녹지대 조성
29(51.8)	15(26.8)	12(21.4)

※기타 : 야생화단지, 휴양림, 수목원 조성, 골프장 조경, 사찰조경, 자연학습장 및 학교, 산지절개지면 조경 등

표 6. 야생화의 확보방법

계	야생화생산업체(재배농가, 식물원)에서 구입	꽃시장에서 구입	자체생산 (순수자체생산)
43(100)	29(67.4)	8(18.6)	5(2)

## (2) 강원도 재배현황

강원도는 산지가 82%로 자생화 유전자원이 풍부하며 재배면적 또한 31.2ha로 전국의 약 40%를 점유하고 있다. 1999년 생산액은 1,337백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이며, 용담, 조팝나무, 옥잠화



등의 절화류를 중심으로 일본, 홍콩등으로도 일부 수출이 증가추세이다.

표 7. 강원도 재배면적 및 수출액 증가 추세

구분	면적 (ha)	생산량 (천분)	생산액 (백만원)	수출액 (백만원)	비 고
'96	7	6,545	408	69	용담, 조팝나무, 노루귀, 옥잠화
'98	28	3,307	1,272	119	
'99	31.2	3,901	1,337	-	

강원도 자생화 농가는 경영주 평균연령이 47세로 비교적 노령화 되었으나 최근 젊은층에서의 신규 재배농가가 늘어나고 있다. 재배 경력은 약 10년정도로 농가당 평균 2.3명이 영농에 종사하고 있다.

표 8. 강원도 자생화 재배 농가현황('97 강원)

경영주연령 (세)	영농경력 (년)	자 생 화 재배 경력 (년)	수확년수 (년)	영농종사자수 (명)		
				계	남	여
47	22	10	10.2	2.3	1.3	1.0

강원도의 주요재배 품목은 숙근류의 구름패랭이꽃, 제비동자꽃등 50종, 구근류는 하늘나리, 솔나리 등 5종, 난류의 새우란, 자란 등 4종, 화목류의 조팝나무, 개쉬땅나무 2종 이다. 한편 실제 주로 판매되고 있는 품목은 전체적으로 43종이나 현재는 점차 그 종수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번식방법은 주로 종자에 의한 실생파종으로 번식되고 있으며 종에 따라분주 혹은 삽목에 의한 번식방법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판



표 9. 강원도 주요 자생화 재배 및 판매 품목 ('97 강원)

구 분	재 배 품 목	판 매 품 목
계	61 종	43 종
숙근류	구름패랭이(술패랭이), 제비동자꽃(동자꽃), 노루귀, 복수초, 선이질풀, 용담, 개미취, 벌개미취, 은방울꽃, 구절초(한라구절초, 바위구절초), 붓꽃(각시붓꽃), 꽃창포, 바위솔, 동의나물, 곰취, 처녀치마, 산옥잠화, 비비추, 원추리(애기원추리, 각시원추리), 감국, 분홍바늘꽃, 금낭화, 할미꽃, 꿩의비름, 흰줄무늬옥잠화, 맥문동, 매발톱꽃, 기린초, 민들레, 둥글레, 꽃향유, 돌단풍, 물레나물, 마타리, 앵초, 노랑제비꽃, 노루오줌, 큰꿩의다리, 범부채, 부처꽃, 산마늘, 파리, 두메부추 (50종)	제비동자꽃(동자꽃), 노루귀, 복수초, 술패랭이, 개미취, 벌개미취, 용담초, 구절초(한라구절초, 바위구절초), 붓꽃(각시붓꽃), 꽃창포, 바위솔, 동의나물, 곰취, 처녀치마, 산옥잠화(비비추), 분홍바늘꽃, 금낭화, 꿩의비름, 원추리(애기원추리), 맥문동, 둥글레, 부처꽃, 노루오줌, 큰꿩의다리, 민들레, 파리, 매발톱꽃, 기린초 (34종)
구근류	나리류(하늘나리, 솔나리, 참나리, 중나리), 산마늘(5종)	나리류(하늘나리, 솔나리, 중나리), 산마늘(4종)
난 류	새우란, 자란, 해오라비난초, 개불알꽃 (4종)	새우란, 자란, 해오라비난초, 개불알꽃(4종)
화목류	조팝나무, 개쉬땅나무(2종)	개쉬땅나무(1종)

매형태는 포트형태가 가장 많아 2-3분얼된 상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가격은 주문 물량 혹은 도,소매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화종에 따라 포트당 500-1,000원선이 가장 많은 편이었다.. 그러나 가격은 점차 하락추세로 대량생산에 의한 원가절감으로 일반 화훼류와 비슷한 가격대가 형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자생화 판매를 위한 포장은 종묘의 경우 3-5치 포트를 기준으로 박스단위로 실시하며, 절화의 경우 10본을 기준으로 박스당 60단 정도로 포장한다. 판매는 직거래가 81%로 가장 많으며 출하 또한 개별 출하가 88%로 대부분 열악한 상태로 출하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농가조직이 점차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출하도 점차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판매출하처 비율은 조정 및 건설 회사 비중이 가장 많고 도매시장, 중간수집상 순이었다.

### (3) 자생화 용도별 분류

(가) 약용식물 : 가시오갈피나무, 비자나무, 약모밀, 인삼, 참당귀, 고로쇠나무, 산수유, 애기똥풀, 작약, 헛개나무, 겨우살이, 쇠무릅, 용담, 지황, 황금, 느릅나무, 쑥, 익모초, 질경이

(나) 향신료식물 : 고추냉이, 배초향, 산마늘, 산초나무

(다) 기호식물 : 구기자, 돌외, 둥글레, 오미자, 울무, 차나무, 칙

(라) 산채류

- 양 치 식물 : 고사리, 고비

- 쌍자엽식물 : 참나물, 미역취, 곰취, 참취, 개미취, 누룩취, 마타리, 미나리, 두릅, 땅두릅, 고들빼기, 눈개승마, 단풍취, 머위, 잔대, 고들빼기, 도라지, 쑥, 독활, 비름, 씬바귀, 냉이, 돌나물, 뿌리뽕이, 울릉미역취

- 단자엽식물 : 산마늘, 달래

(마) 밀원식물 : 밤나무, 아카시아나무, 유채, 피나무



(바) 염료식물 : 감나무, 꼭두서니, 지치, 쪽, 치자나무

(사) 식용과일 : 개암나무, 다래, 대추나무, 보리수나무, 복분자딸기, 뽕나무, 왕머루, 으름덩굴, 잣나무

(아) 전통식품 : 마, 메밀, 상수리나무, 연꽃, 참중나무

(자) 전통가구 : 땡땡이덩굴, 띠, 싸리나무, 옷나무, 인동덩굴

(차) 화훼 및 조경용 식물 : 219종

#### - 초본류

• 고사리류(8종) : 석송, 만년석송, 봉의꼬리, 우단일엽, 일엽초, 뱀톱, 쇠고비, 다람쥐꼬리

• 쌍자엽식물(47종) : 금낭화, 파리, 민들레, 노루귀, 섬노루귀, 족도리풀, 개족도리풀, 꿀풀, 벌개미취, 섬초롱꽃, 큰까치수영, 광능골무꽃, 범꼬리, 술패랭이꽃, 파리풀, 구절초, 동의나물, 변산바람꽃, 쑥부쟁이, 패랭이꽃, 기린초, 동자꽃, 복수초, 엉겅퀴, 피나물, 금강초롱, 매발톱꽃, 부처꽃, 앵초, 할미꽃, 금낭화, 매미꽃, 분홍바늘꽃, 우산나물, 호장근, 금불초, 모데미풀, 비비추, 자란초, 깽깽이풀, 모시대, 산국, 제비꽃, 꿩의바람꽃, 물레나물, 삼백초, 제비동자꽃,

• 단자엽식물(38종) : 참나리, 하늘말나리, 섬말나리, 땅나리, 털중나리, 중나리, 하늘나리, 날개하늘나리, 붓꽃, 각시붓꽃, 타래붓꽃, 노랑무늬붓꽃, 갈대, 샷갯풀, 잔디, 억새, 애기나리, 창포, 비짜루, 위도상사화, 석산, 붉노랑상사화, 처녀치마, 윤판나물, 둥굴레, 뼈국나리, 은방울꽃, 산부추, 맥문동, 산옥잠화, 풀솜대, 범부채, 산자고, 얼레지, 새우난초, 자란, 춘란, 석곡,



• 수생식물(7종) : 어리연꽃, 개연꽃, 가시연꽃, 마름, 석창포, 부들, 수련,

- 목본류

• 나자식물(9종) : 개비자나무, 노간주나무, 은행나무, 주목, 향나무, 구상나무, 소나무, 전나무, 측백나무

• 낙엽관목(36종) : 물싸리, 섬백리향, 개나리, 딱총나무, 산철쭉, 조팝나무, 층꽃나무, 개느삼, 모란, 생강나무, 쥐똥나무, 탕자나무, 고추나무, 무궁화, 줄대강나무, 털개회나무, 골담초, 미선나무, 장구밥나무, 진달래, 해당화, 광대싸리, 박쥐나무, 작살나무, 찔레꽃, 화살나무, 금강인가목, 붉은병꽃나무, 정향나무, 참빗살나무, 황매화, 노린재나무, 산수국, 조록싸리, 철쭉, 히어리

• 상록관목(9종) : 조릿대, 광나무, 만병초, 식나무, 회양목, 팽팽나무, 사철나무, 자금우, 호랑가시나무

• 낙엽활엽교목(49종) : 가래나무, 느티나무, 목련, 산딸나무, 음나무, 가죽나무, 당단풍, 멸구슬나무, 산사나무, 이팝나무, 개오동, 대팻집나무, 무환자나무, 서어나무, 자귀나무, 구지뽕나무, 다릅나무, 물푸레나무, 소사나무, 자작나무, 까마귀베개, 단풍나무, 배롱나무, 소태나무, 주엽나무, 까치박달, 때죽나무, 박달나무, 시무나무, 팔배나무, 꾸지나무, 마가목, 벽오동, 신나무, 팽나무, 나도밤나무, 말채나무, 비목나무, 오동나무, 함박꽃나무, 노각나무, 망개나무, 붉나무, 오리나무, 회화나무, 누리장나무, 모감주나무, 사시나무, 왕벚나무,

• 상록활엽교목(5종) : 가시나무, 녹나무, 동백나무, 붓순나



무, 후박나무

• 덩굴식물(11종) : 노박덩굴, 등, 송악, 청미래덩굴, 능소화, 마삭줄, 으아리, 큰꽃으아리, 담쟁이덩굴, 멸꿀, 인동덩굴

## 2 장. 자생화훼 번식 및 재배기술

### 1. 자생화훼 번식 방법

자생화훼의 번식은 농가 혹은 취미 원예가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일이며, 유전자원의 보호 및 증식수단이다. 이러한 번식방법에는 크게 종자번식과 영양번식 방법으로 나눌수 있으며 자생화의 번식은 종류에 따라 종자로만 번식이 가능한 것, 종자번식이 잘안되는 종류, 영양번식이 유리한 것 등이 있다.

#### 가. 종자번식

##### (1) 종자의 휴면양상

식물의 종자는 발아에 알맞은 환경 즉, 온도 및 광 조건 등의 최적의 환경 하에서도 잘 발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종자의 휴면(dormancy) 때문이다. 휴면의 원인은 종자의 상태와 특성에 따라 다르지만 크게 분류하면 1) 종피에 수분 및 공기가 잘 침투하지 못할 경우, 2) 종자가 미성숙한 경우, 3) 생리적으로 배(胚)가



휴면하고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각각의 휴면 원인에 따라 층적법, 저온저장 및 변온처리, 식물생장조절물질(지베렐린 등) 혹은 화학물질을 처리함으로 이러한 종자의 휴면을 타파하여 발아율을 향상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 (2) 종자의 발아

자생화 종자의 발아는 충분히 성숙되고 휴면이 타파된 종자라면 환경조건 즉, 수분, 온도, 광 등에 따라 발아율이 다소 달라질 수 있다.

### (가) 수 분

건조된 종자는 보통 10% 안팎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외부에서 수분을 공급하여 70% 이상의 수분이 공급되면 생리활성이 일어나 발아하게 된다. 따라서 종피가 두꺼워 수분이 침투하지 못하는 종자등은 화학물질, 변온처리등의 방법으로 종피를 연화시켜 충분히 수분을 흡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 (나) 온 도

자생화씨는 화종에 따라 발아적온이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많은 화종들이 20-25℃ 사이의 온도가 발아적온이나, 노루오줌, 바위솔 같은 종류는 15℃의 낮은 온도에서도 발아율이 높다. 그러나 대부분의 종자는 30℃의 높은 온도에서는 잘 발아하지 않고 발아율이 떨어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 (다) 광

종자발아시 광에 대해서도 민감한 화종이 많다. 많은 자생화훼 종류는 광발아 종자가 많은 편이지만 암발아 종자도 상당수 있으며, 광의 많고 적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특성으로 분류할수 있다.('99 건국대 한인송)

- ① 광발아(암상태는 거의 발아안됨) : 봄맞이, 구슬봉이, 부처꽃
- ② 광발아(암상태는 광상태의 11-50%) : 물매화, 층층이꽃
- ③ 광발아(암상태는 광상태의 51-90%) : 바위솔, 송장풀, 자주꽃방망이, 까치수영, 꼬리풀, 쑥부쟁이, 쥐오줌풀, 노루오줌
- ④ 명암에 관계없는 화종 : 산국, 솜방망이, 패랭이, 전동싸리
- ⑤ 암발아(광상태는 암발아의 51-90%) : 으름
- ⑥ 암발아(광상태는 거의 발아 안됨) : 현재 알려진 것 없음, 가능성은 있음

## 나. 영양번식

자생화훼류 역시 유성적(有性的)인 종자번식 이외에 식물체의 일부를 절단 혹은 분리해서 완전히 독립적인 개체를 만들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모본과 거의 동일한 개체를 생산할 수 있는 번식법을 영양번식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종자번식 보다는 일시에 많은 묘를 얻는기 쉽지 않지만 종류에 따라 오히려 쉬고 간편하게 번식시킬수 있는 방법이다.

### (1) 분 주



숙근성 자생식물은 대부분 포기나누기로 쉽게 번식할 수 있다. 그러나 번식속도가 늦고 대량번식에는 다소 어려운 점이 있다. 분주작업은 봄과 가을에 주로 실시하지만 화종에 따라 여름에 가능한 것도 많이 있다. 특히 종자번식이나 삽목번식등이 어려운 화종, 즉 복주머니란 등, 또한 종자번식이나 삽목번식보다 분주번식이 빠른 화종, 즉 벌개미취, 좀씀바귀 등은 분주번식이 오히려 빠르고 실용적이다.

## (2) 분 구

구근류의 구근을 쪼개거나 자구를 떼어내어 번식하는 방법으로 상사화류의 인공번식방법 등이 이에 속한다.

## (3) 삽 목

식물체의 일부인 뿌리, 줄기, 잎 및 인편등을 떼어내어 발근 및 싹을 발생 시키는 방법으로 자생식물에서도 가장 간편하면서도 유용한 번식수단이다. 삽목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이 몇가지가 있다.

### (가) 줄기삽목

삽목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초본과 목본성에 따라 다르다. 가지의 연한것과 굳은것에 따라 녹지삽, 숙지삽으로 나눌수 있다. 녹지삽은 어린가지에 잎이 있을 때인 5-6월경에 주로 실시하고, 숙지삽은 1년이상 묵은 가지로서 초봄에 실시한다.

### (나) 잎삽목



주로 잎을 이용하여 삽목하며, 엽병을 포함시킬수도 있다. 주로 돌나물과 식물에 해당하며 기린초, 평의비름 종류는 엽삽으로도 충분한 발근을 시킬수 있다.

#### (다) 근삽목

주로 뿌리를 이용하여 삽목하는 방법으로 식물의 뿌리에서 부정아(不定芽)가 잘 나오는 종류, 즉 동자꽃, 생열귀, 개불알꽃 등이 속하며, 특히 개불알꽃의 번식수단으로 중요하다.

#### (라) 조직배양

종자, 삽목, 분주등의 방법으로도 잘 번식이 안되는 화종은 주로 기내에서 조직배양을 이용한다. 꽃귀손이풀, 솔나리, 양치류 등의 희귀 및 멸종위기 식물의 기내증식으로 대량으로 번식할수 있으며, 종보존 차원뿐만아니라 상업적으로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2. 자생화훼 재배 방법

### 가. 육묘

#### (1) 육묘의 필요성

자생식물의 재배는 노지 포장재배가 주로 활용되고 있으나 종자의 유실(새, 곤충, 비, 바람등에 의한)을 막고 균일 발아, 건전묘의 육성, 품질의 극대화와 집약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운 기법으로 발전하여 선택된 용기(상자, 병, 프러그육묘판등)에 고품질



의 상토를 충진, 파종하여 발아시켜 집중 관리하에 균일, 건전, 우수품질의 묘를 생산하여 공급하므로서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보다 좋은 육묘의 공급으로 농가 수익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농가의 경제에 큰 도움이 되리라 보며 “묘 농사가 반 농사다”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을 깊이 새겨봄직 하다.

## (2) 플러그육묘 및 상토

### (가) 플러그육묘용 상토

상토 조건은 장기간 생육, 개화 시킬수 있어야 하고 배수, 통기, 보비 및 보수력도 좋아야 한다. 농가는 대부분 자가조제한 용토를 쓰고 있으며 최근 자연산 재료보다는 쉽게 구할 수 있고 보수, 배수, 보비면에서 우수하고 생력화가 가능한 인공용토를 혼합하여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상토의 경량화로 작업 및 유통 효율을 증가시켜 분화용상품생산의 기본기술로 다른 자생화로 전이가 가능하다.

동자꽃, 제비동자꽃의 육묘 및 분화용 상토로 질석 40% + 펄라이트 20% + 피트모스 40% 혼합상토가 플러그 육묘 뿐만아니라 분화용 상토로도 적합하였다.

### (나) 분화재배 및 상토

자생화의 분화재배시 상토는 상품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생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화종별 보다 세밀한 상토구명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화훼류의 분화크기가 작아지고 있으므로 미니분화에 적합한 상토를 사용하는 것이 고품질의 상품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동자꽃, 제비동자꽃의 경우 두화종의



분화상토 역시 모두 질석 40%+펄라이트 20% + 피트모스 40%가 건물중 및 상대생장율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 (3) 육묘 기반 구축

#### (가) 상토준비

화중에 따라 그 재료를 달리 할수 있으나 상용하는 상토로는

- ① 피트모스
- ② 혼합피트(피트모스:버미큘라이트:펄라이트)
- ③ 혼합상토(부숙퇴비: 버미큘라이트:펄라이트: 제오라이트)
- ④ 산마사 혼합토(산마사:부엽(부숙퇴비):훈탄왕겨)
- ⑤ 수태(습지에서 생산되는 이끼류)

위의 상토중에 피트모스를 제외하고 필히 상토 살균, 살충 소독을 하여야겠다.

#### (나) 육묘상자의 준비

상자는 묘를 잘 자라게하는 점도 있겠으나 관리의 편의성, 운반의 간편화로 물류비, 인건비를 절감할수 있는 것이 좋겠다.

① 삼목상자 : 삼목상자는 다루기는 편리하나 운반하기가 불편하여 균일묘 생산에는 문제가 많다

② 두부상자 : 낮은 키의 묘는 두부상자 타입의 높이 쌓을수 있는 것들을 활용하면 물류비가 절감되고 인건비도 동시에 절감할수 있으나 육묘상자로서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개량이 시급하다

③ 초화상자 : 상자의 단가는 매우 저렴하고 가볍고 좋으나 밑의 깔개 자료가 부직포나 쥘트테이프 같은 것을 활용하여야 한다.



④ 컨테이너 상자 : 백합등 구근류나 뿌리의 발육이 왕성한 종류의 초장이 매우 큰 종류의 종묘를 육묘하는데 효과적이다.

이 또한 기존 제품이 공산품이나 식품의 운반상자로 개발되었기에 재배, 육묘용 상자로서의 개발이 시급하다

⑤ 플러그 육묘 트레이 : 플러그 트레이는 대체로 식물의 종류와 육묘기간에 따라 셀의 크기를 선정한다.

상기 ①,②,③,④는 모두 파종이 편리하고 관리가 간편하다  
묘의 자람이 균일하지 못할수 있고 이식할 때 얇힌 뿌리의 분리작업이 추가되므로 인건비가 더해진다. ⑤의 플러그 육묘는 균일묘는 생산되나 넓은 육묘장이 필요하고 파종의 어려움이 있어 기계화해야 되므로 최초 설비비가 많이 든다.

#### (다) 종자의 전처리

종자를 깨끗하게 잘 선별하고 살균, 살충처리를 하고 휴면타파를 요구하는 종자는 저온처리나 화학적 처리를 필한후 파종한다.

#### (라) 파 종

- 상자육묘 : 입자가 매우 작은 종은 종자크기에 비례하여 1-1.5배되는 보조재료(펄라이트 가는입자, 버미큘라이트 가는입자 등)를 섞어 파종하면 균일 파종에 유리하다.

- 플러그육묘 : 굵은 종자는 손으로 직파하면 되고 입자가 미세한 종자는 균일 파종을 위해 기계로 파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마) 복 토



미세한 종자는 대체로 복토를 하지 않는다.

일반입자 크기의 종자는 크기에 따라 2-3배의 복토를 해준다.

#### (바) 발아후 관리

① 온도, 습도, 통풍관리 철저

② 비배관리는 액비를 얹게 희석해서 엽면살포 하든가 관수시 함께 시비 할 수 있다.

③ 소독은 육묘온실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으나 묘의 생육상태를 점검하여 살균, 살충작업을 하여야겠다.

초화류의 균일묘 대량생산을 위해서는 플러그 육묘가 증가하고 있으나 육묘시 두상관수를 하여 파종후 묘가 어릴 때에는 용토가 다져져 물리성이 나빠지면, 생육중 후기에는 묘가 자라면서 용토 표면을 점차 덮게 되어 물이 근권부까지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고 잎 표면에 떨어져 쉽게 증발 될 뿐 만 아니라 물튀김에 의한 병해의 전파 등 문제가 있다.

플러그묘 소질은 저면관수가 두상관수보다 우수하였으며 실용적으로 적합한 저면관수시간은 꽃향유 ‘자향’과 섬초롱꽃은 10분, 눈개쭉부쟁이는 20분이었다. 용토의 삼상분포는 화종에 따라 달라 꽃향유 ‘자향’과 섬초롱꽃은 저면관수로 액상이 감소되고 기상이 증가된 반면 눈개쭉부쟁이는 액상이 증가되고 기상이 감소되었다.

#### (사) 묘 굳히기 작업

하우스 내부의 온,습도를 실외의 외기환경과 같도록 하는 시간을 점차 늘려 이식하려는 환경에 적응력을 키워주고 묘의 뿌리가 상자 밑으로 뻗어 내렸을 경우 자리뜨기를 해 주어야 한다.



#### (아) 이 식

육묘기간이 길어야 하는 좁은 상자 또는 플러그에서 묘를 포트나 노지포장에 이식한다. 이식을 꺼리는 종일수록 어린 묘령기에 이식을 한다.

잎이 넓은 식물은 이식후 잎의 증발억제를 위해 증발억제제(그린나)를 살포한다.

#### (4) 출하전처리

##### (가) 묘 굳히기 작업

- 상자육묘 : 자리뜨기한다. 상자육묘는 바닥에 밀착되는 경우가 많아 뿌리가 밑으로 활착되므로 단근작업을 한다.

- 플러그 육묘 : 위치 바꾸기 작업, 자리뜨기후 방향을 바꾸어 준다. 묘가 트레이에서 분리되기 쉽게 물을 충분히 준다

- 포트육묘 : 바닥에 밀착되어 재배된 경우가 많아 자리뜨기로 단근하여 주어 3-7일후 출하하도록 한다.

##### (나) 선별작업

불량묘, 규격 미달된 묘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우수한 묘를 선발, 검수하여 출하한다.

##### (다) 포장 및 보급

포장은 물류비 절감방안으로 컨테이너 상자나 두부상자 타입은 보냉탑차등을 이용하여 여러층으로 적재할수 있어 작업이 편리하



나 ①,③,⑤는 포장을 별도로 하여야 만이 운반이 용이하다. ③,⑤는 규격 Box를 제작하여 사용하면 초장이 짧은 묘를 2단까지 가능해서 물류비 절감이 된다.(물류비, 인건비, Box 제작비 절감효과). 작업의 운송은 낮보다 야간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 나. 개화기조절

개화조절의 방법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온도, 일장 및 생장조절물질이다. 이 외에 파종기, 정식기 및 적심으로 가능하며, 토양중의 수분과 영양분의 상태가 개화에 영향을 끼쳐 개화기를 앞당기거나 늦출 수 있으며 화수 등에도 영향을 끼친다. 또한 휴면이나 로제트 타파에 의한 개화기 조절기술은 자생 화훼류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술이다.

##### (1) 온도처리에 의한 개화기 조절

온도는 식물의 생장 촉진 또는 억제시키는 중요한 작용을 하며 또한 휴면타파, 춘화처리등 온도에 의해 화아분화가 촉진되는 역할을 하므로 자생화 중 솔나리의 온도에 따른 개화반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솔나리는 일평균 온도가 낮은 16℃에서는 개화가 지연되었으며, 높을수록 개화가 촉진되어 24℃가 16℃보다 약 30일 정도 개화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 (2) 휴면타파에 의한 생육 및 개화기 조절

자생화훼류는 개화기가 한정되었으며 지역별, 환경에 따라 다소 개화기가 다르지만 사람이 원하는 목적에 따라 어느정도 개화를 조절하는 기술이 필요하며, 점차 기술이 발달함으로 주년생산에 의한



소비의 확대가 도모되고 있다.

표 10. 개불알꽃 저온(5℃) 45일 처리와 지베렐린 복합처리 효과

GA(mg/L)	초장(cm)	엽수	신초발생율(%)	신초발생소요일수
0	13.5	4.4	80	19.8
50	30.3	5.3	100	15.7
100	27.6	4.7	100	13.7
500	21.8	5.0	100	13.3

초롱꽃의 겨울개화는 11월 11일과 12월 1일 가온구는 개화 최성기가 2월중순부터 3월중순으로 관행에 비해 60~90일 빨라졌고 12월 21일 가온구는 3월상~4월상순으로 40~70일 빨라졌으며, 11월 하순부터 12월 하순경 근경 4mm 이상되고 저온처리(30일간)된 주를 온도 15℃~25℃로 조절 재배하면 2~4월 사이에 개화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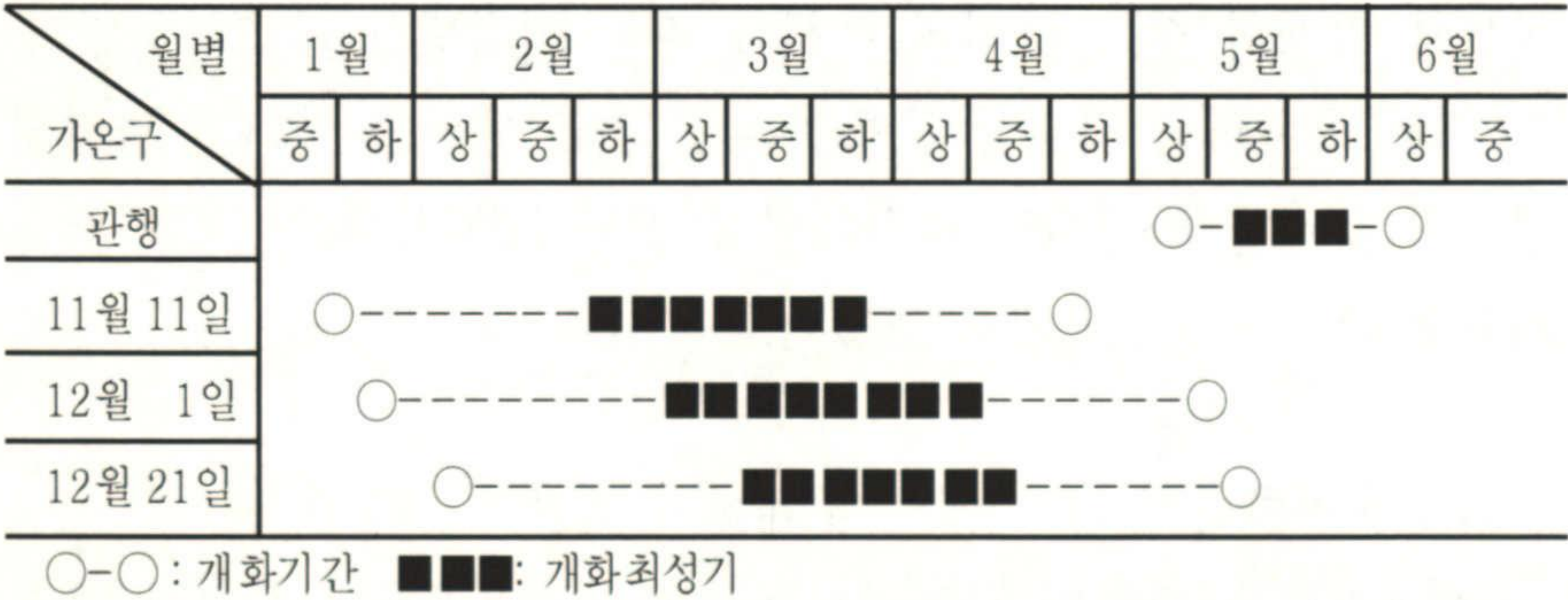


그림 1. 초롱꽃 겨울 개화촉진방법( '92. 충북)



### (3) 일장처리에 의한 개화기 조절

#### (가) 제비동자꽃 일장처리에 의한 개화기조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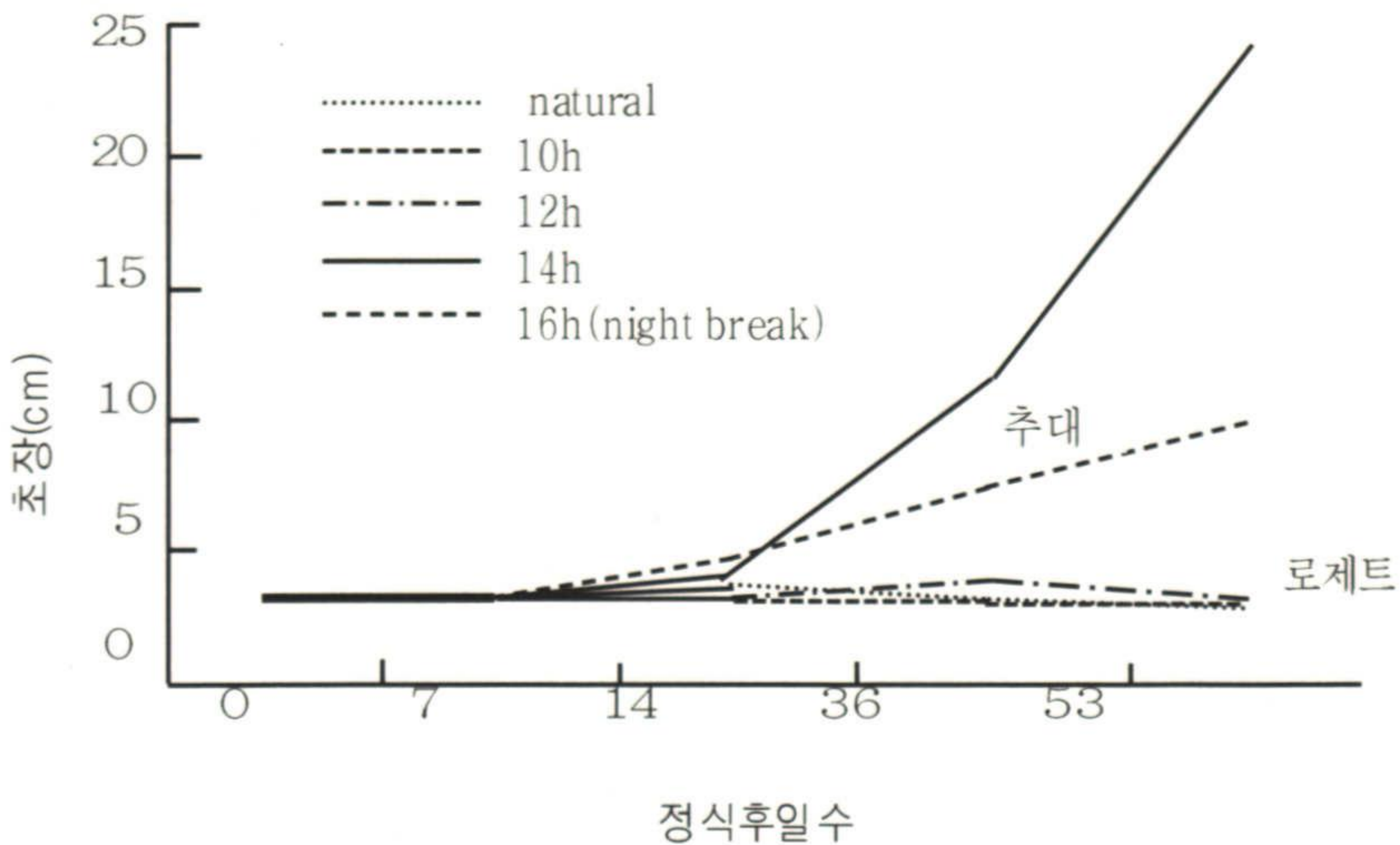


그림 2. 저온기(가을, 겨울철)생산을 위한 제비동자꽃 일장처리효과  
(야온 5-15℃)

#### (나) 섬초롱꽃 일장처리에 의한 개화기조절

장일성 식물로 한계일장은 12-14시간이며 일장이 길어질수록 개화가 촉진되고 개화 유도 감응기간은 4주 이내 임

### (4) 입실시기 조절에 의한 개화기 조절



표 11. 입실시기에 따른 제비동자꽃의 개화 및 특성

처 리(입실시기)	초 장(cm)	출현기(월.일)	개 화기( 월/일)	화 수(개)
1/18	39 b	2.14	6/12	19.8 b
2/28	47 a	3.16	6/28	34.5 a

#### (5) 파종기조절에 의한 개화기 조절

파종당년에 개화하는 화종은 파종시기를 조절함에 따라 개화기를 어느정도 조절할 수 있다. 다년생이지만 파종시기에 따라 당년에 개화가 가능한 화종중 재배방법을 이식재배와 직파재배로 구분할 때 개쑥부쟁이, 기린초, 동자꽃 등 9종은 파종 당년에 개화하였으며, 재배양식과 파종기를 달리하였을 때 개화기를 30 ~ 120일까지 조절이 가능하였다.

동자꽃 역시 파종시기에 따라 개화기 및 개화량 조절이 가능하며,

표 12. 당년개화가능 자생화종의 재배방법에 따른 개화기 조절

화 종	재배양식	파종기	이식기	개화기	화색
개쑥부쟁이	이식	2월상	5중	10중-11중	백
기 린 초	이식	2상-4상	5중-6상	7상-10상	황
동 자 꽃	직파	4상		7상-9상	적
용 머 리	이식	2상-4상	5중-6상	6하-9하	자주
톱 풀	이식	2상-6상	4중-7상	6하-10하	백
	직파	4상-6상		7상-11상	
패랭이꽃	이식	2상-6상	4중-7상	5중-10하	연홍
	직파	4상-6상		7중-10중	
산 국	이식	2상-6상	4중-7상	9하-11중	황
	직파	4상		10상-11상	
술패랭이꽃	이식	2상-6상	5상-7상	9하-11상	홍
	직파	4상		10상-11상	
벌노랑이	이식	2상-6상	5상-7상	6상-10상	황



6월 20일 파종은 고온으로 육묘가 어려우며 개화량이 저조하나 파종기가 빠를수록 개화소요 일수는 길어진다(표 30).

섬초롱꽃은 1-4월 파종으로 당년 9-11월 개화에 개화가 가능하지만 5월이후 파종은 이듬해 5-6월에 개화한다. 따라서 자생 섬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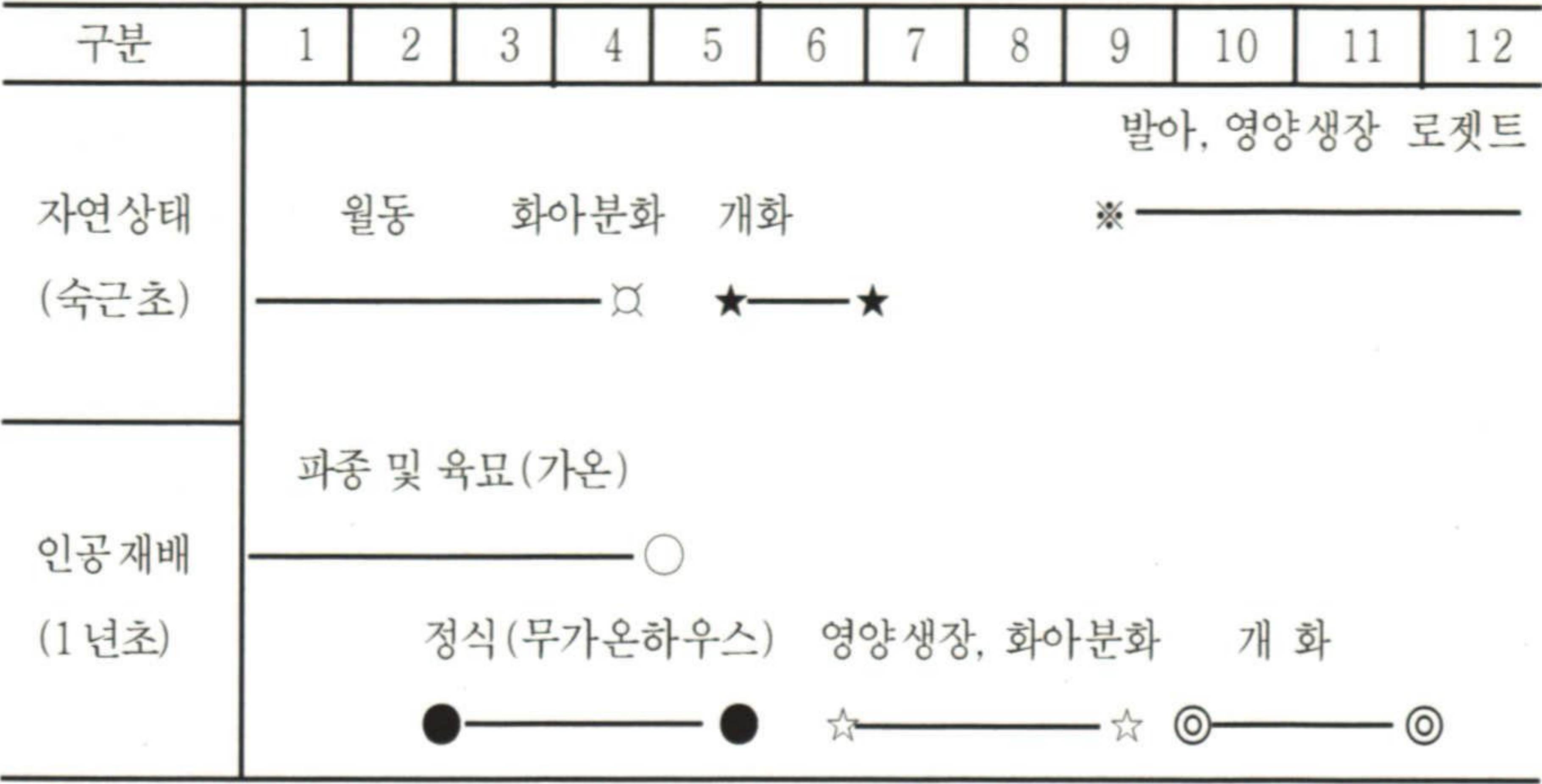


그림 4. 섬초롱꽃 파종기조절에 의한 연내 개화작형('94-'95 원예연)

롱꽃의 절화 및 분화 이용기간의 확대가 가능하여 절화생산은 5~6월에서 9~11월 개화까지 가능하다. 또한 분화생산시 입실시기 조절 및 일장처리로 꽃 관상시기 확대할 수 있다.

다. 초장조절

(가) 온도처리에 의한 초장 조절

제비동자꽃은 일평균 온도가 낮은 16℃에서 초장이 약 34cm로



작았으나 일평균 온도가 높은 28℃는 약 50cm로 분화로서는 초장이 길었으며, 그 차이는 약 15cm로 온도에 따라 줄기 생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

#### (나) 적심 및 생장조절제 처리에 의한 초장 조절

동자꽃은 유니코나졸 0.25mg/pot, 적심 1, 2회 처리, 제비동자꽃은 Ancymidol 0.25mg /pot와 PP333 0.25mg/pot가 무처리에 비해 5~6cm의 왜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낙동 구절초를 왜화시키고 다화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Uniconazole 0.25mg/pot 처리가 가장 효과적이다.

### 3. 자생화훼 조경용 지피식물 개발

#### 가. 자생화훼 조경용 지피식물 이용

최근들어 급격한 도시화에 따라 환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변의 미화 및 거주환경의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되어 조경에 대한 관심도가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조경식재에 소요되는 식물의 대부분은 외국 화종 일색으로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화종 선정이 필요하며 조경에서 자생화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 (1) 조경용 이용시 문제점



○ 조경공사 시공 시기와 초본류 자생식물 식재 적기와의 불일치(1999. 박용진)

☞ 내한성 품종 선발 및 육성 등으로 척박지에도 생육 가능한 화종개발

○ 부적지 식재로 인한 활착 및 생육불량으로 시공후 하자 발생

☞ 광환경, 토양환경 및 대기오염환경 등 적지 적화종 식재필요

○ 행사시기에 맞춘 전시적 긴급식재

☞ 급속한 활착 및 피복을 위한 번식법 개발 (땃장육묘법)

○ 조경소재로 홍보된 소재의 양적 결핍

☞ '90 ~ 99 현재까지 제시, 강원도원, 충남도원, 경북도원 등에서 가로화단 등 식재목적에 따라 적합한 자생화훼 품목을 선발하여 시험결과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를 조경식재에 바로 사용할 수 있게 홍보 필요

○ 식재 후 관리상의 문제점

☞ 적정 관리법 확립 및 관리 예산 반영

○ 가격의 불안정성과 조례 미정비(1999. 박용진)

☞ 우리나라 각 시도별 조경식재에 관한 조례규정 중에도 자생초화류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는 등 각 시도별 조례정비가 시급하다. 조경용 유망자생화를 선발, 대량생산 체계를 갖추어 가격경쟁력을 갖춘다.

(2) 조경용소재 기본요건 및 이용가치 높은 화종



표 13. 조경상 이용가치가 높은 자생지피식물 목록 ('99. 강원도원)

품명	학명	초장(cm)	생육형	분포	개화기	화색
개쑥부쟁이	Heteropappus hispidus	50 ~ 100	다년초	전국	7 ~ 10	남자색
꽃향유	Esholtzia splendens	50	일년초	중부이남	9 ~ 10	자주색
구절초	Chrysanthemum zawadskii	50 ~ 100	다년초	전국	8 ~ 10	흰색, 분홍
기린초	Sedum kamtschaticum	5 ~ 30	다년초	중부이남	6 ~ 7	노랑
긴병꽃풀	Glechoma hederacea	5 ~ 20	다년초	중부이북	4 ~ 5	자주색
땅채송화	Sedum oryzifolium	7 ~ 12	다년초	중부이남	5 ~ 7	노란색
담쟁이덩굴	Parthenocissus thunbergii	5 ~ 10	낙엽만성	전국	6 ~ 7	황록색
돌나물	Sedum sarmentosum	5 ~ 10	상록속근	중부이북	5 ~ 6	노란색
마삭줄	Trachelospermum asiaticum var. intermedium	10	상록만성	남부	5 ~ 6	흰색 ~ 황색
맥문동	Liriope muscari	20 ~ 50	상록속근	중부이남	5 ~ 8	연분홍
바위취	Saxifraga stolonifera	15 ~ 20	상록속근	중부이북	5	흰색
별개미취	Aster koraiensis	50 ~ 60	다년초	중부이남	6 ~ 10	연보라
붓꽃	Iris sanguinea hornem	30 ~ 60	다년초	전국	5 ~ 6	보라색
비비추	Hosta longipes	30 ~ 50	속근	중부이남	7 ~ 8	연보라
송악	Hedera rhombea	10 ~ 20	상록만성	중부이남	10	녹황색
섬백리향	Thymus magnus	1.5 ~ 3	낙엽관목경	북울릉	7	연분홍
옥잠화	Hosta longifolia	30 ~ 50	속근	전국	8 ~ 9	연자주, 흰색
용머리	Dracopcephalum argunense	30	다년초		6 ~ 8	보라색
은방울꽃	Convallaria hederacea	20 ~ 30	속근	중부이북	4 ~ 5	흰색
원추리	Convallaria hederacea	20 ~ 30	속근	중부이북	6 ~ 8	노란색
인동덩굴	Lonicera japonica	20 ~ 30	반상록만성	중부이남	6 ~ 7	흰색 ~ 노란색
좀씀바귀	Ixeris stolonifera	10	다년초	전국	5 ~ 6	노란색
패랭이	Dianthus chinensis	30	다년초	전국	6 ~ 8	진분홍
피막이	Hydrocotyle sibthorpioides	10	다년초	남부지방	7 ~ 8	흰색, 자주색
큰평의비름	Sedum spectabile	30 ~ 70	다년초	경기이북, 완도	8 ~ 9	홍자색
큰피막이	Hydrocotyle ramiflora	10 ~ 15	다년초	경기이남	6 ~ 8	흰색

○ 자생식물의 지피식물 소재로서의 기본요건

- 하층식재 소재로서 비교적 초장이 짧은 것.



- 잎이 오래도록 유지 될 수 있는 식물(상록성)
- 다양한 토양조건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강건한 식물
- 이식이 용이할 것
- 독특한 향기와 밀원 풍부하여 곤충을 유인할 수 있는 식물
- 질감이 우수한 식물
- 생태적 특성이 우수할 것
- 다년초로 매년식재하지 않아도 되는 경제적인 식물

## 나. 주요 조경용 자생지피식물 선발 및 식재방법

### (1) 식재장소별 자생지피식물 선발

조경용 자생식물은 실제 조경시 어느곳에 심어야 하는지는 판단하기 쉽지 않으나 조경목적에 따라 식재하되 식재화종의 생리, 생태 및 개화특성을 고려하여 식재하는 것이 자생화의 생육을 튼튼하게 하여 원하는 조경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 (2) 가로화단

표 14. 가을 가로화단 구성에 알맞는 자생화 개발 ('95, 강원도원)

화 종	화 색	초 장(cm)	번식방법	파종기(월)	개화기(월)	개화기간(일)
구절초	백색, 연분홍	100	실생, 분주 (봄, 가을) 삽목(7월)	3상~4상 (이식 재배)	9하~10하	30일 - 파종1년후 개화 - 분주당년 개화
산구절초	백색	50~80	실생, 분주, 삽목	"	"	"
산 국	황색	150~200	"	2상~6상 (이식 재배)	10상	"
감 국	황색	100	"	"	"	"
개쑥부쟁이	보라색	40~60	2상~6상	8하~10상 (이식 재배)		30일(당년 개화) - 4상~6상 직파



벌개미취	담자색	60~100	실생, 삽목 분주(3~4월)	4상~5상	8상~9하	50일 - 파종1년후 개화 - 분주당년 개화
꽃향유	자색	30~60	실생	4상~5상 (이식재배)	10상~10하	30일(당년 개화) - 4상~6상 직파
큰평의비름	홍자색	30~70	실생, 삽목	3중~4중 5중~6중	9하~10하	40일 - 파종1년후 개화
개미취	담자색	150~200	실생, 분주	2상~4상 (이식재배)	9중~10하	30일 - 파종1년후 개화
충꽃나무	보라색	30~60	실생, 삽목	3중~4중	9하~10하	30일 - 파종1년후 개화

### (3) 절개지 피복에 알맞는 자생화 선발 시험

도로변 절개지 토양피복용으로 뱀딸기, 좀씀바귀, 약모밀 등이 좋았으며 특히 뱀딸기의 지피면적이 가장 좋았다(표 42).

### (4) 주택공사 선발 화단 조경용 품종(30종)

복수초, 앵초, 할미꽃, 매발톱꽃, 동의나물, 금낭화, 돌단풍, 피나무, 수선화, 붓꽃, 동자꽃, 금불초, 왜성술패랭이, 용머리, 나리류, 벌개미취, 범부채, 맥문동, 창포, 기린초, 비비추, 원추리, 스크령, 꽃무릇, 섬초롱꽃, 큰평의 비름, 충꽃, 구절초, 억새, 감국

: 주택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아파트 단지 화단조경으로 주택공사가 실험 선발한 식재 가능 30품종으로 식재한다고 함

☞ 재배농가의 주 재배작목 선정에 기준이 되고 자생화 적용지역 확대에 소비증대 효과 기대

다. 자생조경지피식물 재배방법



## (1) 광환경에 따른 적정 자생 지피식물 선발

표 15. 차광정도에 따른 자생지피식물의 피복도 및 생육('99. 강원)

구 분	무차광		35% 차광		55% 차광		75% 차광	
	피복도	생육 정도	피복도	생육 정도	피복도	생육 정도	피복도	생육 정도
기린초	10y	+++z	10	++	8	+	8	+
땅채송화	29	+++	12	++	9	+	19	+
좀씀바귀	12	+++	6	++	6	++	5	+
꽃향유	17	+++	13	++	14	+	13	+
벌개미취	3	++	4	+++	3	++	4	++
섬백리향	5	++	13	+++	28	++	17	+
동자꽃	3	++	11	+++	8	+	14	+
용머리	20	+++	34	+++	36	+	24	+
큰피막이	13	+++	35	++	49	++	51	+
긴병꽃풀	18	+++	19	+++	18	+++	18	+++

y피복도:정식 3개월 후 피복면적/정식시 피복면적

z+:나쁨, ++: 보통, +++: 좋음

## (2) 내공해성 자생지피식물 선발

### \* 시험조건

- 정 식 묘 : 3월중순 분주 및 삼목후 포트에서 발근된 묘(30일 묘)
- 가스처리 : 자연광 유리챔버(185×140×185cm)
- 처리농도 : SO<sub>2</sub>, 0.1ppm, O<sub>2</sub> 0.136ppm

## (3) 뗏장육묘

뗏장육묘란 잔디의 뗏장처럼 일정규격으로 자생화를 생산하여 조



표 16. 오존, 아황산가스 단독, 복합처리에 의한 내공해성 정도

구 분	내 공 해 정 도		
	아황산가스	오 존	아황산가스+오존
용머리	++z	+++	+
은방울꽃	+	+	+
긴병꽃풀	++++	-	+
바위취	-	+	-
기린초	+++	+	++
벌개미취	+++	++++	+
송악	++	++	+++
땅채송화	++	+++	+++
큰피막이	+++	-	-
피막이	+	-	-
섬백리향	+	++	+
좀씀바귀	++++	+	+++
동자꽃	++	++	+

z-: 아주민감, +: 민감, ++:보통, +++:내성, ++++:아주내성

경용에 쉽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자 혹은 카페트 형식으로 자생화를 재배하는 방법이다.

뗏장육묘에 적합한 상토는 화종별로 좀씀바귀, 땅채송화와 섬백리향의 뗏장육묘를 위한 상토로 피트모스 60% + 부숙왕겨 30% + 지올라이트 10% 혼합상토에서 생육 및 근권형성이 가장 양호하였다.



## 제 3 장. 자생식물 품종육성

### 1. 품종육성 현황 및 전망

자생화의 품종육성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꽃을 이용한 화훼육종은 계속해서 시도되어지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UPOV) 가입 등 점차 자국내 유전자원의 보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현재 화훼류 종자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장래 지적재산권 문제가 심화될 가능성이 많으며 시급히 우리꽃 자원 그대로를 보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내 유전자원을 이용한 품종육성이 시급한 실정이다.

### 2. 용도별 자생화의 육종목표

자생화의 품종육성은 화종의 용도, 즉 분화, 절화, 화단 등에 알맞은 특성을 나타내는 형질을 중심으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관상가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개량되어야 한다.

#### 가. 분화용 품종의 육종방향

분화용 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질은 키가 작으며, 꽃수 및 측지수가 많으며, 일시 개화성으로 관상기간이 긴 것이 관상가치의 포인트가 될 것이며, 그 외 실내적응성이 뛰어나거나, 내병해충성이 강한 형질의 계통을 선발하는 것이 고품질의 상품으로서 가치가 있



다.



그림 3. 자생 동자꽃 분화용에 적합한 품종육성

#### 나. 절화용 품종의 육종방향

절화용 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질은 절화수명이 길고, 줄기가 튼튼하며, 꽃잎이 잘 떨어지지 않고, 유통시에 꽃잎이 꺾이거나, 상처나기 쉬워 품질이 떨어지지 않는 형질을 선발 목표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 다. 화단용 품종의 육종방향

화단용 품종으로서 갖추어야 할 형질은 일시 개화성이 뛰어나고, 초장 및 화색이 균일하고, 건조 및 다습에도 비교적 강한 형질이 요구된다.

### 3. 형질별 자생화의 육종목표

자생화의 품종육성은 용도에 맞게 주요한 형질을 개량하는 것인



데 그 중에서 중요한 형질은 화형, 꽃색, 향기 및 초형 등은 관상가치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자생화 역시 이러한 관상적인 측면에서 가치를 높이는데 주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가. 화 색

꽃의 색깔은 그 꽃을 사람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중요한 미적 표현요소이며, 아름다운 꽃은 그 화종의 생명인 것이다. 따라서 자생화는 많은종이 한가지 색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연상태에서의 변이종이 만들어져 기본적인 색 이외의 색이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같은 종내에서도 다양한 꽃의 색깔을 보고싶어하게 되고 육종가는 보다 다양한 화색을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나. 화 형

꽃의 크기 또한 용도별로 그 중요성이 다르지만 대형화를 선호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배수체의 육성을 통한 대형화로의 육성기술이 발전하여 이러한 대형화의 육성은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며, 또한 홑꽃 보다는 겹꽃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교배 및 염색체배가 등의 변이 창출로 이러한 품종의 육성이 많은 화종에서 점차 가능하다.

그러나 화훼는 개인적인 취향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다. 색깔은 그 꽃을 사람이 가장 먼저 인식하는 중요한 미적 표현요소이며, 아름다운 꽃은 그 화종의 생명인 것이다. 따라서 자생화는 많은종이



한가지 색으로만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연상태에서의 변이종이 만들어져 기본적인 색 이외의 색이 나타날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고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같은 종내에서도 다양한 꽃의 색깔을 보고싶어 하게되고 육종가는 보다 다양한 화색을 창출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 다. 초장 및 초형

식물체의 초장은 용도별로 분화용은 왜화성, 절화용은 고성종의 방향으로 품종을 육성하는 것이 기본이며, 특히 분화용이나 화단용에 알맞은 형질은 역시 키를 작게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측지수 또한 많이 나올수 있는 것이 꽃을 많이 피울수 있기 때문에 바람직 한 방향이다.

#### 4. 유전자원의 수집 및 변이선발

자생화의 품종육성을 위한 기초단계는 역시 변이를 창출하기 위한 유전자원의 수집이 기본이다. 자생종중에서도 지역 및 기후등에 따라 다양한 변이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자생화 농가는 이중에서 선발을 하는 것이 가장 쉽고 간편한 방법이 될 것이다. 또한 우리 자생화 이외에 외국종을 수집하여 교잡 등을 통한 변이 창출 역시 좋은 방법으로 가급적이면 속내의 여러종을 많이 수집하고 그에 알맞은 특성평가를 거친후 교잡등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 가. 유전자원 수집

자생종을 수집할 때 지역별, 형태별 표시를 해둔 후 각각의 특성을 파악한 후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외국종을 수집할 때는 원산지의 자생지와 자생지 환경까지 알아두면 참고가 될 것이며, 각 수집종이 섞이지 않도록 격리 재배하여 특성을 검정한다. 수집된 화종은 종자받아부터 생육특성까지 자세한 정보를 조사한다.

### 나. 변이종 선별

자생종을 수집시 기본종과 비교하여 다른 형질을 나타낼 때 이를 기록하고, 같은 종이라도 종자 파종을 다량으로 하면 그 중에서 다른 형질이 나타나는 개체를 선별하는 것도 중요한 육종의 일환이다. 다음은 섬초롱꽃의 변이종을 선별하여 품종화 시킨 것으로 변이종의 영양번식으로 그 품종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 제 4 장. 자생식물 응용

### 1. 압화 및 건조화

가. 누름꽃(압화, pressed flower): 식물체의 꽃이나 잎, 줄기를 물리적 방법 또는 약품 처리를 하는 등의 인공적 기술로 누름 건조시킨 후 회화적인 느낌을 강조하여 평면적으로 구성한 조형예술이다.



- 디자인 측면: 다른 꽃장식물에 비해 쉽게 배울 수 있으면서도 깊이 있는 창작의 세계까지 몰입할 수 있다.

- 이용측면: 액자, 핸드백, 쟁반, 귀걸이 등 각종 생활용품이나 장신구 등에 폭넓게 이용됨으로써 선물용이나 자가용으로 사용하는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나. 건조화(Dried flower): 말린 꽃 그 자체를 즐기거나 장식할 목적으로 꽃, 열매, 줄기, 뿌리 등 식물체 각 부위를 말리거나 표백, 착색 등의 가공처리를 한 후 말린 것이다.

- 장점: 소재가 다양하고 이용에 즐거움이 있음

- 단점: 고온 다습한 조건에서는 부패하기 쉬운 단점이 있다.

## 2. 관광농원

○ 최근 임대농원, 장소제공농원, 종합관광농원, 아동자연학습농원, 청소년 심신수련농원, 휴식농원 등을 포함한 관광농업 형태로 발전

○ 운영방안: 전국 자생식물 심포지움, 자생식물 이벤트 행사, 홀라워 마케팅, 꽃선물의 개발, 가정원예용품 개발, 자생식물 교실의 개최

## 3. 분경 및 작품제작

○ 자생식물을 이용한 분경, 분화 작품제작 판매

## 4. 기 타

벽면녹화, 수질정화, 원예치료 등



Hong, J.K., K.K. Lee, J.Y. Ko, M.H. Ahn, D.K. Hong, N.Y. Um, H.S. Nho, C.Y. Yu, and K.C. Son. 1999. Studies on the development of techniques for commercialization of native flowers.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 Final research report.

Ko, J.Y. and K.K. Lee. 1996. Effect of plant growth regulators on growth and flowering of potted *Lychnis cognata*, *Aster koraiensis* and *Campanula takesimana*. RDA. J. Agri. Sci. 38(1):627-632.

Ko, J.Y., H.S. Noh, N.Y. Um, K.K. Park, and Y.H. Choi. 1999. Seminar on commercial technique development of native flower. Kangwon A.R.E.S.

Ko, J.Y., N.Y. Um, D.G. Hong, M.H. An, and K.K. Lee. 1996. Seed germination and the photoperiods response of *Lychnis wilfordii*. Horticulture Abstract 14(2):548-547.

Noh, H.S. 2001. Sod production and adaptation to light, O<sub>3</sub> and SO<sub>2</sub> of several native ground cover plants. PhD Diss., Univ. of Seoul.

박윤점, 허복구, 강영규. 2001. 건조화 및 압화의 가공산업 현황과 전망. 원예과학기술지. 19(2):262-269.

송정섭, 노승문, 서정근. 2001. 세계의 신화훼 개발현황과 자생화 수요 전망. 원예과학기술지. 19(2):253-261.



## 自生植物을 이용한 加工商品化 사례



박 광 옥  
태백농업협동조합장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이론을 주장하려는 것보다 농촌 현장에서 농업인과 같이 호흡하면서 느끼고 생각한 내용을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급변하는 고속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는 전쟁 아닌 전쟁을 치루는 것 같습니다. 이는 경쟁사회에서 오는 필연적 大難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 농업·농촌은 WTO협정에 의한 자유무역의 진전에 따라 열악한 여건 속에서 전쟁을 치른 패전지를 연상할 정도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논농사로부터 모든 농산물이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서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라는 말조차 農者는 亡家之本이라고 칭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약 7~8년전 소형 농기구로 농사를 경작할 때만 해도 한 마을에서 쌀 100가마 정도 경작하면 정말 큰 부자였습니다. 상머슴 1명, 중머슴 2명을 두고 자녀들도 고등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지



만 지금은 도시의 식당 아주머니 수입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산지 쌀값을 가마당 15만원 정도라고 가정하면 100가마라면 천오백만원의 수입이고 그중 농자재비, 작업비 등 농비를 빼고 나면 7~8백만원의 소득이 나며, 이는 월 6~7십만원에 불과한 소득이니, 논농사 1만평을 경작하는 농업인이 이런 보잘것 없는 수입 밖에 올리지 못한다면 그 누가 농사를 지을 것이며 우리 나라 농촌은 어디로 갈 것입니까?

과거에는 농촌의 소, 돼지, 닭 등 가축 울음소리가 농촌의 富를 키워 주었는데, 지금의 농촌에서는 대형 농기계 소리가 나면서도 도리어 소득이 감소하여 희망이 없는 패전지와 같으니 農者는 亡家之本이라 밖에 무엇이랴 칭할 것인가?

우리 나라 커피숍에 가면 커피 한 잔에 4~5천원을 받는데 쌀 한 가마니가 커피 서른잔 값 밖에 안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까지 쌀이 천대 받는 때가 올 줄이야 그 누가 알았겠습니까?

지난 해 가을 한 농업분야 모임에 참석했더니 지도자 한 분이 우리 나라 농촌이 일 년 후에는 방방곡곡에 통곡소리가 진동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와서 보니 아니나 다를까 꼭 들어맞는 말씀이더군요. 요즈음 쌀값 문제로 전국 농촌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농촌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농촌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것 같으니 어찌 이 나라 농촌에 희망이 있다고 말하겠습니까?

쌀값이 내려가면 70%는 정부가 보장해 준다고 했으나 이것 역시 별 도움이 되지 않아 연일 농민들은 항의농성으로 야단들입니다.

농촌이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왜 자생식물을 찾아서 살려야 하는



가?

첫째, 진흥청이나 학계에 의하면 세계적으로는 3~4천 여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는 4~5백여 종이 사람에게 이로운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식물을 찾아서 연구 개발하여 소득을 찾아야 합니다. 모든 자연식물은 산과 농촌 들녘에 많이 분포되어 자생하기에 이것을 이용, 농촌 소득으로 찾아야만 합니다. 농촌에서는 자연식물을 재배에서 소득, 가공에서 소득, 또한 유통에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이 어려운 난관에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 농촌은 매년 5~6월경 까지도 작부체계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감자의 예를 들어보면 가공공장은 90% 이상이 도시에 있고 생감자 100차(車)가 내려가면 가공 후의 가공품은 10~20대만이 가공되고 나머지는 전부 폐기물로 버려져야 합니다. 폐기물로 버리자면 차당 10~20만원씩 비용이 추가로 더 들어야 합니다. 이 공장이 산지에 유치된다면 어려운 농촌에 고용창출이 이루어져 농가소득이 들어오고 폐기물은 퇴비로 밭에다 돌려줄 수 있고 80~90여대의 운임도 절약되어 1거 4득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둘째, 食文化의 변화에 따라가야겠다고 하겠습니다.

옛날처럼 영양소가 적은 식사이기에 배를 식량으로만 채울 때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연식물 속의 우수 약재와 같은 영양식품을 찾아서 혼식을 해야 합니다. 적게 먹어도 더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식품을 찾는 데는 자연식물이라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밥보다는 육식 등 고칼로리 음식을 많이 섭취함으로 성인병이 갈수록 많이 발생했고 社會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라는 실화에 의하면 어떤



간암 3기 환자가 육개월이면 죽는다고 했던 의사 진단에도 그는 즉시 자연식물을 주식으로 매일 산에서 산야초, 목피, 인체에 유익한 벌레 등으로 연명, 2년만에 사형선고를 받았던 환자가 살아났다는 실화도 있습니다.

학계 말씀에 의하면 자생식물과 혼합해서 식문화의 변화가 오면 적게 먹고도 더 오래 산다. 평균수명이 2020년에는 100세, 2030년에는 130세라는 통계가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해 황기와 쌀과의 혼합한 식품이 곧 나올 것이라고 예언을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1개월전 정선지역 52세의 某농민이 황기 엑기스와 두부를 혼합하여 개발한 식품을 서울에서 시판하여 이제는 없어서 못 판다고 했습니다. 앞으로는 곧 이렇게 갈 것이고 당연히 오래 살자면 이대로 가야합니다.

셋째, 세계 인구는 자꾸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30년경이면 인구가 80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쌀이 대추처럼 커지는 것은 어렵고 우리 나라는 다행이 남아 돌지만 한 해만 대흉이라면 이도 또한 걱정입니다. 듣는 바로는 아프리카에는 1일 기천명이 굶어 죽어간다는 말이 들립니다. 지구촌의 대체식품을 속히 찾지 않으면 쌀부족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특히나 우리 나라 자연식품은 사계절이 뚜렷하기에 함량도 우수하다고 합니다. 하루 빨리 학계에서 개발해서 세계에서 가장 앞서는 명품으로 개발해야 하겠습니다.

넷째, 자연식물 속에는 꽃 종류도 상당히 있으므로 비록 식품류(食品類)가 아니더라도 보고 즐길 수 있는 야생화의 많은 개발과 생산으로 농가의 많은 소득으로도 연결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각 시군 지역마다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근로자들의 여



가 활용 유치를 위한 한 방안으로 자생식물 테마공원 등의 조성으로 다른 관광명소와 연계하여 도시 근로자들이 시골에서 머물며 자생식물을 가꾸며 보고 즐기며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금자리 조성도 되어야 합니다.

이 사업의 발전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은 농림부와 진흥청을 중심으로 하여 농업계 연구단체에서 심여를 기울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농민은 자생식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농업기술센터의 지도를 통하여 재배가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비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자연식물마다 개성과 특성을 잘 파악하여 농가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사업의 실패를 없애고 곧 바로 농가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WTO의 장벽에 쫓기고 있는 우리의 농촌은 하루속히 자생식물을 이용한 가공상품화로 새로운 농업소득의 창출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여섯번째, 3~4년 전 어느 교수님께서 우라 나라도 곧 食水難이 올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열차나 여행을 다녀 보면 모두 생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생식물을 잘 살리고 보존함이 물을 살리는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생식물은 정말 깨끗하고 청결한 곳에서 잘 자라고 우리 인간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환경에 가장 우선하는 식물입니다.

지난번 농어촌 방송시간에 자연산 식물 명품 지역명이 기록되고



등재된 지도까지 개발해야 한다는 어느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척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사업이 발전하려면 정부에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앞장서 주어야 함은 물론 아낌없는 지원이 꼭 필요하며, 거국적 농업 중농 정책으로 이끌어야 하겠습니다.

### ●태백농협의 약초가공공장 운영사례

우리 농협이 8년전 1차 건조 가공공장을 시작하게 된 이유는 평소 농업인들이 파종에서부터 收穫時期가 경우에 따라 3,4,5년에 걸쳐 생산되는 약초도 있지만 오랜 기간동안 파종, 생산, 수확까지 많은 영농비와 노력을 들여서도 건재약초 소비자 가격의 50%밖에 받지 못하고 50%는 건조와 일부가공비 외에는 전부 상인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고 가슴 아프게 생각해 오던 중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993년도에 정부 보조금의 지원을 받아 1차 가공사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생각으로는 농업인이 농사를 지어 1차 가공공장에 가져오면 세척 건조를 하여 포장, 진열하여 두었다가 전국 중상인에게 1개월에 1번씩 경매로 판매하면 50%에 가까운 중간마진 중 농협은 가공비만 받고 전부 농가 소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 역시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 때 이미 중국산 수입품이 들어와 가격이 불안정하여 농가들의 참여가 매우 부진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1995년도에는 원료 약초 소모가 많이 되는 2차 가공사업으로 우수한 고랭지의 청정지역 약초를 원료로 하여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유치하여 농업인



에게 제 값을 받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사업을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러서는 30여종의 우수 건강보조식품과 소포장 건조 한약재 50여종을 출시하여 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약 40억 정도의 매출에 150톤~200톤의 원료 한약초를 소모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약초가격의 불안정으로 농협은 가격변동의 위험 때문에 과감히 계약재배를 할 수 없고, 농가는 농협과 정부를 믿지 못하고 참여조차 꺼리는 것은 무분별한 수입을 방치한 정부의 잘못이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 ◆태백농협 약초가공공장 현황◆

(2002. 9. 30)

#### 1. 농협현황

- 공장명 : 태백농협 약초가공공장
- 공장설립연도 : 1994년도
- 조합장 : 박 광 옥
- 종업원수 및 조직도

(단위 :명)

공장장 (상무)	과장 대리	기능직	계약직	영 업 지원직	직원계	생산보조원			총원
						남	여	소계	
1	3	2	2	15	23	1	7	8	31



## 2. 고정투자 현황

(단위 : 평, 점, 백만원)

구분	업무용 토지	업무용 건물						업무용 동산	합계
		생산 공장	사무 실	저온 창고	일반 창고	기타	소계		
규모	3,977	250	50			380	680	30	4,687
금액	226	437	87			667	1,191	1,035	2,452

## 3. 자금조달 현황

(단위 : 백만원)

보 조 금				정부용자	중앙회용자	자체자금	합계
국 비	도 비	시 비	소 계				
400	200	76	676	286	750	742	2,454

## 4. 연도별 매출 및 손익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9월말	2002 연말 예상
매출액	576	857	738	1,415	2,334	2,500	3,286	2,771	3,613
손 익	78	197	192	42	94	40	166	398	165

어떤 이들은 외국산 한약이 품질이 우수하다고 하지만 옛날에 전



쟁 중 병이 난 병사들에게 갖은 방법으로 치료해도 병이 낫지 않자 각자 고향의 흙을 파 오게 하여 베고 자기도 하고 흙주머니를 만들어 지니게 하여 훈련을 하다보니 언제 나았는지 모르게 완치되었다는 고사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身土不二입니다. 사람은 땅과 떨어질 수 없으며, 우리나라 사람은 우리 땅에서 생산되는 음식을 먹어야 되듯 약재도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한약재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때 저희 농협에서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방향을 바꾸어 전국에서도 가장 우수한 식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공장으로 발전하려고 합니다.

이미 연구 완료된 "산마늘" 하나만 예를 들면 학계에서 연구결과 향암에 최고, 중풍환자에 그 효능이 우수하다고 한다면 앞으로 산마늘 김치, 산마늘 장아찌, 휴대용 산마늘 분말가루 등 다양하게 제품을 개발할 수 있으며, "넙치" 또한 향암에도 좋다고 하지만 성인병에도 그 효능이 인정되어 연구계획이고 "누룩취"는 옛날부터 소화에는 1등 식품이라고 하였기에 역시 연구개발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정말 많은 건강식품이 자생식물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되며, 자생식물 잠재력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우리 태백에서는 학계에서 개발 연구되는 대로 보충연구를 거듭해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 제일가는 공장으로 발전시켜 선진국으로 가는 우리 나라 국민이 오래 건강하게 잘 살려면 필연 자생식물에서 국민건강을 찾아야 한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농업정책의 방향을 바꿔 주셔야 하며 여기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함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는 자생식물을 이용한 건강식품 등 특산품을 개발해 왔지만, 앞으로는 제품의 판매에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여야겠으며 대외적으로는 대도시 농협유통 및 대형 유통점의 판매망 확대 및 일본 내지 선진지 시장을 겨냥한 수출을 통한 농업경쟁력의 제고와 대내적으로는 태백시의 장기비전인 고원관광도시화 사업과 연계하여 태백시내 교통의 중심지인 태백역 광장 앞에 특산품백화점을 약 20~30억원의 태백시 예산반영으로 추진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태백은 석탄산업합리화로 인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폐광지에 따른 특수개발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카지노와 서학레저단지, 스키장, 약초테마파크, 경견장, 오토레이스장과 태백을 찾는 많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더욱 판매사업의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여기에는 태백지역의 특산품은 물론 강원도내에서 생산되는 특산품도 함께 판매하므로서 자생식물을 이용한 특산품의 지속적인 개발이 가능하며 더욱 제품의 질 향상과 지생식물 재배 참여 농가의 확대를 위하여 연차별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지도소에서는 시설 및 재배기술을 전문지도 해주시고 우리 농협은 참여 농가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한 정책농자금(이자차액보전)을 지원함으로서 매년 과잉 생산되는 고랭지 채소 재배면적을 줄이고 연작에 의한 피해예방과 대체작목에 일조를 기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중농정책으로 다루어야 할 몇 가지를 열거해 보면

①자연식물이 우리 인체에 어떠한 이로움을 주는지 식물별로 연구하여 구체적이고 체계화된 전문성을 요구함으로써 오랜 기간의



소요와 연구비가 많이 들어야 하기에 당연 정부자금 지원을 과감히 해야 한다.

②우리에게 이로움을 주는 자연식물을 대량 생산 가능토록 유도하고 계약재배를 통하여 완전 정착화 될 때까지 생산비 보조지원과 생산량의 완전 수매보장 등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며, 곁들여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연식물 가공사업 확대를 위한 원활한 자금지원(보조 및 융자)을 통하여 많은 농업인 내지 농민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되어야 하겠습니다.

③전국의 농업기술센터 및 농촌지도 기능업소에서는 많은 자생식물 재배 및 기술지도를 해서 농촌살리기 운동에 총력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겠습니다.

전문기관 및 학계에서 연구된 자생식물을 이용하여 우리 농협에서 가공상품화를 위한 재 연구검토를 통하여 기능성 제품 등 새롭고 다양한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 생산하여 타기업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에게 건강을!

농민에게 부자를!

만들어 주는데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고원농업에 관한 연구

이 성 열  
강원도농업기술원 고원농업시험장장

고원농업시험장은 태백시에서 동남쪽으로 8km 지점, 35번 국도 변 머릿골에 해발 750m에 위치하고 있으며, 행정상 주소는 강원도 태백시 철암동 96-1번지이다.

설립 목적은 90년대초부터 태백권 지역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 따라 농업도 대체산업의 일환으로 육성코자 1995년부터 추진하여 1999년 11월에 청사준공과 아울러 2000년부터 농사시험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기구는 고원작목연구와 고랭지 약초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으며, 연구인력은 농업연구직 5명과 기능직 2명 등 총인원 7명이다. 연구시설로는 토지가 7.3ha이고 시설은 청사, 온실 등 11동 1,259평이며, 장비는 실험기기, 농기계 등 144종의 최첨단 기기를 구비하고 있다.

본 시험장의 주요기능 및 임무는 고랭지 채소의 안정 생산 기술



개발, 고원작물의 육종·재배기술 개발 및 신 소득화 작물 연구, 고원약초의 품종육성 및 고품질 생산기술 개발, 그리고 우량 약초 및 종묘 생산 조기보급이다.

우리 시험장에서는 고원지대의 특이 환경 및 청정 이미지를 살린 지역 특화 우위 작목 집중개발을 목표로 고원지대 적응 신소득 작목 개발과 우량 약초 재배기술 개발 및 품종 육성을 위하여 2000년부터 지금까지 3년간 시험사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고랭지 채소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하여 고랭지 배추 무사마귀병 방제에 관한 연구로 무사마귀병 저항성 품종 선발, 약제처리 효과를 규명하였고,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목으로는 생산비가 적게 드는 인진쑥과 단경기 생산이 가능한 여름 시금치 품종선발 및 재배작형과 박과류의 재배 가능성 검토, 저온성 산채류의 재배기술 개발을 수행하였다.

약초 연구로는 당귀의 재배 양식별 수량성 검토와 품종선발 및 육성, 다년근 황기 재배기술 연구와 특히 감초의 국내재배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였으며 고본, 천궁, 지황, 마가목 등과 그 외에 고원 유전자원 85종을 수집하여 특성 검정한 결과, 허브류 4종과 약초류 13종을 유용 유전자원으로 선발하여 작물화 재배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주요 연구성과로는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기술 개발, 고원지대 신소득 작목 개발, 약용작물 재배기술 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고 12개 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시책건의(1건)와 영농활용자료(9건)로 반영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고랭지 채소 안정 생산 기술 개발 연



구로는 고랭지 채소 무사마귀병 저항성 품종으로 배추 CR 그린 등 7품종을, 무는 청옥무 등 12품종을 선발하였으며, 석회+아족시스트로빈 수화제 처리를 종합방제의 일환으로 추천하였다.

고랭지 무, 배추 대체작목으로는 인진쑥을 경사전에 재배시 유경지의 지력증진 및 토양유실을 방지하고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작물로 가능하였고, 고랭지 무, 배추에 대한 비료시용은 채소재배 농가



가 검정 시비량보다 2~3배가 많은 비료를 과다 시용함에 따라 이를 재설정 한 결과, 지대에 따라 다른 반응을 보여 해발 600~800m에서 무는 검정시비량의 1.3배, 배추는 1.2배, 해발 1,000m이상에서는 무, 배추 모두 검정시비량의 1.5배 정도를 시비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원재대 신소득 작목개발 연구로 고랭지 여름 시금치는 사로니카, 타이타닉 등 3품종을 선발하였고, 노지재배시 파종기에 따른 수량성은 6월 30일 파종은 광채, 폴카, 7월 5일은 타이탄, 터보, 7월 10일은 타이탄, 타이타닉, 극광, 그린벨, 폴카가 높았으며, 하우스 재배시 파종기에 따른 수량성은 7월 5일 파종은 터보, 타이틀, 폴카, 광채, 사로니카, 7월 10일은 터보, 극광, 위나, 타이틀, 7월 15일은 타이타닉, 오리엔탈킹, 진한, 광채, 7월 20일은 극광이 높았다.

고랭지 박과류로서는 수박은 엄지(소과형)와 달고나(대과종)를, 메론은 얼스김(네트)과 황금(무네트)을 선발하였으나 여름철 온도저하로 당도가 낮고 생육이 다소 저조하였으며, 또한 저온성 산채인 산마늘과 누룩치의 재배기술을 개발하고자 시험을 수행 중에 있다.

약용작물 재배기술 개발 연구로서는 장뇌 재배지 환경평가와 당귀 트레이묘 이식 재배시 노지육묘(1년근)에 비하여 수량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면서도 추대가 되지 않았으며, 트레이육묘 기간도 90일과 70일묘의 수량상 통계적 유의차가 없었으나, 생산비와 관리면에서는 70일묘가 유리하였다. 또한 참당귀 우량품종 육성시험으로 도내 8계통을 수집하여 우량개체를 선발한 결과, 인제(기린), 삼척(하장) 수집동이 추대가 전혀 되지 않아 계통유지 및 선발가치가 큰 것으로 인정되었다. 황기 다년근 안정생산을 위하여 황기 뿌리썩음병 및 종자 소독 약제 선발과, 화학비료 시용수준 설정, 토양개량제 선발, 경운심도 및 유기물 시용방법 구명 등의 시험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새로운 소득작목인 감초의 국내 재배 기술을 연



구한 결과, 적정토성은 사토에서 생육이 우수하였으며, 파종적기로는 5월 상순으로 근장이 36.7cm, 생근중이 20.8g이었다. 감초 육묘시 파종간격은 4×4cm보다 8×8cm에서 휴고는 30cm에서 생육이 양호하였다.

마가목 재배기술 연구로는 대량번식 기술 개발로 종자 발아율 제고 시험결과, 생장조절제 BA 200ppm처리시 79.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묘상토별 생육상황은 시판상토+세사 처리구가 초장이 7.1cm, 엽장이 6.8cm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묘시 시비량 설정과 전정효과를 검토 중에 있다.

고본 재배기술 연구로는 트레이육묘시 162공이 생육 및 수량이 높았으며, 육묘기간은 80일묘에서 근중이 23g(50일묘 13.5g)으로 묘소질이 양호하였으며, 육묘상토로는 시판상토가 우수하여 계속 검토하고 있다.

연구기반 조성으로서는 시험포장의 비옥도 증진을 위한 돌고르기 작업, 객토, 퇴비 살포와 육묘시설 하우스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원활한 여구사업을 위해 기상관측 장치 설치와 온·습도 조절이 가능한 유리온실이 완공되어 종묘생산 및 주년재배를 위한 시험연구사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도에는 고원지대 신소득 작목개발 연구로, 고원지대 여름시금치 재배작형 개발 및 유용 자생식물의 산업화 연구, 산채 재배기술 개발로는 누룩치 및 산마늘 재배법 확립, 약용작물은 당귀, 황기, 감초, 고본, 마가목, 백출 등의 고품질 생산을 위한 품종 육종 및 재배기술 개발 연구에 역점을 두고 시험연구사업에 매진할 계획이다.



『자생화 전문지도연구회 발표자료』  
**자생나리의 생태연구 및 번식기술**



우 성 용  
태백시농업기술센터소장

## I. 머릿말

나리는 백합(百合)을 우리말로 표현한 이름이다. 일반적으로『나리』하면 우리 자생나리만을 연상하고 백합은 흰 나리를 가르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백합이라는 이름은 식량이 되는 구근을 중심으로 해서 붙여진 것으로 약 1백여개의 인편(鱗片)이 합쳐져 하나의 구근을 이루기 때문에 일백 百자와 합칠 습자를 사용하여 百合이라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리들은 나리를 식량자원이나 약용보다는 꽃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한다. 옛날 사람들은 꽃의 감상이 전에 식량해결이 우선시 되었기 때문에 꽃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나리류는 전 세계적으로 13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이 중 71종이 아시아에, 22종이 유럽 및 유러시아에, 그 밖에 북미대륙에 37종이 분포되어 있고 변종을 합치면 모두 600여종에 달하고 원예품종은 4,000종을 헤아릴 정도로 많다.

우리나라에 자생되는 나리류의 종별 분포지를 보면 전국적으로 분포하는 종에는 참나리, 하늘나리 등이 있는데 이중 참나리의 출현 반도가 가장 높다. 나머지 종들은 대부분 일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또는 광역형(廣域形)이되 국한적(局限的)으로 분포되어 있다. 분포지를 보았을 때 땅나리는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지역에, 솔나리는 강원도 이북의 심산에, 하늘나리는 중부지방에, 섬말나리는 울릉도의 성인봉을 중심으로 한 계곡, 산등성이에 대군락을 이루며 자생하고 있다.

자생지의 환경과 자생종의 분포와의 관계를 보면 대체로 빛이 잘 드는 산지의 비탈면이나 계곡의 양지쪽 혹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양지성 나리로는 참나리, 털중나리, 땅나리, 하늘나리 등이 있다. 또 햇볕이 잘들어 오지 않는 산지의 잡목림사이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음지성 나리로는 말나리, 섬말나리, 하늘말나리 등 잎이 윤생(輪生)으로 착생하는 종류들이다.

## II. 자생나리의 분포지역 및 생육개화 특성

### 1. 자생나리 분포지역 및 자생지 환경

- 섬말나리 : 경북 - 울릉도, 해발 300~900m, 낙엽 및 상록성 활



엽수목의 우거진 숲속, 배수 및 보수력이 있는 토양

- 하늘말나리 : 강원 - 태백산, 함백산을 비롯한 해발 100~1,000m 되는 산기슭, 숲속인 자연광의 60~80% 차광된 곳, 배수 및 보수력이 있는 토양

- 말나리 : 강원 - 태백산, 함백산, 설악산, 치악산, 오대산 등. 해발 800m 이상의 낙엽 활엽수목이 우거지고 자연광의 70~90% 차광된 곳, 배수 및 보수력이 있는 토양

- 하늘나리 : 강원 - 태백, 정선, 횡성, 평창, 영월, 인제, 춘성 등. 해발 100~800m의 배수 잘되고 햇빛이 잘드는 비탈면이나 계곡의 양지 자생

- 땅나리 : 경기 - 용인, 인천, 여주. 강원 - 춘천. 충북 - 월악산의 하단. 제주 - 한라산, 애월읍 등. 해발 200~500m의 초본성 식물이 있는 산기슭 또는 배수좋은 사질토양에 자생

- 털중나리 : 한국에만 자생, 전국에 분포, 해발 100~1,000m 되는 산기슭 또는 도로주변의 양지쪽, 토양수분이 적고 초본성 식물이 주가 되는 곳

- 솔나리 : 강원 - 태백산, 함백산, 백암산, 설악산, 대성산 등 해발 800m 되는 고산지 산기슭의 그늘지고 습한 지역

- 참나리 : 전국(섬포함) 해발 400m 이하의 산야 및 해안가 양지 바른 곳.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자생

- 중나리 : 강원 - 태백, 용평, 대관령, 화천, 도암, 춘천, 횡성, 둔내, 평창, 장평 등. 해발 200~1,400m 인 양지바른 냇가 주변, 배수 잘 되는 사질토양.

- 날개하늘나리 : 북한 - 백두산. 강원도 - 태백산, 함백산, 백암



산, 대암산 등. 해발 800~1,500m 되는 습한 지역

## 2. 자생나리의 생육특성

종 명	초장(cm)	엽 형	구근모양	구직경(cm)	인편의 환절
섬 말 나 리	90~150	피침형, 윤생엽(2~4층)	관형, 아구형	5~7	가끔 유 1개의 환절
하늘말나리	70~140	피침형, 윤생엽(1~2층)	산재형	2~7	1~2개의 환절
말나리	60~110	피침형, 윤생엽(1층)	아구형	2~3	1~3개의 환절
하 늘 나 리	50~80	선상, 피침형	광란형, 아구형	1~3	없음
땅 나 리	70~120	선 형	아 구 형	2~4	없음
털 중 나 리	40~100	선 형	타 원 형	2~4	없음
솔 나 리	30~80	침 형	타 원 형	2~3	없음
참 나 리	90~180	피 침 형	광란형(편구)	3~7	없음
중 나 리	60~190	피 침 형	아구형, 포복형	2~6	없음
날개하늘나리	40~50	피 침 형	광란형(편구)	2~4	없음

## 3. 자생나리의 개화특성

종 명	개화기	꽃수	개화방향	화색	반점색	꽃의 직경
섬 말 나 리	5중~6하	2~15	약간하향	황색~등황색	갈 색	6
하늘말나리	7상~7하	1~6	상 향	주 황 색	갈 색	5.5
말 나 리	7하~8중	1~5	약간하향	주 황 색	갈 색	5.6
하 늘 나 리	6상~7상	1~6	상 향	농 홍 색	암 갈 색	5.5
땅 나 리	7중~8중	5~10	하 향	중홍~ 진홍	자색약간	3.3
털 중 나 리	6상~7중	1~6	측 향	주 홍 색	자 색	5.7
솔 나 리	7중~8상	1~3	측 향	홍 자 색	자색약간	7~8
참 나 리	7중~8하	5~20	하 향	등황색~ 홍분홍	암 갈 색	11
중 나 리	7상~8상	4~15	하 향	등황생~ 홍분홍	암 갈 색	11
날개하늘나리	7상~7중	3~8	상 향	주황~ 주홍	자 색	0



### III. 번 식

#### 1. 실생번식

대량번식이나 육종을 목적으로 할 때 실생번식을 하고 있으나 일부 품종은 자가불화성으로 실생번식이 어려운 점도 있다.

실생번식에 있어서 종자발아가 지상발아형과 지하발아형으로 구분되며 잎과 뿌리가 동시에 자라고 잎 끝에 종피를 달고 지상부에 출하로 지상발아형은 파종후 2주안에 발아하고 이듬해 줄기가 나올수 있고 여름에 일부 개화가 가능하다

지하발아형인 말나리 계통 품종과 날개하늘나리 품종은 배가 하향으로 자라다가 3~7mm 크기의 구근형성 후 종피를 땅에 두고 잎이 출현하고 개화는 2년째 봄에 개화가 가능하다.

그러나 발아촉진법을 이용하여 채종후 벤레이트 1,000배액에 30분 침적 처리한 종자를 버미큐라이트에 3:1로 혼합하여 28~30℃에서 2개월, 20~17℃에서 1개월, 5℃에서 2개월 처리후 외기온도가 20℃ 내외인 4월 경에 파종하며 15일 후 싹이 올라오고 년내 개화 가능한 방법도 있다.

#### 2. 자구 및 주아번식

나리에 지하부의 줄기에 생존하는 자구(목자)와 지상부 엽액에 생기로 주아가 달리는데 이를 번식용으로 사용되며 자구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고 보통 2~10개가 생성된다. 자구는 깊이 심으면



자구수가 많으나 작고 얇게 심으면 자구수는 적으나 크고 모구는 작아지거나 소멸된다. 주아는 참나리, 털중나리, 솔나리 등으로 생성되며 주아형성시기는 보통 개화기 전후이고 수량은 품종에 따라 다르나 100개 이상 착생하는 품종도 있다. 8월이전에 생산한 주아를 5℃에서 55일 저장했다가 10~13℃에 관리하여 인편옆이 생기게 한 후 개화유지시켜 7개월 이내에 개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 3. 인편 번식 방법

#### 가. 직파법

대량번식을 하고자 할 때 인편을 채취하여 포장에 직접심는 방법으로, 8월중 하순~9월초에 인편을 정식하며 정식깊이는 인편의 3배 두께로 복토하고 너무 얇게 심으면 인편이 지상으로 노출되거나 자구형성 후 인편옆이 형성되어 자구비대가 불량하거나 풍해나 건조해 피해가 우려되며 너무 깊이 심으면 과습으로 부패 우려

#### 나. 친자인편법

떼어낸 인편과 남은 구근을 함께 심어 병에 걸린 줄기는 인편까지 전체 제거하는 병의 조기진단에 효과적이나 직파법에 비하여 번거롭다

#### 다. 인편처리법

인편을 채취하여 자구를 형성시킨후 저온처리하여 포장에 심는



방법 월동기에 이용하므로 효과적으로 재배 기간을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편처리법은 삽상용토를 모래, 질석, 피피모스, 톱밥, 펄라이트, 부숙왕겨 등 다양한 재료로 하되 저장중 인편이 부패되지 않은 건전한 재료로 사용 인편과 용토를 1:3으로 섞어 저장용 상자에 층층이 담은 뒤 23℃에서 자구형성을 위해 8주 17℃에서 자구비대를 위해 4주, 4℃에서 저온처리를 위해 8주정도 관리후 정식

#### 4. 자생나리 교배방법

자생나리 품종간 교잡이 잘되는 것끼리 교잡계획을 세우고 꽃가루는 개화직전에 받아서 미리 준비한다.

모본 꽃봉우리가 물들고 열개 전에 꽃잎의 일부와 수술을 제거하고 알미늄 호일로 암술머리를 봉하여 자가수분 및 다른 꽃가루가 날라들지 않도록 하고 교배는 꽃핀 후 2~3일 만에 알미늄 호일을 벗기고 미리 준비했던 화분을 붓으로 주두에 발라준 후 알미늄 호일을 다시 씌워서 다른 꽃가루 침입을 방지한다.

교배후 3~4일이면 화분관이 발아하고 화주내를 통과하여 자방내로 들어가 수정이 완료 된다. 교잡된 꼬투리는 비대하여 성숙하나 교잡되지 않은 것은 조기에 갈변되어 말라버린다. 꼬투가 황변하여 터지기 전에 따서 응달에 말려 씨앗을 선별하여 사용한다.

이외에 화주절단 수분법으로 하여 배배양으로 육종하기도 하나 일반화 되지 않고 있다.



- 자생나리 중간 교잡결과 -

♀ \ ♂	하늘 나리	날개하 늘나리	털중 나리	땅나리	중나리	참나리	황금 참나리	큰솔 나리	섬말 나리	솔나리
하늘나리		△	○	○	○			○	△	
날개하늘나리	○		○	(○)	○	×	○	○	×	○
털중 나리	○	○						○		
솔 나 리										
땅 나 리	○	△	○		△		×	×		
중 나 리	○	○	○	△				○	×	×
참 나 리	△	○	○	×	△	○		○	×	×
황금참나리	(○)	○		(○)	(○)					
큰솔 나리	○	○	○		△				○	○
섬말 나리	○	△	○		△			○		

× : 교잡분리      △ : 미숙

주주교배(1년) → 종자파종육묘(1년) → 구근양성(1년) → 선별

- 한국의 자생나리의 육종에 이용시 종류별 장단점 -

종 명	장 점	단 점
참 나 리	바이러스 저항성, 생육왕성, 번식강	꽃잎이 뒤로 젖힘, 많은 반점, 긴 소화경
땅 나 리	화색선명, 잎달림 양호, 교배친화성 강	꽃잎이 뒤로 말림, 꽃대약함, 하향개화
하늘 나리	조기개화, 상향개화, 화색선명	초세약, 반점
털중 나리	건조에 강함	저광에 약함, 측하향개화
솔 나 리	화색다양	짧은 초장
중 나 리	생육왕성	하향개화, 만생종, 많은 반점
날개하늘나리	조생, 상향개화	많은 반점
섬말 나리	조생, 촉성용이, 꽃봉오리양호	많은 반점, 측향개화
하늘말나리	상향개화, 화색다양	반점, 꽃대 가늌트
말 나 리	저광에 강함	초세약, 측하향 개화



#### IV. 결 론

우리 나라는 매우 중요한 나리 원산지 중의 한 곳으로 전국적으로 10여종 7변종의 자생나리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은 모두 유색계로 꽃의 모양이나 꽃색이 아름다워 관상가치가 높기 때문에 자생종 그 자체로도 화훼식물로 재배될 수 있다. 또한 내병성, 내한성 등이 뛰어난 것이 많아 새로운 품종의 육성 소재로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고 일본이나 네덜란드 등 화훼 선진국에서는 한국의 자생나리를 수집하여 나리 신품종을 육성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좋은 유전자원을 두고도 다른 나라에서 역수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육성종이 아닌 우리 나리 종들 중에서도 날개하늘나리나 하늘말나리, 말나리 등의 품종은 절화용이나 분화용으로, 참나리, 털중나리, 땅나리로 화단 및 가로화단용으로, 솔나리나 하늘나리 등은 군식 재배시 정원용으로 우수한 품종들로 생각되며, 좀더 나아가 이들 종들간 교잡육성으로 더욱 좋은 화종을 만들어 국내는 물론 외국으로 수출하여 우리 야생나리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참 고 문 헌】

1. 한국의 자원식물. 김태정.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2. 자생식물학. 이정식외 1. 도서출판. 1997
3. 자원식물학. 임웅규외 5. 도서출판. 1997
4. 강원 토종식물. 강원일보출판사. 1998
5. 우리가 알아야 할 꽃 100가지. 김태정. 현암사. 1997
6. 농촌진흥청기술자료집. 농촌진흥청.
7. 한국의 자생식물. 농촌진흥청. 1990
8. 나리재배의 이론과 실제. 허복구외 3. KFTI출판부. 1994



## 식물 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개발



장성일(張星日)  
강원일보 기자

태백산(太白山)과 함백산(咸白山) 백병산(白屏山)등 흰백(白)자 돌림의 산이 많아 배달겨레(白山民族)의 뿌리격 도시로 일컬어지는 태백시(太北市)가 위기감이 감도는 전환기를 맞고 있다.

태백시는 주 소득원이 무연탄과 고랭지 배추지만 한결같이 전도가 불투명,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향토의 미래를 걱정하는 사람들로 부터 이구동성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무연탄은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주탄종유(主炭從油)에서 주유종탄(主油從炭)으로 바뀌자 수요가 급감, 총 45개소나 되던 탄광 중 현재까지 명맥을 유지하는 곳은 3개소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고랭지 배추 역시 한여름에도 기후를 가리지 않고 쑥쑥 재배되는 우량 종자가 거듭 개량되는데다 햄버거와 피자 등으로 대변되는 인스턴트 식품 문화가 번창, 설 자리를 잃고 있다.



이처럼 주 소득원인 무연탄과 고랭지 배추의 인기가 시들어가자 지역의 선각자적 농민들 사이엔 야생화 공원 등 식물사업을 통한 지역 경제 개발책이 잇따라 제안되고 있다.

날 생(生)자가 풀(艸)이 땅(土)속에서 돌아나는 모습에서 유래됐다는 점을 상기하면 식물은 먹이 사슬의 밑바닥을 차지, 모든 생명체에 원동력을 제공해 주는 귀하디 귀한 존재가 아닐수 없다.

왕건(王建)의 고려에 이어 이씨(李氏) 조선(朝鮮)을 건국했던 태조(太祖) 이성계(李成桂)가 자두나무의 힘을 빌려 새로운 왕국을 일으켜 세웠었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전해지고 있다.

풍수지리가였던 도선(道詵)은 한반도에선 왕(王)씨에 이어 자두나무 성씨 즉 이(李)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자두나무 기운이 융성해지면 그에 힘입어 이 땅의 주인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에따라 고려 왕조는 자두나무를 베는 관리라는 뜻을 지닌 벌리관(伐李官) 벼슬을 급조, 자두나무 기운이 커지는 것을 막으려 안간힘을 썼지만 끝내 실패하고 말았었다.

벌리관은 자두나무 숲이 울창했던 서울 혜화동 창경원 일대를 매일 돌며 톱과 낫등으로 자두나무가 눈에 떨어 때마다 가지를 잘라냈지만 결가지가 잔뜩 자라 역효과만 내는 결과를 초래했다.

자두나무 동산을 이뤘던 서울은 곧 이씨 조선의 도읍지가 됐으며 이씨 조선 시대엔 자두나무 꽃 모양의 왕실 문장을 썼고 구한말엔 자두나무꽃이 그려진 지폐(紙幣)가 발행됐었다.

푸른 잎에 탐스런 열매를 주렁주렁 매달기도하는 식물의 세계는 얼핏 평화스럽게만 보여지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도 치열, 무한 경쟁 사회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입장을 되돌아 보게한다.



생명력이 강한 대나무는 다른 식물이 침범치 못하도록 땅속 가득 뿌리끼리 빼곡이 얼켜있어 지진이 났을때엔 대나무밭으로 피신하면 안전하다는 얘기가 전해질 정도이다.

강인한 생명력을 지닌 식물은 눈으로 감상하는 꽃과 열매의 아름다움 코로 맡는 향기 입으로 즐기는 맛 몸으로 느끼는 약효등 어느 것 하나 버릴것없는 전천후 돈벌이감으로 비춰지고있다.

국내에서 자생중인 식물 4,500여가지중 꽃이 아름다운 식물은 350여종 먹을수있는 식물이 800여종 먹어서 맛이 있는 식물은 300여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개발율은 극히 미미하다.

강원도에선 꽃이 아름다운 식물 350여종중 솔나리와 동자꽃 구절초등 60여종 먹어서 맛이 있는 식물중 곰취와 누룩취 산마늘등 10여종만 소득원으로 재배되고있는 실정이다.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는 자신이 죽기전 자신을 닮은 후손을 남기려 애쓰고 있으며 식물은 꽃이 지고나면 씨를 결실, 이듬해 봄 자신을 닮은 식물이 싹트도록 하고있다.

자식이든 새끼든 그리고 씨든 모든 생명체는 자신을 닮은 생명체가 태어나면 그 후손을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해가며 자신을 닮은 후손이 빠르고 건강하게 클수 있도록한다.

사람은 자식을 위해 먹고 싶은것 입고 싶은것등을 아껴가며 알뜰하게 저축, 자식을 공부시키는등 돌봐주고 있으며 여타 동물도 먹이를 잡아다 어린 새끼에게 먹여주는등 보살피고있다.

이들 생명체중 식물은 자신을 닮은 후손을 위한 헌신의 강도가 가장 높아 씨가 생기면 꽃잎과 꽃받침 암술 수술등이 몽땅 시들어 뿌리에서 섭취된 영양분은 모두 씨가 차지토록 하고있다.



꽃이 시든다는 것은 「씨가 든다」→「씨든다」→「시든다」등으로 어원이 변천된 말로 애절하게 여기기보다는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예고하는만큼 축복해줘야될 현상이다.

야산 기슭에 청초로운 자태로 산행객들의 눈길을 끄는 도라지는 꽃이 시들 정조를 보일때마다 꽃송이를 몽땅 따주고나면 후손을 남기려는 본능이 작용, 계속 꽃을 피운다.

안개꽃등 화훼재배 농장은 꽃 재배지에 비닐 하우스를 설치, 벌나비가 꽃 사이를 넘나들며 수술 꽃가루를 암술에 묻혀 결국 씨가 생겨 꽃잎등이 쉽사리 지지않도록 하고있다.

제자리만 지키고 살아가는 식물의 결혼 생활을 중매하는 곤충중 벌은 같은 종류의 꽃으로만 옮겨 다녀 호평받고 있지만 나비는 이 꽃 저꽃 가리지 않고 날아 다녀 바람둥이로 비유되고있다.

꽃중엔 동구밖 과수원길을 화사하게 장식하던 아카시아를 비롯, 배달겨레의 가슴에 수천년간 애환을 심어온 진달래와 도라지꽃 등 나무꽃등 먹을수있는 꽃(eatable flower)도 많다.

우리 주위엔 이처럼 꽃을 먹을수 것, 곰취와 참나물 누룩취등 잎과 줄기등을 먹을수 있는 것, 도라지나 더덕 잔대등 뿌리를 먹을수 있는 식물등 먹을수 있는 식물이 풍부하다.

잎이 나는 모양으로 볼때 잎이 마주나는 대생(對生)형 식물은 대개 독을 품고있지만 잎이 어긋나는 호생(互生)형 식물은 독이 없는 식물이 많아 식용으로 애용되왔다.

사계절이 뚜렷한 한국등 나라는 먹을수 있는 식물이 풍부, 초식문화권을 이루고 있는데 비해 계절이 단순한 유럽등지는 먹을수 있는 식물이 모자라 육식 문화권을 이루고있다.



유럽은 식물 종류가 1,500여종에 그치고 있는데다 먹을수 있는 식물은 더 더욱 부족, 식물을 사료로 삼아 소 양등 가축을 키운뒤 이들 가축을 나중에 도축해 먹거리로 삼아왔다.

고기는 삼거나 굽는등 요리시 악취가 나거나 딱딱해지기 쉬워 유럽인들은 배나 다래등 식물을 고기 냄새를 없애는 탈취제나 육질을 부드럽게하는 연육소로 삼았다.

유럽인들은 탈취 또는 연육 효과가 있는 식물은 부엌 가까운 곳에 심어놓고 요리할때마다 조금씩 썰으며 이같은 식물을 보호키위해 울타리를 쳐놓은 마당을 가든(garden)이라 불렀다.

그윽한 향기로 악취를 중화시키는등 허브(herb)성 식물이 유럽엔 귀했던데 비해 사시사철 기후가 변하는 우리나라등지엔 지천으로 깔려있지만 상품화율은 지극히 낮은 편이다.

강약의 차이가 있을뿐 모든 식물은 향기를 뿜어내고 있지만 파리나 구더기등이 좋아하는 식물은 역겨운 향, 벌이나 나비가 좋아하는 식물은 향긋한 향을 낸다는 정도만 알려진 정도다.

이른 봄 입맛을 돋구는 냉이는 나방등 하루살이 날벌레가 싫어하는 향기가 나는듯 호롱불 심지로 사용하면 날벌레가 달려들지않아 생명을 구한다고 알려져 호생초(護生草)라고도 불린다.

먹을수 있는 식물을 비롯, 국내에서 자생되는 식물은 질병 증세별로 알맞게 쓰기만하면 대다수가 한약재가 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한약재 시장에 유통되는 식물은 300여종에 그치고있다.

요리할때 쓰는 양념은 약(藥)이 되는 식물로 염색(染色)을 할수 있는 먹거리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감기약인 부추는 파랗게 향생제인 마늘은 하얗게 반찬을 염색한다.



로마는 정복 전쟁에 나서는 군사들에게, 이집트는 피라미드를 건설하는 근로자들에게 마늘을 나눠줘 집단 생활중 전염병이 발병하더라도 널리 확산되지 않도록했다.

중국 최고의 명의로 꼽히는 화타(華陀)는 거미와 벌의 싸움을 지켜본뒤 돌틈에 자라는 이끼를 벌에 쏘여 환부가 퉁퉁 부어오르고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약으로 썼다.

화타의 눈앞에선 거미줄에 걸린 벌을 잡아먹으려다 벌침에 쏘였던 거미가 거미줄에서 떨어져 이끼발위를 데굴데굴 구르다 부기(浮氣)가 가라앉자 또다시 거미줄로 올라가 벌을 잡아 먹었었다.

현대인들은 음식속에 섞여있는 잔류 농약과 중금속등에 오염돼 성인병에 걸리는등 고통받고 있지만 미나리와 갈대등 정화 식물은 수질뿐 아니라 우리 몸속의 오염 물질까지 정화시켜 주목받고있다.

미나리등 정화 식물은 물속이나 우리들 몸속의 오염 물질을 흡수하면 원소를 치환, 오히려 건강 생활에 도움이 되는 물질로 바꿀수 있는 신비한 힘을 간직한 식물로 알려지고있다.

모란꽃등 화려한 꽃과 색상을 좋아하던 중국인들은 마음에 드는 식물이라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자기들 집안 마당에 심어두려던 자연 파괴형 식물관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마음에 드는 꽃, 마음에 드는 경치등을 찾아내면 그 꽃이 있거나 경치가 펼쳐진 산과 계곡등에 집이나 정자를 짓고 살며 바라보기를 즐기는 자연 친화형 식물관을 유지해왔다.

한국인들이 곧잘 짓던 정자중 네기둥마다 바퀴를 달아 절경지를 찾아다니며 풍류를 즐기던 사륜정(四輪亭)은 이같은 자연 친화형 식물관을 여실히 드러내 주고있다.



자연 친화론자였던 한국인들은 큰 나무를 집 울타리안에 심으면 곤궁할 곤(困)자, 대문앞에 심으면 한가로울 한(閑)자 모양이 된다고 믿어 이를 금기시하기도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자연 친화형 식물관을 한걸음 더 발전시켜 식물을 유망 소득원으로 적극 개발한다면 중소 탄광의 폐광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는데 묘약이 될것으로 믿어진다.

식물은 코와 입등으로 즐길수있는 향기와 맛등에다 우리들의 가슴에 진한 감동과 교훈을 안겨주는 의미와 사연까지 간직하고있어 이 또한 훌륭한 소득원이 될수있을 것으로 비춰지고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한결같이 바늘형 잎 두잎이 붙어있는 소나무는 영원한 부부애를 상징하는 식물이어서 백년해로를 다짐하는 신혼 부부등을 겨냥한 선물용 카드 장식거리등이 될수있다.

가지를 꺾어 거꾸로 심어도 뿌리를 내릴 정도로 환경 적응력이 뛰어난 버드나무는 커다란 사업을 펼치는등 미지의 세계로 접어들려는 사람들의 성공을 비는 부적등의 적정 소재로 비춰지고있다.

인기 가요인 「립스틱 질게 바르고」에서 덧없는 사랑을 강조키위해 등장했던 나팔꽃은 서식 환경이 조금만 오염되더라도 잎에 반점이 생기는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 건강 생활을 위한 시금석이 된다.

성장 속도가 빠른 나팔꽃은 날마다 잎이 피어나는 식물이어서 새로 돋아난 잎에 반점이 생기는등 이상 징후 발견시 즉각 공기등 주위 환경을 점검하면 가스 질식등 불상사를 면할수있다.

이른 봄 연분홍 꽃망울을 터뜨리는 살구는 중국 당나라 시대를 대표하던 시인 두보(杜甫)의 시 행화촌(杏花村) 즉 「살구꽃 핀 마을」을 계기로 번지 없는 주막의 대명사로 꼽히고있다.



두보(杜甫)는 「청명(淸明)절이 돼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니/ 나그네 심사가 더욱 울적하구나/ 술한잔 행각에 주막을 물으니/ 소치는 아이는 멀리 살구꽃 핀 마을을 가르키더라」라고 읊었다.

중국은 당나라, 우리나라는 삼국시대 이후 주막집엔 으레히 살구 두세 그루가 심어져 있었으며 봄햇살 아래 살구꽃이 만발하는 집은 나그네들의 피로를 풀어주는 휴식처로 여겨져왔다.

이와함께 공자(孔子)가 제자를 가르치던 행단(杏壇)은 은행나무 아래 강단이 아니라 살구나무 아래 강단으로 이해되고있어 살구나무 아래 땅은 인재 배출의 터전이 되기도한다.

은행나무와 살구나무는 한문으로는 모두 행(杏)자로 표기되지만 굳이 은행나무를 살구나무와 구분, 표기할때엔 행(杏)자 앞에 은(銀)자를 덧붙이고있다.

두보(杜甫)의 시 행화촌(杏花村)과 공자(孔子) 행단(杏壇)등의 유래를 되새기며 전원 카페와 학교 울타리안에 살구 몇 그루를 심는다면 운치있는 조경수가 될것으로 믿어진다.

물개등 동물의 세계는 힘센 수컷 한마리가 수많은 암컷을 거느리는 일부다처(一夫多妻)형 세계이지만 식물은 꽃송이마다 암술 하나에 수많은 수술이 함께 있는 일처다부(一妻多夫)형 세계이다.

이에따라 식물의 아름다움과 향기 맛 약효 의미등을 소득원으로 개발하는 일엔 생업 전선에 앞장서온 남자와 함께 가사일에 몰두해 온 여자들에게도 잘 어울리는 과제가 될것으로 보인다.

국내 최대의 광산도시로서 명성을 떨치던 태백시는 이미 지역 경제가 시들어가고 있지만 후일을 기약할 씨는 결실되지 않고있어 식물 분야에 대한 관심이 한층 더 깊어지기를 바란다.



## 태백시 민자유치 1호 사업

### MJ드림월드(주) - 태백준용모터스포츠복합타운



이 창 주  
MJ드림월드 마케팅 실장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동쪽으로 약 270km, 동쪽의 해안과 가까이 산에 둘러싸인 곳, 우리 현대화에 석탄이라는 흑진주를 통해 상당한 기여를 했으며 한동안 인구 약 16만명에 이르는 작지만 생동감이 넘쳤던 도시가 있다. 이곳이 강원도 태백시이다.

1989년 이 후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낙후되기 시작한 지역 상황으로 1995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이 지역민들에게 희망을 주게 된다. 허나 2002년 현재 눈에 띄는 사업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현재 태백시 동점동 372번지 일원에 건설 중인 "태백준용모터스포츠복합타운"은 현재의 태백시의 사정으로 볼 때 획기적인 민자유치사업이라고 감히 주장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다.

필자는 이번 기고를 통해 MJ드림월드(주)가 건설 중인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소개하고자 한다.



## 1. 모터스포츠

모터스포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발명품인 자동차를 가지고 속도 및 내구성 등을 겨루는 첨단 스포츠다. 그러므로 모터스포츠란 레이스, 테스트, 기록 도전, 내구 트라이얼, 랠리 또는 자동차가 참가해서 행해지는 경기적인 성격을 가진 모든 행사를 포함한다.

자동차 경주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일반용 차로 하는 경기이고 다른 하나는 경주를 위해 개발된 차를 가지고 하는 경기가 있다. 또한 이륜자동차인 오토바이를 사용하는 경기도 현재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우리 나라는 1980년대 자동차를 사랑하는 동호인을 중심으로 첫 레이스를 가짐으로서 국내 모터스포츠 시대의 개막이 시작되었다. 국내 모터스포츠 초창기는 서킷이 없는 관계로 비포장도로에서 경기가 진행되었다. 그 후 1992년에 한국 최초의 자동차 경주 전용 경기장인 자연농원 모터파크(현재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탄생됨으로서 한국 모터스포츠 발전에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세계 5위의 자동차 생산국으로 모터스포츠의 위상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모터스포츠는 많은 종목과 형식을 가지고 있는 다양하고 박진감이 넘치는 경기일 뿐 아니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

모터스포츠의 총아라고 불리는 포뮬러원(F1) 챔피언십 시리즈는 최첨단 테크놀로지와 국제 메이저 자동차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한





거대 자본, 그리고 인간의 정신력이 빚어내는 종합 예술이다. 박진감 넘치는 경기운영과 세계의 유명 메이커들의 각축장이라고 할만한 화려한 외형으로 열광적인 팬들을 확보하고 있으며 전 세계 200여개 국가에 그 모습이 중계되는 초대형 스포츠 행사이다.

이러한 경기가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말레이시아가 경기를 유치하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경우 주변 관광대국 태국과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에 비해 유럽인들의 선호도가 낮았으나 1999년부터 그랑프리 개최를 계기로 국가인지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뒤에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그랑프리 경우 외국인 입국자 수는 7만 명 선이며, 관광수입 효과는 경기당 1,800만 달러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태백시에 건설되는 모터스포츠 복합타운에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 2. 태백준용모터스포츠복합타운의 탄생

국내 최대의 규모로 건설중인 경기장의 시작은 대한모터사이클연맹의 신준용 회장이 모터스포츠인으로 늘 꿈꾸어 온 사업으로, 다



각도로 준비하던 중 1998년부터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고 심지어 현지인들에게는 사기꾼일 것이라는 비아냥을 받기도 했다. 2002년 11월말 현재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어 모두에 기술한 대로 태백시를 발전시키는 막중한 역할을 기대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 3. 입지조건

서울에서 태백까지의 거리는 약 270km로 현재 고속도로와 국도로 연결되어 있으며 자동차로 약 4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38번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외 주변 접근도로가 좋아지고 있어 향후 상당한 시간이 단축될 것이며, 태백은 인간의 삶에 가장 유리하다는 해발 700m에 위치해 한여름에도 경기장 온도가 평균 섭씨 18~20도를 넘지 않으므로 레이서와 관객이 경기 및 관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한 20여분 거리인 고한, 사북에 카지노가 있으므로 상호간의 연계 제휴를 통해 관광객 유치에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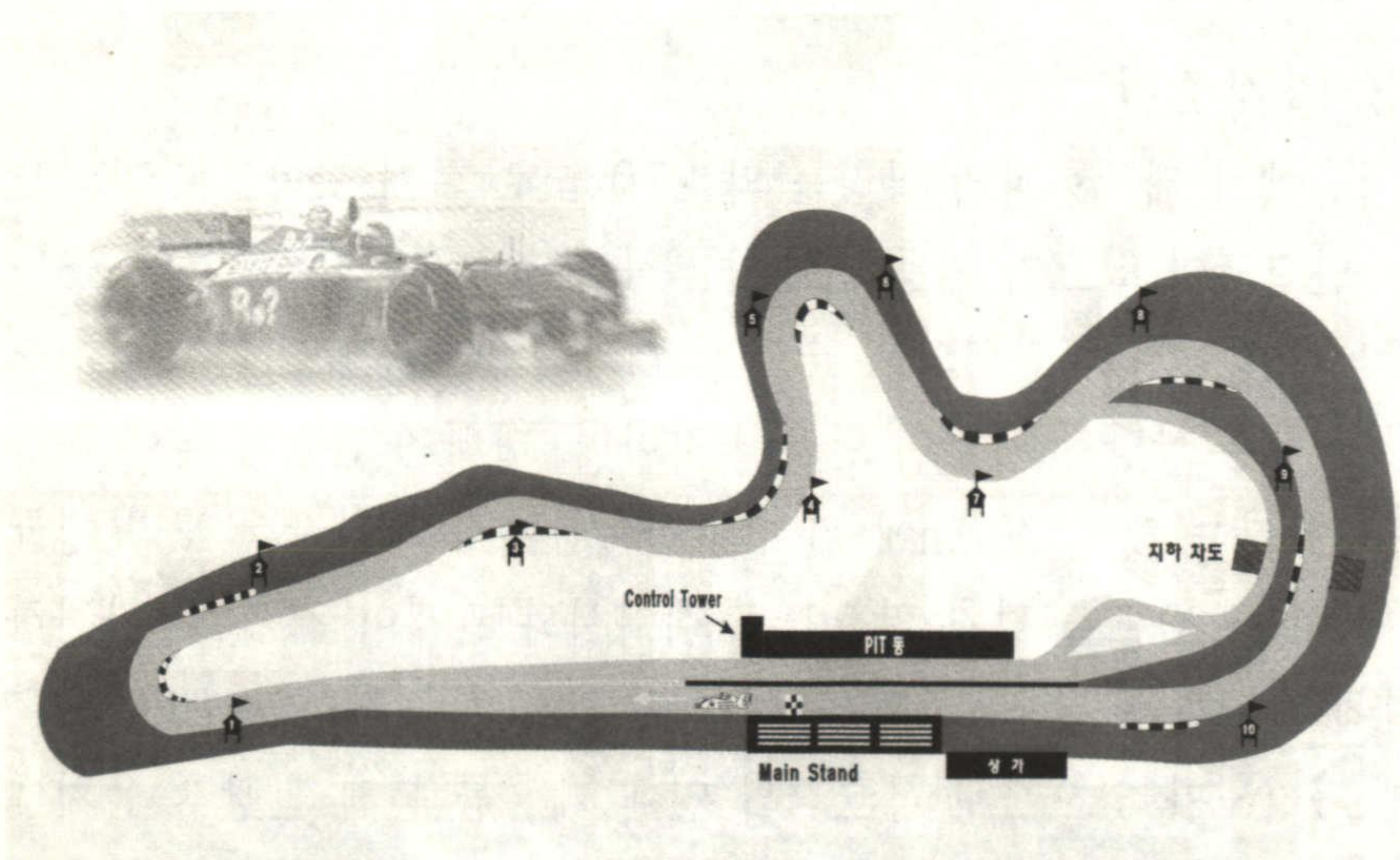
### 4. 태백준용모터스포츠복합타운의 규모

태백시의 슬로건은 "고원광광레저스포츠의 도시"이다.

우리 MJ드림월드(주)는 규모면에서 이러한 슬로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기획 단계에서 복합타운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여 46만평의 지구지정을 받아 1차로 경기를 할 수 있는 약 8만평



에 2.5km 포장경기장(써킷라 함), 2,800여석 규모의 관람석, 경기를 진행하는 4층 관제탑을 포함한 210m에 이르는 PIT시설, 1,000여대를 주차시킬 수 있는 paddock과 상가가 이미 2002년 11월 현재 90% 이상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우리 나라 최초의 온로드 써킷인 용인의 스피드웨이와 비교할 때 상당한 우위를 보이고 있다. 그 예로 모터스포츠의 매력인 스피드를 즐길 수 있는



직선 주로의 경우 900m 대 450m로 두 배에 이르며 그 외 부대시설에 있어서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2003년에는 써킷을 약 1.7km 정도 연장하여 명실공히 세계적인 그랑프리 경기를 유치할 수 있는 경기장을 건설하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이미 7월부터 11월까지 "한국담배인삼공사배" 로드레이스 시범경기를 무사히 마침으로 경기장에 대한 점검을 하였다. 특히 이 경기들은 TV를 통해 전국에 중계됨으로 우리 태백시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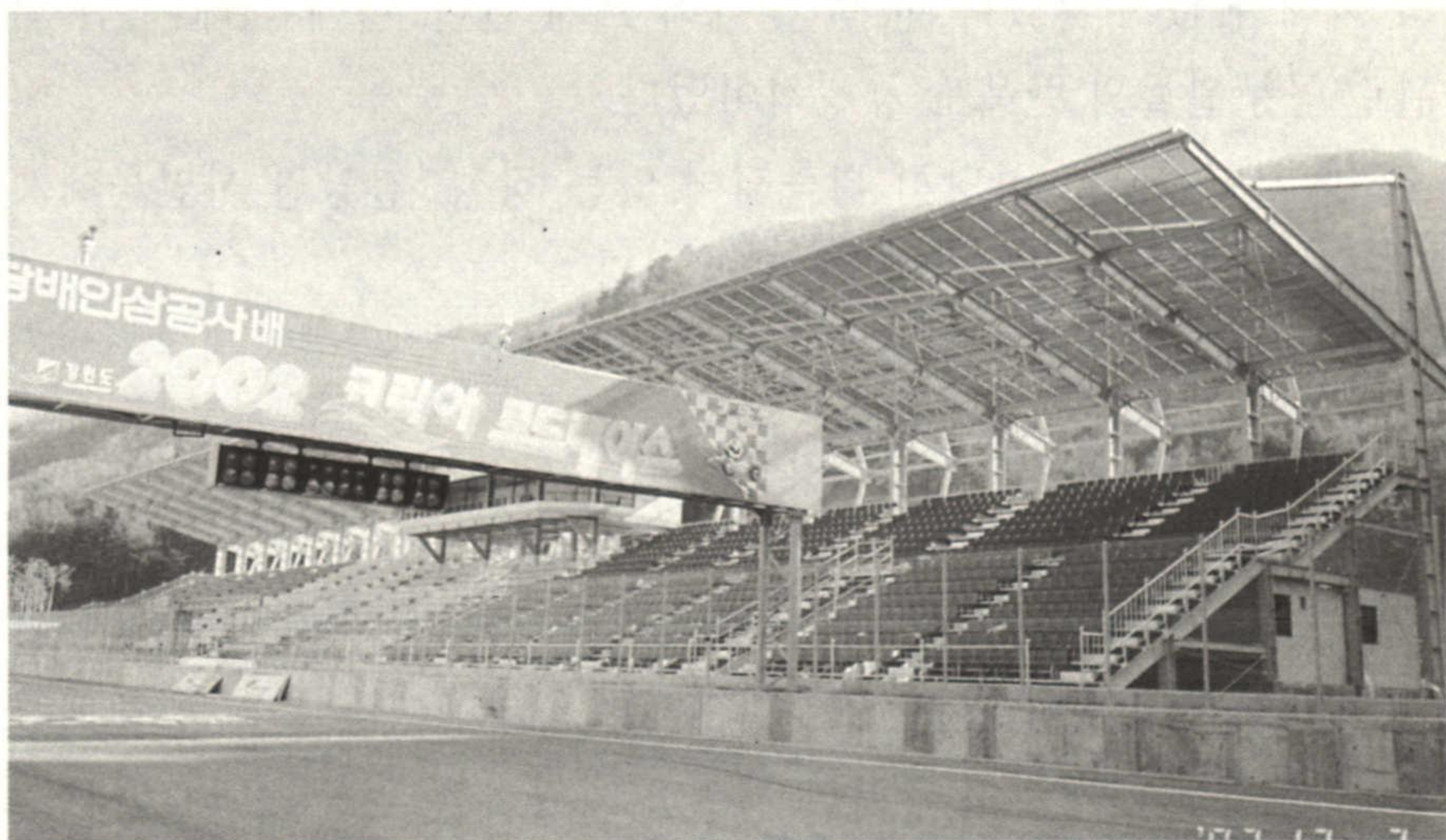
전국에 홍보하는데 일조를 하였다. 2003년부터는 오토바이뿐 아니라 다양한 자동차 경기가 25회 이상 개최될 것이다.

추후, 숲가마찜질체험장, 청소년수련원, 스키장, 콘도, 민속마을 등을 건립하여 명실공히 태백시의 대표적인 명소로 발전할 것이다.

## 5. 기대효과

국민의 의식과 생활환경의 변화와 향상은 첨단기술 및 스피트가 어울어지는 모터스포츠는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가장 적합하고 역동적인 레저스포츠로 꼽힌다.

중복되는 내용 같으나 이웃 일본은 무려 40여개 정도의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고, 자동차 생산에 있어 우리 나라와 경쟁이 안되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는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요사업으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말레이시아의 "세팡"경





기장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경기장으로도 유명하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선풍적인 인기와 더불어 F1 그랑프리  
의 경우 경기당 20만명이 넘는 관중동원력과 천문학적인 광고수입  
과 관광 및 부수적인 수입이 수백억원대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태백시에 국내 최대의 국제적인 모터스포츠 경기장을 건  
립함으로 국가 산업과 지역 경제는 물론 고용창출 등 복합적인 경  
제의 파급을 줄 것이며, 국제 경기를 유치하여 아름다운 태백을 외  
국인들에게 보여줌으로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함에 일익을 할 것  
이다.

아전인수식 해석인지 모르지만 2002년 여름의 수해는 100여년  
만이라 한다. 태백시도 예외없이 피해를 보았다. 우리 경기장 위치  
는 태백 시민이 알고 있는 대로 비소가루 등 폐석을 매장했던 환경  
취약지역으로 불모지다. 이러한 땅에 엄청난 투자를 함으로 환경을  
변화시키고 토목공사를 철저히 함으로 사군드리 지역 일대는 수해  
의 피해가 없지 않았나 한 번 생각해 보게 한다. 이에 대해 주민 및  
관련 공무원들의 반응도 긍정적이었다.

또한 지역적으로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장성, 철암권 시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는 사업이 될 것이다.

## 6. 결론

세계 3대 스포츠 중 하나인 모터스포츠! 올림픽과 월드컵에 이어  
21세기의 스포츠인 모터스포츠를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는 태백산  
을 갖고 있는 청정하고 수려한 자연을 자랑하는 우리 태백시에서



맛볼 수 있게 되었다.

2003년부터 국제규격의 완벽한 서킷과 다양한 모터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국내외 많은 사람의 관심을 사로잡아 태백시가 세계적인 고원관광레저스포츠의 도시로 변모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바람이 있다면 태백시에서는 autorace에 대한 관심을 갖고 검토 중에 있다고 있다. 경마와 경륜사업 관련법이 이미 통과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적극성을 보인다면 카지노와 더불어 환상적인 게임산업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우리 태백시는 점점 시민의 수가 줄고 있고 미래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좋은 사업에 태백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왜냐하면 이 좋은 시설은 분명 태백 시민들의 것이다. 어느 누구도 이거나 지고 나갈 수 없는 영원한 태백의 재산임을 우리 태백시민들이 인식하고 자랑함에 인식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 취미로서의 음악감상과 오디오의 선택

이 동 형  
윙풍레미콘 (주) 대표이사

## 1. 왜 음악감상인가?

기본적으로 적당한 신체활동과 더불어 우리의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중 그중 음악감상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은 쉽게 말해 중세이후의 그레고리안 성가등 교회 음악에 뿌리를 두고, 시간이 지나면서 무위도식하던 종교지도자나 왕후장상이 그들의 막대한 불로소득을 소모하기 위하여 급여를 주고 키우던 사람들...음악담당 머슴이라 하면 실례가 될지 모르겠으나.. ‘ 하여간 그런 사람들이 좀더 나은 수입획득을 위해 만든 작품을 우리는 간단한 장치      로서 수백년의 시간과 지구의 저편이라는 공간을 초월하여 감상할 수 있고, 또한 그 도도한 카라얀도 스위치 하나로 퇴출이 가능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는 것처럼 엄청난 혜택을 오디오를 통한 음악감상으로 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전 태백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박 수근 기념관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수근의 유화가 엽서 한 장 크기에 수억을 호가하여 구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라고 합니다.

그 대단한 그림을 그린 박 수근이 평생 혹독한 가난속에 살다 간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즘 사회가 기술의 소중함과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하기에 요즘의 陶工들이 선생으로 불리지 그 옛날 비취빛 고려청자를 만든 진짜 명인들은 돌쇠, 막둥이로 불리며 생을 다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음악가가 있지만 그중에 누가 이렇게 오랜 세월동안 보편 타당한 선율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디오를 통한 음악감상은 그러한 황홀을, 음악의 희열을 쉽게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居巢에 즉시 그옛날 거장들의 숨결을 느끼게 해 줍니다.

그러면 아무 오디오나 그러한 희열을 가져다 줄까요? 그것은 가능합니다. 학생용 기 만원하는 녹음기에서 나오는 음악이 절대 저질의 음악은 아닙니다. 어차피 음악은 음악일 뿐이고, 또한 오디오에서 재현할수 있는 음악은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하늘의 별처럼 많은 수많은 오디오 메이커는 왜 존재 할까요? 다 詐術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디오 각 부위의 조합을 통해 수 억개의 조합이 가능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진짜 자기가 원하는 소리를



찾는 과정, 그과정을 통해 느끼고 생각하는 과정이 자기의 수양이나 내면의 성장에 도움을 주기 때문입니다. 즉 홍길동의 오디오에서 내는 음악은 홍길동의 수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2. 그래도 왜 오디오 인가?

그래도 오디오의 취미성, 솔찍히 말해서 어른들의 장난감이라는 측면이 많습니다. 일면 생계와는 별 상관이 없어 사치스럽다 할지 모르나 그것을 즐기는 과정에서 안정을 찾고 스트레스를 풀어가는 과정을 간과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일도 마가 끼는 법입니다. 그 좋은 취미를 하는 가운데 과시욕, 사치심, 허영이라는 마물이 끼어들어 사물의 본질을 흐립니다. 거실의 장식품으로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도구로 또는 반사회(?) 용으로 흘러 간다면 차라리 화투패를 만지는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성인들이 즐길수 있는 오락이란 참 제한적이라 봅니다.다행히 인터넷과 택배의 발달이 오디오 취미를 바른길로 끌수 있는 소지가 확대되어 기쁩니다.

자, 우리 魔에 물들지 말고 바른 오디오생활이 무엇인가 찾아봅시다.

## 3. 音原部(source part)



음원부란 음악이 시작하는 부위, 사람의 腦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크게 봐서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이하 CDP로 표기), 라디오(일명 튜너), 턴테이블(이하 LP로 표기)로 구분이 되는바 기본적인 음악의 틀을 정하고 소리의 질을 결정합니다.

### 1) CDP

근자에 들어 소스부분의 대표적인 기기입니다. 소니와 필립스가 공동으로 개발한 매체로서 레이저를 이용해 소리를 재생합니다. 음질은 20년간의 세월이 가며 완성단계에 접어들었으며 거의 기술의 끝에 도달한 듯 합니다.

현재 이를 대체할 소스가 많이 개발되곤 있지만 당분간은 주력 소스기로 남을 듯 하지만 이부분에 대한 과도한 투자는 금물입니다. 10~20만원대의 국산기기도 상당히 쓸만한 편이고 100만원대 전후의 국산기기라면 극상의 재생을 보입니다. 우리나라 전자기술도 상당합니다.

### 2) 라디오

라디오 음악은 광고도 없고 하루종일 숙달된 진행자가 명곡만을 골라서 들려주는 하늘의 선물입니다. 음질도 상당히 좋은 편이고 우리 태백지역의 수신 감도도 뛰어납니다.

우리나라 라디오 기술은 세계일류권이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자기의 취향에 맞게 선택해도 문제는 없으며, 중고 일본산도 쓸만합니다. 비싸도 10만원 미만 일것입니다.

참고로 60년대 마란츠사의 10B라는 라디오를 최고라고 칩니다.

### 3) LP

현존하는 최고 음질의 기기입니다. 사람에 따라 CD가 좋다 LP가



좋다 하는 설이 있지만 소니사에서 CD를 개량한 SACD(Super audio compact disc)를 내놓으며 “LP에 가장 가까운 소리를 내준다”라고 애 기하는 것이 답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취급과 보관의 불편함, 高價化등 등의 약점 때문에 현재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惡貨가 良貨를 구축하다”라는 표현이 딱 들어맞는 경우라 봅니다.

전자기기보다는 순수한 기계에 가깝기 때문에 독일산이 강세입니다.

EMT사의 927Dst를 최고라고 자타공인으로 인정하며 이제는 너무 강한 취미성으로 인해 설명을 생략합니다.

#### 4. 増幅部(Amplifier)

前記한 소스부위의 신호를 증폭하는 장치입니다. 여러 가지 구분이 가능한데 크게 기능에 따른 분류와 증폭하는 소자에 따른 방식이 있습니다.

##### (1) 기능에 따른 분류

- 프리앰프 : 소스부의 기기신호를 정리하고 미세한 신호를 다루는 부위
- 파워앰프 : 프리앰프의 미세신호를 받아 크게 증폭하는 부위
- 종합앰프 : 프리와 파워의 기능을 한몸체에 담은 앰프 주위에 흔히 보는 앰프의 99%는 여기에 해당함
- 리시버 : 종합앰프에 라디오의 기능을 포함



그 외 포노앰프, 라인앰프등의 설명은 생략...

## (2) 증폭소자에 의한 분류

-트랜지스터앰프 : 60년대 후반부터 주로 쓰인 반도체를 이용하여 증폭을 하는 기기.

-진 공 관 앰프 : 에디슨의 진공관 발명이래로 지금까지 사용된 진공관을 이용하여 증폭을 하는 기기.

-하이브리드 앰프(HYBRID) : 반도체와 진공관을 혼합한 混血 기기.

가급적 무거운 기기를 선택하는 것이 전원부가 튼실하여 좋으며 지금은 개별부품의 가격이 공개되어 외국산 기기의 환상이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브랜드를 따질 필요가 없고...

우리 주위에 볼수 있는 대량생산 제품외에 고성능의 제품을 생산하는 소규모 회사도 많습니다.

반도체 방식

장덕수 연구소(WWW.JANGDUKSU.COM)

진공관방식

유엘사운드(WWW.ULSOUND.COM)

오로라(WWW..AURORASOUNDS.COM)



공동제작

박창영(WWW.DIYAUDIO.CO.KR)

꿈방(www.simpletube.com)

결국 앰프는 스피커와의 조화가 가장 중요하며 아주 경험이 풍부하지 않으면 항상 질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강원도내 모 대학교수가 운영하는 실용오디오(www.enjoyaudio.com)가 질의응답이 잘되고 있어 초보자의 길잡이가 될만 합니다.

## 5. 出力部(speakers)

스피커는 간단히 말해서 증폭부의 전기신호를 운동에너지로 전환시켜 소리로 나오게 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스피커는 전원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따라서 소중히 사용하면 반영구적인 수명을 보입니다.

스피커는 오디오의 뿌리이고 자동차로 치다면 타이어입니다. 이것은 가장 신중히 선택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불행히도 스피커는 악기와 유사한점이 많아서 일정한 수준을 넘어가면 국산은 물론이고, 일본산도 쓸만하지 않습니다. 스피커 유닛에 들어가는 접착제의 수준인지, 아니면 진동판의 재질 탓인지 이부분은 오랜 세월동안 스피커를 제조해온 영국이나 독일이 강세를 보입니다.

스피커 유닛에 사용한 접착제의 안정화에 걸리는 시간, 스피커통의 건조에 따른 소리의 변화 등을 에이징(aging)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에이징이 된 스피커가 새로 만든 제품보다 소리가 좋습니다.

가격면의 부담이나 소리의 질을 볼때 저는 항상 중고(used) 스피커를 선택 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또한 스피커 통안에 유닛이 한 개가 있는 풀레인지, 두 개가 있는 투웨이(2-way), 3개가 있는 쓰리웨이(3-way)... 이런 식으로도 분류가 되는데 저는 2-way 이하의 스피커가 정위감, 발란스 등의 측면에 유리하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사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스피커는 거의 다 2-way입니다)

한마디로 뭐가 많이 달려본들 음만 흐트러지고, 왜곡이 생길뿐 고전음악 감상에는 별 도움이 안된다는 얘기 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트 클럽의 수많은 스피커들 사이에서 음악을 들으면 찰라에는 즐거워도 종래에는 속이 답답하고, 귀가 따가울 수밖에 없는 것은 특정 주파수를 왜곡한 대음량의 음은 듣는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초보자에게 가급적 한 개의 스피커 유닛으로 전대역 즉 가청 주파수 대역인 20~20,000Hz를 커버하는 풀레인을 권합니다.

국산은 10만원 전후에 장만할수 있고, 풀레인지의 제왕인 로더도 100만원 전후 입니다. 즉 풀레인지 가격은 1만원에서 100만원선 입니다.

삼미스피커 ([www.sammisound.com](http://www.sammisound.com))

오디오천국 ([www.audioheaven.co.kr](http://www.audioheaven.co.kr))

로더 ([www.lowther.co.kr](http://www.lowther.co.kr))



등에서 폴레인지에 대한 좀더 많은 정보를 구할수 있습니다.

## 6. 다시 오디오를 위하여

두서없는 글을 읽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년 이상 오디오를 사랑한 순수한 아마추어로서 짧은 글을 써보았는데 오디오계의 선배들은 지나간 시간을 반추하며 웃을 기회를 드리고 싶고 이제 오디오를 시작하려는 분들에게는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지만 심심할때 하는 화투의 고수가 되는 것의 백분지 일의 정성과 비용만 투자한다면 쓸데 없는 내기골프의 백분지 일의 신경만 쓴다면 그 결과는 황홀 그자체이라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오디오와 음악이 인생을 좋은 방향으로 이끈다고 강하게 확신 합니다.



# 칼라믹스를 알아봐요!



공 선 녀  
태백문화학교 강사

## 1.칼라믹스(color mix)란?

우리 나라에서 1980년대에 개발되어진 공예로 국내에서 최초 합성수지 창작소재로 PVC고분자조형제발명특허(058328호)를 획득한 소재이며 서비스 등록(112류)은 칼라믹스 학원경영에 필요한 이론, 실습, 실기 강좌를 획득한 것이며 또한 칼라믹스 연합상표는 칼라믹스, 매직칼라믹스, 매직믹스를 종합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색상을 섞는다"는 뜻으로 빨강, 파랑, 노랑, 흰색, 검정의 다섯색으로 원하는 색상을 주무르면서 모양이나 특수 무늬를 만들거나 덧입히는 수공예 조형법이다.

칼라믹스는 고분자 물성 소재로 부드럽고 정교하며 점성이 뛰어나



나 만들기, 창작, 조각, 조소, 캐릭터, 캐리커처, 일러스트, 칼라믹스 애니메이션 등에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발명 고안된 소재이다.

칼라믹스 공예는 일반 취미공예나 생활공예와는 달리 실용공예로서 상품개발 및 캐릭터 제작, 민속, 민예품 제작, 악세사리, 클레이 애니메이션, CF, 일러스트 등을 제작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일 뿐 아니라 미술대학이나 유아교육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전공과목으로 선택되어 있으며 합성수지공예 혹은 실용공예로 널리 알려져 있다.

또한 문구, 완구, 유치원, 초등학교 지능개발용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칼라믹스는 손끝힘은 물론 공작놀이를 통한 분석력, 관찰력, 집중력을 길러주며 다른 공예품에 비해 수명이 길고 촉감이 부드러워 인성교육에 필요한 취미교실로서는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더욱 발전하여 칼라믹스 전문공예인이 많이 배출됨으로 한국인의 손끝재능을 세계 속에 알람과 동시 21세기를 맞아 부가가치가 높은 미래전망이 밝은 신소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본다.

## 2. 칼라믹스의 교육적 효과

### 1) 창조성을 길러줍니다.

창조성이란 상상력을 통해서 새로운 물건, 생각 같은 것을 만들어 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그들 사이의 새로운 관계를 찾아내서 새로운 생각을 만들어 낼 수 있는데 그것은 남의



물건이나 생각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고 말  
들어 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창조력은 마음껏 생각하고, 평가하고,  
표현하는 자유로운 표현활동을 필요로 하는데 어린이에게 있어서  
조형활동인 칼라믹스 만들기는 창조성을 길러주는 중요한 학습매  
체가 될 것입니다.

## 2) 사회성 발달을 돕습니다.

칼라믹스 만들기는 어린이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주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이들이 서로 어울려 재미있게 만들고,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서로의 생각을 주고 받으며 의사 교환하는 기술을 습득하  
게 됩니다. 또는 선물로 만들어서 친구끼리 주고 받기도 함에 따라  
따뜻한 우정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어린이들은  
서로 사람의 권리, 생각, 감정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 3) 지능의 발달을 돕습니다.

무엇을 만든다는 것은 생각의 표현이기 때문에 마음속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생각이 구체적인 개념으로 형성되어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동물이나 사물들을 만들려면 그 대표적인 특성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상상하여 관찰한 바를 독창적으로 표현해야 하  
기 때문에 관찰력과 상상력을 총동원하여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됩  
니다.



### 3. 칼라믹스의 특성

손으로 주무르면 체온에 의해 말랑말랑해진다.

혼합비율에 의해 쉽게 원하는 색을 만들 수 있다.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으며 부패되지 않는다.

섬세한 손 감각과 색상배합을 위한 시각기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지능개발이나 임산부의 태교, 노인들의 치매예방, 주부들의 취미생활로 적합하다.

플라스틱(TV 위 등), 메니큐어에 녹는 성질이 있다.

실온에 장시간 두었다가 다시 손으로 만져주면 다시 처음처럼 말랑말랑해진다.

### 4. 칼라믹스의 제작도구 소개

칼라믹스 작품을 제작하는 데에는 크게 주재료와 보조재료로 나뉩니다.

주재료는 칼라믹스(PVC 고분자 조형제)와 보조도구, 조각도, 공예용 접착제로 작품을 만드실 수 있으며 보조재료로는 액자, 폰걸이, 자석, 열쇠고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부재료로는 공업용 드라이기, 믹스기(수동/자동), 전기오븐, 마네킹 모빌을 부재료로 사용합니다.



- 1)칼라믹스 : 원래 흰색, 검정, 빨강, 파랑, 노랑만 있었지만 현재는 진노랑, 분홍, 연두, 하늘색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2)보조도구 : 작품 터치에 필요한 다섯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 3)빨대 : 끝을 조금 잘라 사람의 입이나 눈썹모양 내는데 사용합니다.
- 4)눈썹가위 : 방울꽃이나 매화꽃 등을 만들 때 필요합니다. 일반가위보다 모양이 잘 나타납니다.
- 5)광택제 : 삶은 작품의 윤기를 원할 때 발라주면 됩니다.
- 6)순간접착제 (Loctite 401) : 작품의 접착에 필요합니다.
- 7)물티슈 : 비누로 닦는 것보다 훨씬 잘 닦입니다.
- 8)공업용 열풍기 : 끓이기 힘든 큰 작품을 말리는데 사용합니다.  
분무기로 물을 뿌리면서 말리면 윤기가 나지 않아 끓이는 것과 같이 무광택이 되고, 그냥 말리면 윤기있는 작품이 됩니다.

## 5. 칼라믹스의 기본 모형

원형모형

물방울 모형

타원형 모형

판모형



## 6. 칼라믹스의 주요 기법

### 1) 그라데이션(Gradation) 기법

하늘, 바닷물, 노을 등 자연스러운 색번짐 배경 처리를 위해서 자주 표현되는 기법으로 예를 들면 바다를 표현할 때 깊은 바다일 때는 짙은색으로, 해안선에 가까울수록 옅게 보이는 점을 자연스럽게 나타내고 싶을 때 표현되며 파란색을 짙은색에서 옅은색까지 3~5 단계별로 만들어 짙은색부터 옅은색으로 배열한 후 반복해서 밀어 주면 색번짐이 자연스럽게 표현되는 기법입니다.

### 2) 바틱(Batik) 기법

인도네시아에서 옷감을 염색할 때 파라핀으로 그림을 먼저 그린 후 염색하면 파라핀의 그림이 선명하게 드러난 점에 착안해서 꽃모양을 표현하거나 기하학적인 무늬를 표현할 때 쓰이고 액세서리를 만들때 많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바탕색의 얇은 칼라믹스에 속색의 칼라믹스를 채워 김밥처럼 겹을 싸주는 방법으로 바탕색으로 모양을 표현하는 선을 만들어 줍니다.

### 3) 물방울 기법



꽃망을 형태의 물방울 모양을 만들어 꽃잎 수에 따라 가위로 등분을 나누어 꽃잎을 펼쳐 주는 기법

#### 4) 판화기법

칼라믹스가 갖는 탄력성과 완성품으로 굳히기 전 인쇄물이 복사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고무판화보다 손쉽고 다양하게 판화를 만듭니다.

방법은 밀대로 밀어 판을 윗판 아래판으로 두 장 만들고 이 때 위판을 가능한 얇게 아래판은 두툼하게 만들고 두 판의 색감은 대비되는 색으로 고릅니다.

두 판을 위 아래로 겹치고 그 위에 원하는 그림을 놓고 살짝 밀면 그림이 본떠집니다. 그 후 물에 판을 삶고 탄력을 이용해 조각도 칼 등으로 양각 음각을 그림의 특성에 맞게 사용합니다.

#### 5) 조각기법

칼라믹스의 접착력을 이용해 만들어 붙이는 조소 형태의 기법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작품에 따라 색다른 조각의 방법도 시도해 보면 특성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우선 원하는 색의 원료를 잘 반죽해 덩어리째 삶은 후 앞, 옆, 뒤의 조각한 형태를 세분화 해서 밑그림을 그려 준 다음 조각도로 파내는 기법입니다.

#### 6) 애니메이션 기법

칼라믹스로 칼라믹스의 특성을 살린 기법으로 소재가 응고되지



않았을 때 자유스럽게 변형시켜 애니메이션을 작은 양의 소재로 단 시간 내에 완성시킨다. 특수장비가 없이 디지털 카메라로 칼라믹스의 소재의 특성을 살려 촬영할 수 있다.

## 7. 칼라믹스의 장점

PVC가 주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체에 전혀 해가 되지 않으며 부패되지 않고 떨어뜨렸을 때 깨지지 않으며 제작과정이 오래 걸리지 않으며 작품을 만들면서 얻어지는 섬세한 손 감각과 색상배합을 위한 시각기능이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의 지능개발에 적합합니다.

칼라믹스를 만든 후 200℃의 끓는 물에 크기에 따라 3~5분 정도 삶아주면 일정한 굵기로 굽어져 멋진 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븐에 넣어 크기에 따라 10분 정도 구우면 윤기나는 멋진 작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삶거나 오븐에 굽기 어려운 액자와 같은 작품은 공업용 드라이기로 말려 주어도 됩니다.

먼지 쌓인 작품은 매니큐어 리무버(아세톤)으로 닦으면 아주 깨끗이 닦입니다. 지우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부분이 부러지거나 떨어졌을 경우에는 순간접착제 (Loctite 401 본드)로 붙여주면 됩니다.



## 8. 칼라믹스의 단점

작품이 플라스틱이나 메니큐어에 닿으면 녹는 성질이 있습니다.  
따라서 TV 위나 컴퓨터 위에 놓으면 안됩니다.  
많이 잘 주물러서 작품을 만들어야 삶은 후 오래 지나도 갈라지지  
않습니다.



## 겨레의 영산(靈山) 태백산(太白山)



김 강 산  
(태백향토사연구소장)

올해가 유엔이 정한 '세계 산의 해'다. 산이라고 하면 국토의 8할이 산인 우리 나라도 할 말이 많다. 우리 겨레만큼 산과 연관된 나라도 드물 것이다.

우리 나라 역사에 최초로 나타나는 땅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태백산(太白山)이다. 태백산이란 이름은 우리 배달겨레가 생기고 우리 역사의 무대에 처음 등장하는 성스럽고 거룩한 산이니, 태초에 하늘나라 하느님의 아들인 환웅이 인간세상을 다스리고자 처음 이 세상에 강림한 곳이 태백산이고 이 산으로 인하여 우리 배달겨레가 형성되었으니 태백산은 우리 겨레의 뿌리가 되는 본산(本山)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산으로부터 생겨나 산에 의지해 사는 겨레이다.

건국신화에 나오는 환웅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온 태백산이 어디인지는 아무도 확연히 말하지 못할 것이다. 다만 개국신화(開國神話)에 나오는 태백산이 어디냐 하는 것보다는 현재 태백산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산이 어디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강원도와 경상도 사이에 우뚝 솟은 현재의 태백산은 이미 고조선시대부



터 태백산으로 불리었고 삼한시대에도 태백산이라 불렸으며 신라에서도 태백산이라 부르며 오악(五岳) 가운데 북악(北岳)으로 봉하여 중사(中祀)의 제를 올린 기록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우리의 조상들은 전국의 수많은 산 다 두고 이 산에 다 거룩하고 신성한 이름 태백산을 부여하였을까?

그것은 태백산이 갖는 지리적 특징이 여타 산들과 다르기에 민족의 영산, 겨레의 본산(本山)인 태백산이란 이름을 부여하게 된 것이다.

태백산은 우리 나라 국토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백두산에서 뻗어내린 백두대간의 중추에 우뚝 솟아 있을 뿐만 아니라 백두산과 한라산 중간에 위치하여 백두산엔 천지(天池), 한라산엔 백록담(白鹿潭), 태백산엔 천황(天潢:黃地)을 간직한 묘하디 묘한 지리적 신비함을 간직한 곳이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나라에서 동해와 서해와 남해로 흘러가는 물줄기를 함께 가지고 있는 산은 태백산 밖에 없다.

태백산 아래 황지에서 흐르는 물은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어 남해로 흘러가고, 태백산 북쪽 봉우리인 금대봉 북쪽 기슭의 검룡소에서 흐르는 물은 한강의 발원지가 되어 서해로 흘러가고, 태백산 동북쪽 봉우리인 백산의 흰눈에서 흐르는 물줄기는 오십천이 되어 동해로 흘러가는 것이다.

산과 물이 삼태극(三太極)으로 생겨 전국토로 흘러 뻗으니 한강 남쪽에 서 태백산 자락이 아닌 곳이 없다.

그러므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경기도에 사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동네의 뒷산에 올라가 이 산줄기가 어디에서 뻗어 왔을까 하고 거슬러 올라오면 모두가 태백산에서 만나게 되니, 바로 태백산이 국토의 뿌리 땅이 되고 겨레의 발상지가 되고 민족의 영산이 되는 조건을 갖춘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신비함이 있는 곳이기에 백두대간의 원맥이 지나는 그 정상에 천제단을 쌓고 하늘에 제사하길 4천년이 넘었으니 그 역사성이 인정되어 천제단을 중요민속자료 제228호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는 것이



다.

삼천리 금수강산이라 하여 아름답고 좋은 산들이 수 천이나 어느 산 꼭 대기에 하늘에 제사하는 천제단이 있는가? 태백산 만이 그 머리에 천제단을 이고 있으니 이로써 민족의 영산인 것이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산의 뿌리, 물의 근원이 되는 태백산 자락으로 가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믿었다. 태백산 속에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의 오복동(五福洞)이 있다고 믿었고 시절이 어수선할 때면 태백산 속으로 피난해 왔었다.

그래서 정감록(鄭鑑錄)에 십승지(十勝地)니 양백지간(兩白之間)이니 하여 보신보명(保身保命) 할 수 있는 최고의 땅으로 태백산을 꼽았다.

이러한 유풍은 삼한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그 때는 태백산 지역이 신성 불가침의 땅으로 소도(蘇塗)라 하여 둔피소(遁避所)의 역할도 하였으니 지금의 소도동과 소도당골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겨레의 토속 종교인 무교(巫敎)가 가장 성행하는 산도 태백산이다.

물의 근원, 산의 뿌리가 되는 산이고 그 산 정상에 천제단이 있으니 자연스레 민족신앙의 본산이 되는 것이다.

태백산 정상에는 옛부터 천왕당(天王堂)이 있어서 그 영험함이 가히 전국적으로 알려져 있고 전국의 유명 산당과 성황당에 태백산신을 함께 모신 곳이 많다.

태백산 기슭에서 정상 천제단(천왕당)으로 이어지는 모든 당골에는 당골(무당)들이 모여들어 천왕당과 신당, 제당, 굿당, 부정당, 장군당 등에서 굿하고 기도하니 과시 당골은 당골인 것이다.

무당(당골)이라 하면 태백산에 와서 기도하고 신내림을 해야만 무당으로서의 정통성과 신탁(神託)을 받을 수 있기에, 무당치고 태백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행세를 할 수 없다고 한다.



태백산을 오르다보면 골짜기의 큰 바위나 큰 나무 아래에 수많은 제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무당들이나 일반인들이 기도하는 장소인 것이다.

한 겨울 얼음과 눈 위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이 모두가 태백산의 영험함을 믿고 찾아와 기도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수천년을 두고 태백산이란 존재는 누대를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영험한 신산(神山)으로 각인되어져 있기에 사시사철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산이 높다고 명산(名山)이 아니며 산이 크다고 또한 영산(靈山)이 아니다.

산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요인과 산의 생명력, 산의 인문적 요건이 두루 갖춰져야 비로소 민족의 영산으로 숭배되는 것이다.

산이란 하늘로 오르는 사다리이자 하늘신이 강림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겨레의 정서이니, 태백산으로부터 모든 생명이 탄생되니 태백산은 어머니의 품이요 아버지의 팔다리이다.

산으로부터 생겨나 산에 의지해 사는 겨레이기에 산에서 나 산으로 귀의하는 순환적 고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겨레이다.

그러므로 산을 가꾸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우리의 터전을 깨끗이 하는 일이자 모든 생명의 근원을 살리는 일이며 우리 마음의 고향을 지키는 일이다.



## 청 동 거 울



장 성 유  
(동화작가)

독만이는 평생 골동품 가게점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독만이는 오래된 것들을 좋아했습니다. 이미 늙수그레 나이 든 독만이가 어두운 불빛 아래 오래된 것들을 매만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그보다 더 잘 어울리는 풍경은 없었습니다.

푸릇푸릇하게 녹이 낀 것을 보면, 독만이는 그 물건이 똥을 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래된 것만이 푸릇푸릇한 똥을 누 수 있다고 독만이는 생각했습니다. 독만이는 한 번도 그 똥이 더럽다고 여겨본 적이 없습니다. 그 푸릇푸릇한 똥이야말로 자기 빛깔을 만드는 힘이니까 말입니다.

오래된 것들은 자기만의 빛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한 가지 색깔로 만들어진 물건도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빛깔을 만들어 갑니다. 독만이가 오래된 것들을 좋아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빛깔! 그것은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빛깔인 것입니다.

독만이는 가게 주인과도 마음이 서로 잘 통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자신



이 죽게 되면 골동품 가게를 독만에게 주려고 일찌감치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한편 독만이는 단 한 번도 자신이 가게 주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일한 적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둘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든지 오래되면 철학자가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오래된 것들은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것들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깨끗하지도 않고, 퀴퀴한 냄새도 나고, 온통 금이 가고 흠집투성이인데다, 그다지 쓸모있어 모아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빛깔 따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새로운 빛깔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작은 골동품 가게는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게는 적자에 허덕이고 있었으므로 주인은 독만에게 밀린 월급을 줄 수도 없었습니다. 주인은 슬픈 표정으로 독만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독만이, 가게 문을 닫아야겠네."

그 말은 이제 독만이가 평생 일해 온 골동품 가게를 떠나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독만의의 진심이었습니다.

독만이가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이라면, 골동품 가게 바깥을 나가 한번 여행을 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사실 독만이는 오래된 것을 많이 만져 보았지만, 먼 곳에는 가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독만이, 이것뿐이라네."

주인은 먼지가 잔뜩 낀 청동거울을 독만에게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독만이는 전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청동거울이라도 하나 갖게 되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독만이는 그 청동거울을 아내에게 선물할 작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주인은 청동거울을 가리키며 독만이에게 단단히 일렀습니다.

"한 가지 명심할 게 있네. 그 거울은 절대 자신을 비추면 안된다네."

"거울은 자기를 비추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독만이는 스스로 바보스럽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되물었습니다.

"하지만 그 청동거울은 아니야. 어떤 사람이 내게 그 청동거울 팔 때 그러더란 말일세. 뭐라나, 그 청동거울로 자신을 비추면 절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운명이 된다고 말일세."

"그래요?"

그 말을 듣자 독만이는 몹시 애석했습니다. 청동거울을 아내에게 선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내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독만이에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주인은 말을 마저 마쳤습니다.

"그래서 난 그걸 팔지 못하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거라네. 그 청동거울을 자네에게 주게 될 줄은……."

주인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했습니다.

하지만 독만의의 대답은 한결 같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독만이는 청동거울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청동거울 여기저기 푸릇푸릇한 똥이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독만이는 먼 곳을 향하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알 수 없는 청동거울이 들려 있습니다.

골동품 가게에서 읽었던 책의 내용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독만이는 몹시



들뜨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 그런 곳에 자신도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곳이 독만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하늘에는 하얀 반달이 떠 있었습니다. 그 달이 독만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얼마나 외로울까! 저렇게 광활한 밤하늘을 혼자서 가다니…….'

하얀 달은 마치 독만이 자신 같이만 여겨졌습니다.

방금 별똥별이 떨어지자 독만이는 한없이 슬퍼졌습니다.

그 별똥별이 달이 흘린 눈물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독만이  
의 표정은 곧 밝아졌습니다. 독만에게 방금 좋은 생각이 스친 것입니다.

"달아, 너는 혼자가 아니다. 거울을 보아라."

독만이는 청동거울을 달을 향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랄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푸른 하늘에 달이 또 하나 생겨나더니, 슬픔에 젖은  
달을 향해 다가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독만이는 얼른 청동거울을 내렸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달은 하나가 되었고, 독만이는 안심하고 다시 길을 떠났  
습니다.

다음 날은 해가 무척 따갑게 내리쬘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햇빛을 가  
리기 위해 자신도 모르게 청동거울을 들었습니다. 갈수록 해가 뜨거워졌  
습니다. 독만이는 곧 타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무슨 일일까?"

독만이는 영문도 모른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상에! 해가 둘이 떠 있어!"



독만이는 그 때서야 자신이 청동거울로 해를 비추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개의 해는 성난 짐승의 눈처럼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다행이 그 마을에선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고 있었으므로 별 탈 없이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청동거울 안에는 이 세상과 똑같은 세상이 있는 모양이지?'

독만이는 무심결에 청동거울을 들었다가 화들짝 놀라며 다시 내렸습니다.

절대 자신을 비춰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주의를 주던 주인의 얼굴이 더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독만이는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생겨선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독만이는 꼭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겪은 온갖 신기한 이야기를 아내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느니, 청동거울 안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편이 훨씬 나아.'

그래도 독만이는 도대체 청동거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독만이는 고개를 갸웃하며 청동거울을 든 오른손을 흔들어 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이 들어 있는데 어쩌면 무겁지도 않을까?'

'그렇게 커다란 것이 빠져나갔는데 어쩌면 가벼워지지도 않을까?'

독만이는 세상이 참 넓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이 오래된 것이 틀림없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온통 푸르렀기 때문입니다.

독만이는 아름다운 산딸기 밭을 지나다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녹슨 솔이 그의 눈에 띈 것입니다. 그것은 한눈에 봐도 오래된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솔 가장자리는 이가 빠진 듯 떨어져 나가 있고, 눈군가 돌맹이를 집어던져 장난을 쳐댔던지 울퉁불퉁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솔은 얼



마나 오래된 것인지, 흠마다 푸룻푸룻한 것이 끼어 있었습니다.

'버려진 술이구나.'

하지만 그 버려진 술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곳에 있었을까, 생각이 들자 독만이는 술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독만이는 그 곁에 우두커니 앉았습니다.

그 때 어디선가 서로 싸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건 내 거야."

"아니야, 내가 먼저 봤으니 내 거야."

"두 동강으로 내자구."

"무슨 소리야? 주인이 따로 있는데!"

독만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이 금덩이 하나를 두고 서로 자기 것이라고 우기며 싸우고 있었습니다.

금덩이는 독만이가 슬쩍 집어가도 좋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만이는 금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상하게도 오래 되어도 푸른 똥을 누지 않기 때문입니다. 금은 세월이 지나도 늘 금빛일 뿐이었습니다.

독만이는 씹씹거리며 싸우고 있는 두사람을 간신히 떼어놓고 말했습니다.

"금덩이가 두 개라면 싸우지 않겠소?"

"그야 싸울 이유가 없지."

한 사람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우린 이웃 친구지. 우리가 싸우게 된 건 금덩이가 하나였기 때문이지."

나머지 한 사람도 뒤따라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독만이는 청동거울로 금덩이가 또 하나 생겨나게 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두 사람은 눈을 비비며 금덩이 두 개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두사람은 뺏기기라도 할까 봐 슬며시 금덩이를 호주머니에 넣고 있었습  
니다.

"무엇으로 감사를 드려야 할지……."

한 사람이 손을 찌죽 찌죽 비비며 말했습니다.

그 때 나머지 한 사람이 호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끄집어냈는데, 그의 붉  
은 손바닥 위에 작은 성냥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독만이는 번뜩 스쳐 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것이면 좋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짓궂게 웃더니 사라졌습니다.

독만이는 돌을 모아 아궁이를 만들고 불을 지폈습니다. 솔이 갈라졌다  
면 연기가 솔단지 안에서 피어오를 것입니다. 만일 솔이 멀쩡하다면 독만  
이는 차라도 한 잔 끓여 먹고 싶었습니다. 연분홍 노을이 산 언저리를 물  
들이고 있어 아주 그럴싸한 분위기도 만들어졌습니다.

솔에서 연가기 피어오르자 독만이는 실망했습니다. 솔이 새는 게 틀림  
없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뒤 들려오는 소리는 그게 아닌  
것 같았습니다.

부글부글 뽕뽕 뽕그르 부글부글…….

게다가 맛있는 냄새가 독만이의 코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독만이는 군  
침이 절로 돌았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솔 단지에서 먹음직스러운 음식이  
끓어오르고 있지 않겠습니까!

'신기한 솔도 다 있구나. 먹을 것이 절로 생기는 화수분이 있다더  
니…….'

독만이가 실컷 배물리 먹고 트림을 하자 솔은 이전처럼 깨끗해졌습니  
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갈 길이 천리라도 솔단지를 기어코 메고 갔을 것입  
니다. 그러나 독만이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독만이는 아내가 음식을 만



기 위해 커다란 엉덩이를 들썩이며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신기한 솔이긴 했지만 독만이는 그냥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만일 솔단지를 집에 가지고 갔다면 아내는 솔단지처럼 한 곳에 처박혀 버릴 게 뻔했습니다.

독만이는 다시 먼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어느 날 독만이는 쉬어갈 곳을 찾으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침 떡갈나무 한 그루가 눈에 띄었습니다. 나무는 우람하고 높았습니다. 그 나무는 오래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굴참나무에 푸릇푸릇한 이끼가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독만이가 떡갈나무에 기대어 막 잠이 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독만이, 난 도토리가 많이 필요해."

그 소리는 나무 안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다 떨어지고 말 건데, 뭐."

독만이는 졸음에 겨워 대충 말했습니다.

"누군가 주워가라고 떨어지는 거라네."

"누가 이 깊은 곳까지 와서 흔하디 흔한 도토리를 주워 가겠나?"

"이 사람아, 투덜거리지 말고 내 원을 들어 주게."

독만이는 겨우 졸음을 이기고 떡갈나무를 향해 청동거울을 비추었습니다.

그러자 떡갈나무 가지들이 하나 둘 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도토리가 얼마나 실하고 많이 열렸던지 가지들은 무게를 감당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독만이가 재빨리 청동거울을 치우지 않았다면 가지는 우지끈, 하고 부러지고 말았을 겁니다.

잠시 후 언덕 아래에서 기다란 자루를 맨 소년이 나타났습니다.

소년이 떡갈나무 쪽으로 걸어오자 독만이는 나무 뒤로 가서 몸을 숨겼



습니다. 독만이 머리 위에도 도토리가 우박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년은 낡고 때에 절은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으며, 신고 있는 신은 실밥이 터진 데다 신발 끈조차 달아나고 없었습니다. 소년이 자루를 내려놓자, 헤어진 옷 사이로 자루를 메고 오르느라 힘들었을 작은 어깨가 붉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소년은 목련꽃보다 커다랗고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바닥에 수북히 쌓인 도토리를 보고는 입을 다물 줄 몰랐습니다. 매년 해마다 이곳으로 도토리를 주러 왔지만, 이렇게 많이 도토리가 열렸던 적은 처음이었던 것입니다.

"나무야, 고마워. 나는 해마다 이곳에 와서 도토리를 주어 갔지. 도토리를 팔아서 할머니 약도 사다 드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홍시도 사다 드렸단다. 할머니는 늘 그러셨어. 그 떡갈나무한테 언제 한 번 놀러 가려나....."

소년은 차마 말을 잊지 못하였습니다.

소년은 늘어진 가지 하나를 붙잡으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아직도 너의 잎은 싱그럽기만 하구나. 장터에 가면 모두 내 도토리를 사려고 줄이 늘어졌단다. 너는 늙어도 네 잎사귀 속에서 자라는 열매는 언제나 아기 같구나."

독만이는 나무 뒤에서 소년이 하는 얘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소년의 목소리에 점차 슬픔이 잠기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의 목소리는 가느다랗게 떨고 있었습니다. 독만의의 귓전에 떡갈나무 잎사귀가 바람결에 '싸르륵'하고 떠는 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나무야, 내 소원이 한 가지 있었단다. 우리 할머니가 너만큼 오래 사는 거!"

소년은 이제 도토리 하나를 주어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야, 왜 사람은 오래 살 수 없는 것이지? 누구나 오래 살면 죽는 것



이니?"

소년은 입술을 씹룩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 소년의 할머니가 돌아가셨구나!'

독만이는 소매 끝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무야!"

이제 소년의 목소리에는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무야, 난 이제 이곳에 오지 않아. 먼 곳으로 가거든."

독만이는 떡갈나무 가지 하나가 툭 부러지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야, 나도 너에게 뭔가를 주고 싶어."

소년이 말했습니다.

독만이는 나무 뒤에서 생각했습니다.

'저 소년에게서 받을 수 있는 게 뭐란 말인가!'

이윽고 독만이는 생각에 잠겨 있다가 속삭였습니다.

"소년아, 네게 쓸모 없는 것을 다오."

"쓸모 없는 것은 없단다."

소년이 말했습니다.

잠시 뒤 소년은 작은 단추 하나를 나무 앞에 놓았습니다.

"나무야, 네게 줄 것은 이것 뿐이란단다. 하지만 이건 아주 오래된 거야. 할머니 옷에 달려 있는 단추란다. 나무야,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 단추를 꼭 잠그지 않으면 가슴에 바람이 들어 못 쓰게 된다고 말야. 이제 겨울이 오면 추울테니 너도 단추를 꼭 잠그고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렴."

소년은 곧 사라졌습니다.

소년이 언덕 아래로 가뭇없이 사라지자 떡갈나무도 힘없이 기울고 말았습니다. 오직 떡갈나무는 소년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버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독만이는 소년이 남기고 간 단추를 품에 넣었습니다.



오래된 것이 그렇듯, 소년의 단추 역시 가장자리가 닳아 있었고 깊이 가라앉은 듯한 빛깔을 띄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좋아했다는 홍시처럼 붉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사뭇 불그레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독만이는 다시 먼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걸어가는 길 위에 낙엽이 한 장 두 장 쌓이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자신의 발자국이 한없이 쓸쓸하게 느껴졌습니다. 서늘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단추 덕분인지 독만의 가슴은 어느 때보다 훈훈했습니다.

멀리서 양지바른 붉은 벽 아래 쪽마루가 걸쳐 있는 게 보이자 독만이는 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붉은 담과 쪽마루는 오래된 집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었습니다.

독만이가 청동거울과 함께 한 여행에서 매번 겪었듯이, 그곳 역시 버려진 집이었습니다. 집은 허물어지고 간신히 벽 한 장이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붉은 벽에 얼굴을 갖다 댔습니다. 얼굴에서 목, 저 아래 발끝까지 전해지는 기분이 얼마나 따스한지 독만이는 저절로 눈이 감졌습니다.

무슨 소리가 들린 것은 바로 그 때였습니다. 독만이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가냘픈 짐승이 마지막 숨을 몰아쉬듯 가르랑거리고 있는 딱한 소리였습니다. 독만이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이런! 돼지를 버리고 갔구나.'

가엾은 돼지 한 마리가 우리 안에서 힘없이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만이를 발견한 돼지는 어떻게 힘이 솟았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내 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뭐든지 먹을 걸 줘요!"



돼지는 얻어진 채 팔팔거렸습니다.

독만이는 궁색했습니다. 독만이는 단추를 꺼내 보여 주었습니다.

"돼지야, 이 것 밖에 없단다."

"그거라도 주세요."

"아니야, 이걸 먹는 게 아니야."

"지금은 뭐든지 먹고 싶거든요. 뭐든지!"

"그래도 이걸……, 단추거든."

"단추? 당장 먹고 싶어요. 먹음직스러워요!"

돼지는 독만이의 태도에 변함이 없자 이렇게까지 말했습니다.

"태어나서 먹어 본 가장 맛있는 음식이 될 거예요."

독만이는 난감했습니다.

하지만 한편 이런 생각을 하며 스스로 위로했습니다.

'좋아, 이렇게 작은 단추를 먹는다 해도 별 문제는 없을 테지? 다시 똥으로 나올 게 분명해.'

돼지는 단추를 삼키더니 배를 툭툭 차며 금방 잠들었습니다.

돼지가 똥 누기만을 기다리던 독만이라도 뒤따라 잠들었습니다.

우리 바깥에는 낙엽이 떨어지고 찬 서리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돼지와 독만이가 잠든 우리 안에는 훈훈한 바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때 한 쪽 구석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것이 수북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뭔가 반짝, 하고 빛났습니다. 독만이는 당장 구석으로 달려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빛나는 것은 똥이고 반짝, 하고 빛나던 것은 단추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웬일이겠습니까!

돼지가 싸 놓은 것은 다름 아닌 황금 똥이었습니다.

단추는 온데 간데 찾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돼지는 그 때서야 부스럭거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돼지는 아무 잘못도 없다는 눈으로 멀뚱멀뚱 독만이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돼지의 한 마디는 독만이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을 것 같아요."

독만이는 피식 웃었습니다.

고리고는 이곳에 남겨 두고 갈 돼지를 생각하니 이내 마음이 쓰려 왔습니다.

"미안해. 난 너를 데려갈 수 없단다."

여느 사람 같았으면 황금 똥을 누는 돼지를 그냥 두고 지나쳤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독만이는 아무런 미련조차 없는 표정입니다. 아내는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돼지 똥은 두엄을 만드는데 최고라고 말입니다.

'두엄을 만들지도 못할 황금 똥!'

만일 황금 똥을 누는 돼지를 데려 갔다가 아내에게 어떤 편잔을 들을지 독만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 뒤 돼지가 말했습니다.

"왜 데려갈 수 없어요?"

"네 똥은 두엄을 만들지 못하거든."

사실, 돼지는 독만이보다 더 서운했습니다.

"전에는 나도 두엄을 잘 만들었는데……."

독만이는 다시 먼 곳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싸락눈이 독만이 머리 위에, 어깨 위에, 동그란 콧잔등에도 내려앉았습니다.

얼마쯤 가다 보니, 자신처럼 똑같이 눈을 맞고 서 있는 돌부처가 나타났습니다. 다만 독만이 코에 내린 눈은 금방 녹아버렸지만, 돌부처 코에 내려앉은 눈은 여전히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우뚝 서서 경이로운 눈으로 돌부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골동품 가게 밖에서 발견한 가장 오래된 것이었던 것입니다. 돌부처는 푸릇푸릇한 빛깔의 마른 이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푸릇푸릇한 것은 다름아닌, 바위가 눈 똥이었습니다.

저 건너편에서 돌부처만큼 늙은 노인이 징검다리를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아하니, 징검돌 하나가 빠지고 없었습니다. 물살에 떠 내려 간 게 틀림없습니다.

'만일 노인은 다리를 헛짚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독만이는 아찔했습니다.

갑자기 물살이 얼마나 거칠고 빠르게 느껴지는지, 독만이는 팔팔거리는 물소리에 귀가 멍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독만이는 자신에게 청동거울이 있다는 것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벌떡 일어나 노인을 향해 무작정 달려갔습니다. 자신이 커다란 한 걸음이면 징검돌 하나쯤 거뜰히 건너뛸 수 있을 것입니다.

노인은 숨을 헐떡거리며 나타난 독만이를 올려다보더니 한 번 쓰윽, 웃어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노인의 콧잔등의 눈도 돌부처처럼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어디로 가십니까?"

독만이는 노인을 업었습니다.

"저기."

노인은 돌부처를 가리켰습니다.

"아! 저기요."

독만이는 혼자서 웃었습니다. 사실 그 돌부처 곁에 오래 머물고 싶었던 것입니다.

"돌부처는 무슨 일로……."



"치성을 드리러."

그뿐이었습니다.

노인과 독만이는 서로 말이 없었습니다.

물살은 조용하게 징검다리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돌부처 앞에 서더니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절이 지나고 해가 뉘엿뉘엿해질 때까지 노인은 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이제 몸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원망스런 눈길로 돌부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아직 노인의 원을 들어주지 않는 거요?'

돌부처가 독만이 생각을 읽었는지는 몰라도, 노인은 비로소 절을 멈추고 허리를 세웠습니다. 독만이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돌부처가 원을 들어주신 거로군요?"

노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달랠 뿐이었다네."

"....."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네. 이제 다시는 아들을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나를 못 견디게 한다네."

"아! 그러셨군요."

독만이는그만 울컥해졌습니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 자식은 부모의 가슴에 무덤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는 죽는 날까지 그 자식을 가슴에 담아 두어야 하고, 자신이 죽는 날 비로소 그 자식을 잊을 수 있게 된다고……. 누가 이 노인의 딱한 사정을 도울 수 있을까! 돌부처가 이 노인의 원을 들어 준 게 아니라면!

독만이는 그 때서야 잊고 있었던 청동거울이 떠올랐습니다.

"어르신! 저에게 신기한 청동거울이 있습니다."



독만이는 청동거울로 노인에게 또 다른 아들이 생길 수 있으며, 그 아들은 노인의 전 아들과 똑 같은 생김새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독만이가 말하고 있는 동안 노인의 표정은 돌부처처럼 변함이 없었습니다.

"원하지 않으시군요?"

"그렇다네. 이보게, 내 아들은 하나뿐이라네."

노인의 표정은 아직 굳어 있었습니다.

"예……."

"내게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오래 살았던 바로 그 아들이라네."

독만이는 낮이 뜨거워졌습니다.

청동거울이 너무나 하잘것없이 여겨졌습니다. 청동거울이 무겁다고 느껴본 것도 지금이 처음이었습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오래된 것만이 자신과 생명을 나눌 수 있다네."

"아! 그래요!"

독만이는 몸이 텅 비는 것처럼 가벼워졌습니다.

이상하게 그 순간 독만이는 아내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노인이 말하고 있는 주인공이 바로 자기 아내인 것 같았습니다. 노인은 아주 오래된 옛 이야기를 읊조리듯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보게,

모든 것들은 다 죽는다네.

모든 것들은 다 살아나기도 한다네.

죽는 것들은 다시 태어난다네.

죽지 않으면 태어날 수도 없다네.

우리 모두 잠들어 있는 곳.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말일세.

바로 그곳에서 죽었던 것들이 모두 살아난다네."



노인의 눈은 물처럼 투명하게 빛났습니다.

어인 일인지 노인의 코에는 아직 눈이 녹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코에는 어떻게 눈이 쌓이지요?"

독만이는 기어코 물어 보고 말았습니다.

"이 코 말인가?"

노인은 자신의 코를 가리키며 웃었습니다.

"예. 코가 시리지 않으세요?"

"허허! 그야 털면 그만이지."

노인은 '푸우-' 하고 입김을 불어 코에 쌓인 눈을 날려 버렸습니다.

어디선가 시원한 바람이 불더니 돌부처 코에 쌓인 눈도 흩어졌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일어나 다시 절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덧 새벽이었습니다. 날이 희부옇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노인을 지켜보고 있다가 깜박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독만이  
가 깨어났을 때 노인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노인이 절을 하던 그 자리에는 작은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씨를 담  
아 두는 씨오쟁이였습니다. 독만이는 잠자코 있는 자신을 깨울 수 없어 노  
인이 그렇게 던져두고 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독만이는 노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설  
핏하게 내려앉은 눈 위에 노인의 발자국이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

노인의 발자국을 따라가던 독만이는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노인의 발자국이 돌부처 뒤에서 끝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노인이 바로 돌부처였구나.'

돌부처 코에는 또 다시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독만이는 돌부처 앞에 절을 꾸벅하고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눈발이 점점 굵어졌습니다.

눈이 녹을 새도 없이 함박 내렸기 때문에 독만이의 코에도 제법 눈이 쌓였습니다. 길을 걷던 독만이는 스스로 아주 먼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얼마나 오래 떨어져 있었나 생각도 했습니다.

독만이는 아내가 어떤 빛깔이 되어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뿐인 빛깔! 어느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그 빛깔 말입니다.

이런 저런 생각에 빠져 있던 독만이는 미끈땡, 하고 무언가 짓밟고 말았습니다.

뿌직, 하고 진흙덩이가 튕겨 나갔습니다.

독만이는 슬며시 발을 들었습니다. 진흙 바닥이 움푹 패이고 말았습니다. 독만이는 진흙 바닥이 입을 썉 벌리고 있는 모양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에게 아프다고 소리치는 것 같기도 하고, 배가 고프다고 하소연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독만이는 너무나 미안한 마음에 씨를 모조리 털어 넣어 주었습니다.

얼마 후 독만이는 높은 언덕에 올라섰습니다.

온 세상이 하염없이 펼쳐지는 곳이었습니다. 하염없이 펼쳐진 그곳은 온통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산도, 들도, 나무도, 모두 모두 하얀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독만이도 어느덧 하얀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먼 곳이구나."

더 이상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독만이는 이 세상 가장 먼 곳에 온 것입니다.

"아! 이곳이 노인이 말하던 그곳이구나."



독만이는 노인처럼 옛 이야기를 읊조리듯 흥얼거렸습니다.

"우리 모두 잠들어 있는 곳,

우리가 눈을 감고 있어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서 말일세.

바로 그곳에서 죽었던 것들이 모두 살아난다네."

자기만의 빛깔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온 세상은 하얗게 덮여 있을 뿐입니다.

자기만의 빛깔을 가지기 전의 세상이었습니다. 더 이상 독만이가 좋아하는 오래된 것들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푸룻푸룻한 똥을 누는 것들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날 거야!"

독만이는 하얀 세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겪은 신기한 이야기를 들려 줄 아내를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만이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땅에서 작은 새싹이 생겨나올 때 독만이는 처음으로 쉬었습니다.

독만이는 새싹을 만지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땅이 겨울 내내 잠들어 있다가 이제 똥을 누기 시작했어. 푸룻푸룻한 똥 말이지! 하얀 세상에 다시오래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

그리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곧 모든 게 제 빛깔을 띄게 될거야!"

독만이는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독만이는 이 모든 이야기를 하고 싶어 미칠 것 같았습니다.

돌아오던 길에 독만이는 덩굴이 자라 오른 대궐같은 집을 보았습니다.

독만이가 입을 벌린 진흙에게 씨를 털어 넣어 준 그 자리였습니다.

황금 똥을 누던 돼지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황금 똥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녹슨 솔도 여전히 음식을 끓이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독만이는 한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독만이는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 밝고 허름한, 너무도 오래된 문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것을 좋아하는 독만이, 그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그 오래된 문은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여보!"

그러나 그의 아내는 그저 물끄러미 독만이를 쳐다볼 뿐입니다.

독만이를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뒤, 아내는 널고 있던 빨래를 떨어뜨리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대단한 선물을 갖고 왔군요!"

독만이는 빈 손으로 온 자신이 갑자기 미웠습니다.

아내는 더욱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죽었던 당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왔으니 말예요!"

독만이는 청동거울을 냅다 던지고 아내를 얼싸안았습니다.

그 날 밤, 독만이는 자신이 여행하면서 겪은 신기한 일들을 아내에게 남김없이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알겠지, 여보? 오래된 것들은 푸룽푸룽한 똥을 눈단 말이지. 그건 말이지, 다 새로 태어나려고 하기 때문인 거야."

"세상에! 당신은 변한 게 없군요. 그런데 그 청동거울은 어디 있는 거예요?"

"어?"

독만이는 그 때서야 아내가 반가운 나머지 청동거울을 냅다 던져버렸던 게 생각났습니다.

"내 정신 좀 보게. 마당에 던져버렸던 것 같아."



"여보, 그렇게 중요한 것 던져버리다니."

"난 당신이 너무나 반가운 나머지……."

"그래도 그렇죠. 당신은 변한 게 없군요. 종종 뭐가 더 중요한지 모른다니까요!"

아내는 청동거울을 주우러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잠시 후 독만이는 아내를 뒤쫓아 서둘러 뛰쳐 나갔습니다.

"여보, 그 거울은 절대 자신을 비쳐 보아선 안 돼."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똑같은 생김새를 한 두 아내가 어둠 속에서 독만이를 향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 아내가 둘이 되었어!"

독만이는 무릎을 치며 탄식했습니다.

하지만 독만이는 누가 자신의 오래된 아내인지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독만이는 오래된 것에 대해 전문가니까 말입니다.

아내는 코 아래 검은 사마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내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햇빛에 비치면 속이 확 비치면서 푸릇푸릇한 빛이 났습니다. 그것은 오래 되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거울에서 나온 아내는 그 검은 점이 언제나 검게 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래된 아내가 시름에 잠겨 있더니 독만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여보, 어떤 이유에서든 당신에겐 두 아내가 생겼어요. 한 아내만 사랑하는 건 남편으로서 도리가 못 돼요."

독만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독만이는 두 개를 동시에 좋아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 개를 동시에 좋아할 수 있는지 오히려 그 방법을 물어보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도 잘 알다시피, 난 오된 걸 좋아해."

어느 날 독만이의 오래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청동거울을 당신에게 비추면 어떨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독만이는 펄쩍 뛰었습니다.

"그건 안 돼! 그 청동거울로 절대 자신을 비추지 말라고 했어."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청동거울을 쥔 독만이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오래된 아내의 말대로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전부터 가끔 청동거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했었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확인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독만이는 한편으로는 겁이 나고 한편으로는 호기심에 차서 청동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에?'

독만이의 실망은 이만저만 큰 게 아니었습니다.

청동거울 안에는 또 다른 독만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거울 저편의 비친 독만이는 빙긋이 웃고 있었습니다. 거울 이편의 독만이는 쩡그리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 뿐이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아니면 내가 아닌가? 아니면 저게 나인가?'

쩡그린 독만이는 그의 오래된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 거지?"

그러자 오래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저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어요."

"그 생각은 나도 마찬가지야."

독만이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지?"

오래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난 평생 이 오래된 집에서 살아왔는데, 당신이 여행한 곳을 나에게도 구경시켜 줄 수 없어요?"



역시 오래된 아내는 지혜로웠습니다.

독만이는 그거야말로 가장 자신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절로 솟는 술단지에 황금뚝을 누는 돼지, 덩굴로 엮어진 대궐 같은 집! 그러다 문득, 독만이는 청동거울을 자신에게 비추면 집으로 절대 돌아가지 못한다던 골동품 가게 주인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보, 어쩌면 우린 집으로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뭐 어때요?"

사랑스럽고도 오래된 아내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여보! 절대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어!"

그러자 오래된 아내는 독만이에게 눈을 흘겼습니다.

"아니, 여보! 우리가 돌아오면 저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독만이는 아내와 함께 다시 먼 곳을 향해 여행을 떠났습니다.

따라가던 바람 한 자락이 두 부부의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해줄 뿐입니다.

"여보, 사람들이 우리가 먼 곳으로 떠난 걸 아무도 모르겠지?"

"그렇겠네요."

"하지만 우리가 저들보다 오래된 건 틀림없는 사실이야!"

"당신도 참! 우린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흠! 여보."

"또 무슨 말 하려고요?"

"잊지 마. 오래된 건 정말 아름다운 거야."

"알아요! 자기만의 빛깔을 갖고 있으니까요?"

"그게 다 푸릇푸릇한 뚝 때문이거든."

"당신도 참! 그러고 보니 벌써 당신 이마 위에 푸릇푸릇한 버섯이 피었군요."

"당신 코 밑에 점도 푸릇푸릇한 걸."

미국이 아프간을 공격하던 2001. 10. 7~8. 쓰다.



## 제17회 태백시 남,녀 백일장

중 등 부			고 등 부		
시	▷ 철쭉 ▷ 함성이 들리네 ▷ 그 날의 함성 ▷ 너희들이 부러워 ▷ 자화상의 그 너	백소영 윤관용 이서진 홍선진 김남윤	시	▷ 사랑의 길 ▷ 아름다운 축제 ▷ 철쭉 ▷ 새로운 길을 걸어 가리	남철민 민지현 김관태 한송이
시조	▷ 소녀의 사춘기 ▷ 아직은 작은 씨앗 이지만 ▷ 철쭉 ▷ 바람의 속삭임 ▷ 고향에서 오던 길 에	진원미 전세희  안소영 김미정 손해영	시조	▷ 길 위에..... ▷ 나의 바람 ▷ <del>길의 소망</del> ▷ 월드컵 ▷ 산길 ▷ 길	손수진 김가람 오지은 박용성 박용백 박홍석
산문	▷ 집으로 가는 길 ▷ 나의 인생길 ▷ 생각을 주는 길 ▷ 한,일 두 나라의 미소 ▷ 의미있는 길?	주미진 김다혜 유지은 김선영  이보희	산문	▷ 어린 철부지를 성 ▷ 숙하게 한 길 ▷ 세계를 하나로 ▷ 행복찾기 ▷ 내 꿈을 담은 길 ▷ 진흙길	이명수  김혜실 김홍석 전명란 이청호



## 사랑의 길

황지고등학교 2학년 2반

남 철 민

그대들은 볼 수 있는가  
길의 마음 끝에서 흘러 나오는  
사랑의 모습을

그대들은 들을 수 있는가  
길의 마음 끝에서 흘러 나오는  
사랑의 노래를

그대들은 맛볼 수 있는가  
길의 마음 끝에서 흘러 나오는  
달콤한 사랑을

그대들은 만질 수 있는가  
길의 마음 끝에서 흘러 나오는  
사랑의 얼굴을

그대들은 맛을 수 있는가  
길의 마음 끝에서 흘러 나오는  
사랑의 향기를



나는 사랑의 길이 되어  
나의 마음 끝에서 흘러 나오는  
사랑을 전하고 싶다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처럼  
나도 사랑의 길이 되어  
사랑을 전하고 싶다네

사랑의 길은 영원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랑의 길을  
영원히 가고 싶다네



## 아름다운 축제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4반

민지현

언제나 멀게만 느껴졌었던  
그토록 기다려 온 바로 그 날  
전 세계의 아름다운 축제가  
이제 곧 눈을 뜨려 한다.

세계인의 시선을 받으며  
그 넓고 포근한 잔디밭 위에서  
앞을 바라보며 힘차게 뛰어나갈  
세계 축제의 주인공들

그 날만을 기다리며  
고통과 힘겨움 속에서  
함께 싸워나가고  
이겨 나갔을 그들

그들과 전 세계인들의  
공통된 바람과 소망  
이제 그 결실의 열매를 맺을  
시간이 다가왔다.



함께 맞서 싸워 나갈  
또 다른 주인공들  
붉은 색 옷을 입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젊은 열정을 내보이는 붉은 악마들

세계인들의 몸과 마음을 함께 나누어  
하나되어 지켜보아야 한다  
짧지만 긴 축제가  
아름답게 끝날 수 있도록.....





## 철 쪽

황지고등학교 1학년 3반

김 관 태

그 화려함에 누구를 기다리는지  
알 수 없는 연분홍빛 붉은 철쪽아

네 화려함에 감춰진 소박함에  
나는 어린 아이가 된 것 같구나

분홍 비단 위에 노니는 나비를 보며  
나와 너는 분홍빛 꿈에 젖는다

그 꿈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나는 한 마리 나비가 된 것 같구나  
꿈속에서 핀 붉은 철쪽아

나는 지금 가슴 속으로 모든 염원이  
너의 붉은 빛처럼 물들어 가기를  
바람에 휘날리는 너를 보며 빌고 있다.



## 새로운 길을 걸어가리……

장성여자고등학교 2학년 2반  
한 송 이

산에서 강으로  
강에서 바다로  
새로운 나의 길을 걸어 가리라……  
새로운 길을 걸으며……  
싱그러운 푸른 빛의 풀잎들과  
말갱게 솟아오른 아지랑이를  
피어 올리리라

새로운 길을 걸으며  
순하디 순한 어린 짐승과  
함께 뛰놀며 맑은 눈으로  
푸른 하늘을 바라보리라

새로운 길을 걸으며  
슬픈 영혼들의 이루지 못한  
원한과 애원을 달래 주며  
이제는 말할 수 있노라  
대답해 주리라……



이제 나의 새로운 길을  
걸어 가노니.....  
어둠이 달을라치면  
아무 기약도 없이 날아갈 수 있는  
한 마리의 새가 되리라.....





## 길 위에……

황지정보산업고등학교 2학년 4반  
손 수 진

그 위에 모두 있다.  
고개 떨군 사람의 발자국 있고  
하늘, 가슴 가득 담은 사람의 발자국 있다.  
눈물 한 방울 떨구어 있고  
웃음 가득히 스미어 있다.

평화롭던 그 곳에 거대한 무언가 밀고 나간 자리는  
단단한 냉정함 배어 있건만  
그 위에 모두 있다.  
사람 있고 키 작은 풀 있고  
지나온 발자국 있다.

자연이 지키우던 평화는 눈을 감았건만  
단단함 속에도 그 곳을 지나온 발자국은  
그 위에 평화를 지키고 있다.

단단한 그 위에……  
모두 있다.



〈제17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고등부 시조 장원〉

## 나의 바람

장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김 가 램

밤낮없이 연습한 한국의 선수들  
경기장 함성소리 의지의 국민들  
우리의 하나 바람은 월드컵 우승이다.

다시한번 생각하자 우승보다 중요한 것  
우리의 밝은 미소 온 세계가 지켜보네  
한국의 친절 월드컵 한맘으로 이뤄내세

〈제17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고등부 시 장원〉차상

길의 소망

황지정보산업고 3학년 1반

오지은

아느냐 모르느냐 이 길의 외로움을  
혼자가 아니라고 외치는 내 슬픔을  
안다면 이제 더 이상 날 외면하지 말아라



## 월드컵

황지고등학교 1학년 4반

박 용 성

자구가 해 주위를 네 바퀴 돌 때마다  
우리는 둥그런 공 하나가 되어가네  
월드컵 세계인을 모두 담은 둥근 바구니

달력을 네 번 켜 갈아 끼울 그 해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둥글게만 보이네  
월드컵 볼 수 없는 마음의 도둑일세

나이테 네 줄씩 늘어 갈 때마다  
우리는 하나되어 큰 함성 지르네  
월드컵 세계인의 가사없는 노래일세



<제17회 태백시 남녀백일장 고등부 시조 차하>

## 산 길

철암고등학교 3학년 1반

박 용 백

조그만 오르막 길 조용히 걸어본다  
자주빛에 철쭉숲 저녁놀에 아름답다  
서러운 저 피넛골 오늘도 무심하다





## 길

황지고등학교 2학년 3반

박 홍 석

내 위를 걸어가야 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어줄 수 있다면  
오늘도 하늘을 보며 간절히 기도한다.

어디로 가는지도 무엇을 향해 가는지도  
누구를 위해 가는지도 알 수 없는 나이지만  
언제나 그 자라에서 눈물로 기도한다.

굽어 도는 힘겨움과 아픔들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의 생명이 되어 오늘도 기도한다



## 어린 철부지를 성숙하게 한 길

황지고등학교 이명수

나는 우리 가족 중 막내이다. 우리 가족을 소개하자면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나, 이렇게 다섯식구이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25년 차이가 난다. 그 속에서 나는 막내로 태어나 귀여움을 받으며 자랐다. 그런데 그것도 중학교 2학년 초까지였다.

중학교 2학년 1학기 방학이 끝나고 개학날이 되었을 때 난 눈물을 흘리며 집으로 달려가게 되었다. 우리 집 장남인 형이 급성골수성 백혈병이란 소식을 듣고 말이다. 황급히 집으로 달려갔을 때 집안은 오직 침묵만이 흐르는 분위기였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며 태백에서의 치료가 어려워 강릉에 입원한 형에게 찾아갔다. 그런데 내가 도착해서 형의 모습을 보았을 때 형은 그냥 날 보며 지긋이 웃기만 했다. 내가 걱정할까 봐 그랬나 보다. 강릉에서 몇 일을 보낸 후 나는 학교 때문에 집으로 다시 돌아왔다.

아버지, 어머니께서는 병원에서 자리를 지켜야 하셨기 때문에 집엔 나와 누나 뿐이었다. 그 때 누나는 직장생활을 하였고 그러한 이유로 나는 혼자서 집에 있는 경우가 많았다. 아무에게도 말은 못했지만 난 혼자서 많이 괴로워했고 슬픔 만이 항상 내 주위에 가득했다. 그래서 난 그걸 이겨내지 못하고 탈선의 길로 빠져들었다. 폭력써클에 가입해서 싸움도 하고 다니고 써클 친구들과 술도 마시고 다녔다. 거기에서 난 위안을 얻으려 했다.



나의 슬픔이 그토록 컸던 이유는 형의 그동안의 모습 때문이었다. 우리 형은 초등학교 문턱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17살 때부터 시장 골목에 있는 기름 짜는 가게에서 배달을 하는 일을 했다. 병이 찾아오기 전 24살 때까지 형은 정말 성실하고 착한 효자였다. 일을 마치고 나면 일흔에 가까우신 아버지께서 손에 물을 대시진 않으실까? 편찮으시진 않으실까? 걱정을 하며 집으로 돌아와 형이 밥을 하고 찌개를 끓이며 손수 아버지를 대접하고 식사를 마친 후에는 어머니께서 고생을 하신다 하여 부엌일을 혼자서 다 해결하고 나서 집에서는 나와 놀아주었다. 형은 한 달에 한번 휴가가 있었다. 그런데도 형은 집안 일을 돌보며 때론 나와 시간을 보내곤 하였다. 월급을 받으면 고스란히 아버지께 갖다 드리고 거기에서 아버지는 형에게 용돈으로 8만원을 주셨다. 그런데도 형은 시장에서 갖가지 심부름을 하여 모은 돈으로 적금까지 들었다. 그러한 형이었기에 난 그 슬픔이 더 컸던 것 같다.

그런데 결국 형은 병원에서 3개월을 고생하다가 숨을 거두었다. 그 후로 우리 집은 참 암울했다. 막대한 치료비로 가정 형편은 많이 기울었다. 누나는 시집을 가고 남은 건 나 하나였다. 어머니는 나 때문에 혼자서 식당에 나가시며 돈벌이를 하신다.

그런데 철없는 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말썽만 부리고 사고만 쳤다. 그런데 점차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약간의 희생은 있었지만 씨클에서 탈퇴했다. 고 3이 된 지금은 남들보다 성실하고 더 열심히 공부한다. 그래서 지금은 성적도 상위권이다.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때의 아픔과 인고의 길에서 비롯된 거 같다. 형의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말이다. 한 때 어리석었지만 이제는 부모님께 효도하고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 시간을 다시 되새기며 열심히 생활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걷고 있는 이 길은 또 하나의 시작이며 출발점이 될 것이다.



## 세계를 하나로

장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2반

김혜실

올 해 우리 나라에서 월드컵이 개최된다. 일본과의 공동개최인 이번 월드컵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는지가 큰 쟁점인데, 내가 생각하는 월드컵은 이러한 생각들은 떨쳐버리고 다르게 생각을 한다.

21 세기에 들어서서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시 하는 게 세계화가 아닌가 싶다. 오늘날 여러 방향으로 세계화가 진전되었지만 결코 국민들 모두가 세계화가 될 수 있는 일이 결단코 많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월드컵은 온 국민이 하나가 됨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세계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의미만으로도 월드컵은 진정으로 세계촌의 축제라 불러도 마땅하다.

우리의 마음이 내 안에만 머물러 있다면 결코 타인과 하나가 됨은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둘을 하나로 만들고, 셋을 하나로 만들고, 심지어는 수백, 수천만의 사람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위대한 힘이 결코 어디에 쉽게 있지 않다.

"월드컵!" 이 세 글자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도 위대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월드컵 축구 경기를 보면서 느끼는 그 통쾌함과 가슴이 뭉클해짐은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내가 그동안 월드컵이라는 어떤 세계적인 축제를 그냥 무심코 지나쳤던 것이 무척 후회스럽다. 그저 우리 나라 국가 대표 선수들이 다른 나라의 선수들과 경기를 하는 정도로만 보던 그 축제는 올해 나에게 새롭게



다가왔다.

축구경기 한 번 한 번이 단순한 경기가 아닌, 하나라는 결속력을 깊이 느낄 수 있게 해주었다. 내가 어딘가에 속해 있다는 그 소속감과 함께 세계로 뻗어 나간다는 작은 자신감도 심어 주었다.

세계를 멀리에서 바라보지 않고 내 앞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서 이제는 내가 더 이상 한국인이 아니라 세계인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세계의 지구촌 축제 월드컵이 올해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고 바로 내일 개막식 행사가 있다. 그 기다리던 세계의 단일된 모습을 바로 내일 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나! 바로 한국인들은 자긍심과 더불어 2002년 월드컵이 더욱더 뜻깊은 것 같다.

지구가 하나이기에 그 안의 생명체들도 하나라는 내 생각이 결코 헛되지 않기를 바란다.

2002년 월드컵 화이팅!



## 행복 찾기

황지고등학교 2학년 2반

김 홍 석

오늘 아침도 뛰었다. 버스를 못 타면 또 번거롭게 버스를 두 번 갈아 타거나, 지각을 하게 될 것이 뻔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이 그렇고 또 지친 몸을 이끌고 12시도 넘어서야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귀가 길에서 조차도 마찬가지이다.

피곤하게 살아가고 있는 일상 생활 속에서 아무 생각도 없이 늘상 걸어다니는 내 집 뒤쪽의 길 위에서, 나는 그 어떤 변화도 새로움도 느끼질 못한다. 내 일상 생활이 그렇게 평범하고 단조롭고 지루함이라.

가끔씩 내가 늘 지나는 그 길, 아무 변화도 없고 재미도 없는 그 길에 대한 회의를 느낄 때, 아직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걸어보고 싶은 욕구가 치솟는다. 그래서 나는 가끔 따분하게 반복되는 일상 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기 위해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던 호기심의 세계를 찾아 나섰다.

아직 한 번도 거닐어 보지 못한 길 위를 걸어본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가슴 설레이는 일이지만 길 주변의 낯선 풍경, 낯선 사람들을 만나게 됨으로 '새로운 길'의 숨겨진 매력까지도 느끼게 된다. 매번 새로운 길을 걸을 때는 내가 어디쯤을 가고 있는지, 어디에서 다시 왔던 길을 되돌아 가야 하는지도 잊어버린 채, 이전의 지루했던 생활에 대해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새 길에 매료되어 다시 제자리를 찾아 돌아오기도 힘들다.



호기심의 세계에 대한, 새로운 길의 구경을 마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때 즈음에는 또 다시 지루함에 대한 답답함들이 모여든다. 하지만 막상 돌아와 본 길은 그렇지 않다. 계절의 변화에 꽃이 피고 짐에 조차도 나 혼자만이 무디었음이리라. 어쩌면 나 혼자만이 아닐런지도 모른다. 시간에 쫓기며, 피곤함에 쫓기며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럴런지도 모른다. 어쨌든 호기심 가득 찬 눈으로, 어제와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집 뒤의 길은 더 이상 답답하고 지루한 길이 아니다.

그 길이 항상 그렇게 새로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변화를 느끼고 싶다면 관찰을 해야 한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느긋하게 숨바꼭질을 하다가 느끼게 되는 변화에서 삶의 작은 행복조차도 느낄 수 있다.

오늘도 낯은 길을 걸으면서 집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 길을 걸으면서 작은 것이라도 즐거움을 찾아내 보고 싶다.



## 내 꿈을 담은 길

장성여자고등학교 1학년 6반

전 명 란

"길" 학교를 등교하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에 가면서도 늘 보았던 딱딱한 아스팔트 도로부터 생각난다.

그러나 아스팔트 도로처럼 단순한 의미의 길보다는 "내 꿈을 담은 길" 정도로 해석해서 쓰고 싶다.

어렸을 적 내 꿈은 슈퍼마켓 주인이 되는 것이었다. 단순히 과자와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고 싶어서였다. 지금 생각하면 그 이유는 할머니 때문인 것 같다. 우리 할머니는 보살이었는데 집을 찾아오는 손님들의 손에는 항상 먹을 거리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과일이나 한과, 약과 뿐이었다. 그 과자와 과일들은 모두 내 차지였지만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한과와 약과가 아닌 가게에서 파는 과자들이었다. 할머니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말할 때면 집에 먹을게 많은데 돈 쓸 필요없다고 호통을 치셨다.

그러다가 딱 한 번 가게에서 과자를 훔치다가 주인에게 걸린 적이 있었다. 그 일로 할머니에게 매를 맞고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아야 했다. 나는 그 때 슈퍼마켓 주인이 되겠노라고 다짐했다. 이게 내 꿈을 담은 길에서 첫번째 정거장인 셈이다.

지금 막 17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장 슬프고 배국적이었던 일이 떠오른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의 일이었는데 사랑스런 내 동생이 사고로 화상을 입게 되었다. 사고 후 동생은 조그마한 개인병원으로 실려 갔는데



의사가 옷을 가위로 자르지 않고 벗겨내는 바람에 상태가 더 심각해졌다. 엄마가 의사보고 소리치며 책임지라고 소란을 피울 때 그 옆에서 나는 생각했다. 나중에 훌륭한 의사가 되어서 동생의 팔을 수술시켜 주겠다고……. 내 꿈을 담은 길에서 두번째 정거장이었다.

직도 잊혀지지 않는 그 이름 김대식 선생님……. 초등학교 2학년 때 만난 김대식 선생님의 의해 글짓기라는 취미를 갖게 되었고 스승과 제자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있었다. 어느 날 청소하다가 철로 된 무거운 발판에 발이 깔려서 다친 적이 있었다. 그 날 선생님께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친 발을 이끌고 집으로 갔다. 다음날 병원에 가기 위해 집을 나서려는데 선생님이 집으로 찾아 오셨다. 엄마와 통화하신 선생님은 걱정이 돼서 직접 집으로 찾아오신 것이었다. 차로 병원까지 태워 주시고 진단결과까지 확인한 후에야 선생님은 학교로 가셨다. 나는 따뜻한 선생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생각했다. 김대식 선생님처럼 훌륭한 교사가 되어서 내가 받은 사랑만큼 돌려주겠다고 다짐했다. 이게 내 인생의 세번째 정거장이었고 고등학생이 된 아직까지도 이 정거장에 머물러 있다.

언제까지 내가 이 정거장에 머물러 있을지 나도 모른다. 그저 지금은 교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나만 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거쳐왔던 정거장들은 소중한 추억이 되고 내 생이 마감하는 순간 이 길도 끝나는 것이다. 그 때까지 나는 한 정거장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노력할 뿐이다.



## 진흙길

황지고등학교 3학년 2반

이 청 호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점점 활기를 잃어가는 작은 광부마을에 살고 있었다. 70~80년대 우리 나라 산업의 중추를 이루었던 석탄산업은 90년대에 들어오면서 점차 필요성이 사라져 버렸고 그에 따라 대한석탄공사는 광부들의 인원을 감축하기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태백에서는 가장 후미진 곳에 자리를 잡고 있던 우리 마을은 정든 사람들을 떠나 보내야만 했다.

광부들의 주거지였던 사택들은 을씨년스럽게 부서지고 어두워져 우리 마을의 빈 공간을 더욱 실감하게 했다. 여기저기 흩어진 벽돌 파편들, 시의 개발산업에서도 자꾸만 작아져가는 마을의 규모. 시대의 걸음에 발맞추지 못하고 퇴화해 가는 환경. 하지만 그 덕분에 그 일도 일어날 수 있었던 것 같다.

기억은 잘 나지않지만 비가 억수같이 퍼붓던 날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마을을 떠난 친구들의 빈자리를 메꾸기 위해 재미로 시작한 태권도는 어느새 직업화되어 그 날 역시 태권도 도장을 나가야 했다.

"과과과....."

이건 빗소리가 아니라 마치 양동으로 지붕에 물을 퍼붓는 것 같다. 집에 가는 길이 걱정스러웠다. 우리 집을 비롯한 세 가구 만을 위해 만들어진 작은 흙외길은 많은 사람이 밟지 않아서 그리 단단하지 못하니 분명히 폭우 속에 진흙탕이 되어 있을 것이다. 슬슬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내



일 학교에 가려면 신발을 더럽히면 안되는 데……. 두 켄레가 있는 운동화를 한 켄레는 이미 몇 일 전 빗속에 몽땅 젖어버렸다.

"내일 보자!"

사부님의 인사를 받아줄 기력도 없이 차에서 내린 난 조금이라도 비를 덜 맞기 위해 진흙탕 속에서 총총히 머리를 내민 조약돌 위를 밟아 달렸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흙외길에 다다랐을 때 난 내 눈을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

"엄마?!"

장마가 온 후 감기에 걸려 끙끙 앓으시던 어머니께서 그 곳에 계셨다. 우산도 내팽개친 채 뭔가를 들어 나르시던 어머니께서는 뿌옇게 흐려진 그 길속에서 힘겹게 허리를 피시며 나를 알아보셨다.

"청호니?"

"엄마, 엄마 맞아요? 비도 오는데 우산도 안쓰시고 뭐하시는 거예요?"

피곤한 동작이 역력한 미소로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비도 오고 길도 질인데 너 오기 불편할까봐."

눈물이 핑 돌았다. 어머니께서는 나를 위해 진흙탕 속에 부서진 사택의 벽돌 파편들로 징검다리를 놓고 계셨던 것이었다. 나는 얼른 달려가 어머니께서 나르시던 돌을 받아들고 적당한 위치에 살살 내려 놓았다.

"그래도 그렇지 몸도 안좋으시면서."

"괜찮아."

그 날 난 어머니와 함께 우리 세 가구를 위해 진흙길 속에 돌로 된 징검다리를 놓았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제대로 보이지조차 않는 서로의 얼굴에 미소를 보내며 그 길을 만들었다.

그리고 작년 설날 난 다시 한 번 그 고향마을을 찾았고 여전히 그 흙길속에서 이제 깊숙히 박혀버린 추억어린 징검다리를 볼 수 있었다.



## 소녀의 사춘기

철암중학교 3학년

진 원 미

겨울 긴 단잠 자다가  
봄바람의 사랑거림에  
잠 깬 소녀

살포시 눈 떠보니  
웅성거리는 나무들의 울림

'축하해'  
'축하해'

소녀 행복과 놀람으로  
빠알깡게  
볼을 붉힌다.

개나리, 아지랑이, 새싹, 나비……  
모두 소녀에게 방긋 웃음

부끄러운 소녀  
아직도 볼 붉히며  
수줍은 듯 미소짓는다.



## 아직은 작은 씨앗이지만.....

장성여자중학교 3학년 1반  
전 세 희

갓 태어난 새 한 마리가  
날지 못하는 걸

내가 세상이란 껍질 속에 쌓인  
작은 씨앗일 뿐이란 걸

세상은 알고 있지만  
알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혼자 놀고 있는  
어린 아이 같아

내 자신은  
소외감에 흔들리지만

언젠가는  
저 나무에 열린 크고 좋은 열매가  
되리라  
굳게 다짐하며



나의 꿈을 찾아  
나만의 안식처를 찾아  
길 것 같은 짧은 길을 걷고 있다

돌 많고 가파른 길을 오를 때면  
보물지도 갖고  
보물찾는 사람이 부러워

나에게도  
지도 있었으면 했지만

내 지도는  
다름 아닌 나의 희망이었다

이제는 희망이란 지도 갖고서  
내 길 찾아 더 걸으련다

시간이 흘러 흘러

힘없던 작은 새가  
넓은 허공을 향해 날아오를 때

세상이란 껍질을 벗고  
열매가 되어 있겠지



## 철 쪽

상장중학교 2학년 2반

안 소 영

차디찬 비바람을 맞아가며  
태백산의 철쪽이  
몽오리를 피운다

푸른빛 산이  
분홍빛으로 물들고  
나무는 철쪽과  
봄인사를 나눈다

나무와 철쪽의  
아름다운 조화에  
봄의 신도 만족하고

철쪽의 향기에 취한  
아기꿀벌 꽃품 속에  
잠든다



## 바람의 속삭임

철암중학교 1학년 1반

김 미 정

철쭉이 쭉쭉 자라듯  
우리들도 쭉쭉 자란다.

점점 나무처럼 자라는 우리들  
철쭉도 우리들처럼 자란다.

태백에서 자란 철쭉  
분홍색 치마입고,

바람이 속삭일 때마다  
살랑 웃으며.....

더불어 자란 우리들.....  
덩실덩실 춤을 추네



## 고향에서 오던 길에……

함태중학교 3학년 2반  
손해영

고향에서 오던 길  
옛날 기억 떠오를 때  
문득문득 떠오르던  
내 동무들……

새록새록 돌아나던  
파릇파릇 새싹들  
모락모락 피어나던  
아지랑이……

뜨거운 여름철에  
줄줄줄 물 흐르던  
시냇가에서  
뛰어 놀던 내 동무들……

한들한들 코스모스  
하나 둘씩 떨어지던  
낙엽들을 밟으면서  
행복했었던 가을에……



보송보송 솜털같던  
하얀 눈이 장독대에  
사뿐사뿐 내리면  
우리 모두 행복했던.....

내 고향이 지금은  
그립다.....  
동무들과 뛰어 놀던  
내 고향의 그리움.....





## 철 쪽

상장중학교 2학년 2반

백 소 영

청량한 산 내음이 가득찬 파란마을  
기이쁜 산속에 분홍철쪽 한 그루  
배고픈 꿀벌 한 마리 꽃품 속에 잠든다.

아침마다 내려지는 달콤한 이슬 먹고  
저녁마다 비취지는 노을빛 받아찌며  
밤마다 반짝이는 별빛을 마시면서

오늘도 철쪽은 아름답게 피어난다.  
품속에 고이 잠든 꿀벌을 다독이며  
자그만 손으로 하품을 그치면서.....



## 함성이 들리네

태백중학교 3학년 1반

윤관용

월드컵 열리네 월드컵 열리네  
무궁화 만발한 우리 나라에 열리네  
사천만 국민의 함성 여기까지 들리네

화이팅 화이팅 우리 나라 화이팅  
온 국민 소리 모아 응원 한 번 잘하세  
선수들 열심히 땀 때 응원 한 번 잘하세

모두의 축제에 골들이 들어가네  
진 팀도 이긴 팀도 모두모두 열심히  
월드컵 축제에 모두모두 친구되네



## 그 날의 함성

황지중학교 3학년 2반  
이 서 진

4년마다 찾아오는 젊음의 환호소리  
선수들의 거친 숨소리 응원단의 열띤 함성  
월드컵, 그 열기가 한국으로 밀려온다

반만년 역사를 고이고이 간직하고  
소박하고 아담하지만 화려한 문화의  
한국이 온 세계의 시선을 받는다

화려한 조명 뒤에 언제나 가려져  
참 모습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 빛을 발하지 못했던 대한민국

나가라, 그리고 이겨서 돌아와라  
자랑스런 대한의健儿들  
세계에 한국의 이름을 드높혀라



## 너희들이 부러워……

철암중학교 2학년 2반

홍 선 진

푸르른 소나무가 뻗어나는 산 속이  
내 길보다 싱그러워 더 좋게만 보이지만  
산보다 네가 부러워 철쭉꽃이 부러워

연분홍빛 만발하게 피어나는 철쭉꽃이  
내 길보단 예뻐서 더 좋게만 보이지만  
꽃보단 네가 부러워 월드컵이 부러워

세계인의 이목을 한 몸에 받은 월드컵이  
내 길보다 열정적이어서 더 좋게만 보이네  
너희들 모두모두가 나와 달라 부러워



## 자화상의 그녀

장성여자중학교 2학년 3반

김 남 윤

꽃잎이 향기로운 5월의 마지막 주  
그녀의 성숙함이 바람결 흩날리네  
그녀의 자애로움이 마음속 흩날리네

그녀는 안다오 그녀는 안다오  
그녀가 세월을 얼마나 살았는지  
그녀가 행복한 여행을 했는지

나뭇잎의 이슬에서 아침을 맞이하고  
풍뎅이가 전해 준 이야기에 기뻐하여  
세상에 눈뜨는 분홍빛 꽃봉오리

밤이면 고독을 알아야 하였고  
안개 낀 날 침울함을 알아야 했었다.  
그녀는 슬픔의 단어를 감추었다.

소풍 나온 아이들의 웃음에 적시었고  
지저귀는 산새들의 노래에 빠지었네  
그녀는 세상의 기쁨을 나누나



뚜우욱 분홍빛 꽃잎하나 떨어지며  
수술만 남았을 때 나는 알았다고  
철쭉이란 이름 속 자화상의 그녀를





## 집으로 가는 길

장성여자중학교 3학년 3반

주 미 진

매일 학교가 끝나고 버스에서 내려 큰 길을 따라 걷다 보면 좁은 길목이 나온다. 그 길목에서 오른쪽으로 가다가 보면 아이 두 명이 겨우 지날 만한 좁은 계단이 있다. 그 계단을 올라와 열다섯 걸음 남짓 걸어가면 나오는 나무 대문집이 바로 우리 집이다. 이제는 눈감고도 갈법한 그 정도로 익숙해진 길이 바로 그 길이다.

내가 16살이니까 지금부터 16년 전 나는 지금 우리 집에서 태어났다. 내가 걸음마를 하면서부터 그 길을 걸었으니 내가 지금껏 가장 많이 걷고 가장 많이 디녀 온 길이기도 하다.

친구와 싸우고 돌아오던 길에 괜히 발을 구르며 화풀이도 하고, 학교에서 지쳐 축쳐진 몸에 고개숙인 내 얼굴을 가장 많이 본 것도 바로 그 길이다.

엄마는 내가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던 때 우리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엄마가 하시는 옷가게에 나를 자주 데리고 가셨다고 한다. 그런데 어느 날 나를 재워두고 엄마가 잠깐 자리를 비운사이 내가 없어져 온 사방을 다 뒤지며 나를 찾아 다니셨는데 내가 내 발보다 몇 배나 큰 슬리퍼를 신고는 집으로 가는 그 길목의 계단을 두 손으로 잡고는 기어 올라가고 있었다고 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집으로 오는 그 길이 더 익숙하게 느껴졌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아주 많은 길을 보고 그러한 길들을 그냥 지나치기



일쑤다. 나도 그렇게 많이 지나 다녀온 집으로 가는 길에 대해 별 관심 없이 매일 오고가는 길로 여길 뿐이었다. 하지만 그런 좁은 골목길에도 봄이 되면 드문드문 자란 꽃들을 찾아 벌이 날아들고 따스한 봄햇살이 내리 쬔고 있었다. 지금 내가 닫고 있는 이 길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만 이 곳에도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한 작은 아름다움이 많이 숨어 있다.

우리가 세상에 지쳐 주위에 대해 조금씩 무관심해져 가는 이때 주위를 한 번씩 돌아보고 마음을 열어 본다면 내가 걷는 모든 길이 더 아름답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 나의 인생길

상장중학교 3학년 3반

김 다 혜

적년에 나는 국어경시를 나가게 되어 그 때 경시대회를 나갔을 때, 필수로 읽어 오라던 책들 중에 헤르만 헤세의 '수레바퀴 아래서'라는 책이 있었다.

이 책 주인공의 이야기는 어린 시절의 소박하고 자연적인 사랑하는 한 소년이 점차 성장해 감에 따라 한 인간이 짊어져야 할 명령, 규범, 의무, 학습 내용 등으로 질식해 버리고 더구나 획일적이고 편협한 학교 교육은 성실한 한 소년을 망쳐버리고 만다. 이 소년은 끝끝내 한낱 시골 공장의 기계공으로 전락하고 만다.

나는 이 소년의 인생길을 보면서 올바른 인생길을 생각해 보았다. 이 소년은 끝끝내 죽는다. 소년은 과중한 공부, 아버지께 무조건 순종, 이러한 삶이다. 생각해 보면 나의 삶도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불만이나 걱정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듯하고 그렇게 결말이 어두울 것 같지도 않다. 하지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과연 이 소년과 같이 되지 않으려면, 즉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

이러한 생각들은 나를 성숙시켜 준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행복한 삶의 길은 나 자신에게 달려있다고..... 내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하고 행복해 한다면 삶은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 나의 부모님, 나의 친구, 학교생활, 태어난 환경, 남부러울 것 없는 이 내 생활에 감사한다. 비록 가끔씩 학교생활을 통한 시험이나



주변의 기대를 통한 심리적 압박이 나를 침범해 올지라도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고난과 시련을 제게 내려 주셔서 조금은 힘이 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저의 미래를 위해 행복한 미래를 위해 주신 선물이라 생각합니다.'라고 말이다. 난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 애쓰는 탐욕스러운 사람들이 싫다. 왜냐하면 신은 공평하셔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하고 맞는 것들을 주신다고 믿기 때문이다.

삶은 각각의 사람들에게 수많은 길들을 제시한다. 때로는 험난한 가시밭길, 때론 쪽 뺨은 고속도로, 또 때로는 그저그려한 시골길 등 말이다. 이러한 길을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살아간다면 행복은 자기자신에게 온다. 삶의 길은 각자 인생에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 왜냐하면 그 길이 각각의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생은 생으로써 그 의미를 갖는다'라는 이 말을 나는 가장 좋아한다. 아직 많이 많이 남아있는 나머지 삶을 살아보진 않아서 이 말의 뜻은 그다지 깊게 공감되거나 이해되거나 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냥 느낌으로 나에게 공감을 느끼게 한다. 언젠가 이 뜻을 깨달을 때 큰 고통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말이다. 나는 나의 인생길을 시골길에서 포장된 도로, 국도에서 뺨 트힌 고속도로로 점점 앞으로 길고 넓게 트히는 길이 되었으면 한다. 비록 그 길을 가는데에 가슴 미어질 듯한 잘게 찢어지는 고통이 따르더라도 말이다.

나는 사랑한다. 점점 앞으로 뻗어나가는 힘차게 살아 꿈틀대는 내 인생길을 말이다. 생이 내게 주는 무한한 기쁨, 산다는 것, 살아 움직인다는 것으로도 나오는 그 무한한 기쁨이 있는 한 말이다. 내 숨이 멈추고, 내 심장의 고동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무한한 가능성의 인생길을 사랑할 것이다.



## 생각을 주는 길

장성여자중학교 3학년 2반

유 지 은

나는 항상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전에는 걸어서 갔는데…… 아버지의 발령으로 황지로 이사한 후엔 항상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간다. 주위에서 진동하던 풀내음과 흙내음……. 그리고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 항상 보고, 듣고, 느끼며 집으로 걸어 갔는데, 이젠 버스라는 제한된 공간에 몸을 싣고 집으로 간다. 그 버스 안에서는 풀내음도, 흙내음도, 시원하게 흐르는 물소리 또한 들리지 않는다. 느껴지지도 않는다. 다만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 찌든 자들의 냄새만이 난다.

사람 냄새만이 진동하는 곳에서 난 항상 창밖으로 아무의미 없는 시선을 준다. 창밖의 세상. 창밖엔 나완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아마 나의 추억을 맡으며 걸어가고 있겠지……. 그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즐거움인지 몰랐는데……. 조금만 더 일찍 알았더라면 난 그 작은 행복을,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보니 예전의 난 길을 걷는 것을 꽤나 좋아 했던 것 같다. 아니지……. 지금도 아주 많이 사랑한다. 아주 많이……. 하지만 나는 학교 통학이라는 단어에 밀려 버스를 타고 다닐수 밖에 없다. 다시 걸어 다닐 수 있다면……. 요즘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혼자 멍하니 걷고 싶다는 생각. 내 옆에서 날 지켜보는 산과 강에 시선을 주며 걷고 싶다는 생각. 그냥 아무 이유없이 슬퍼질 때, 아무 이유없이 눈물이 흐를 때, 내 옆에서 아무 말 없이 날 지켜봐 주던 강과 산이 날 위로 해주고 내게로 불어오는



바람이 그눈물을 닦아 줄것같다. 그리고 나 혼자 걸으며 이 생각, 저 생각 하며 주위 시선 따윈 의식하지 않고 걸을 수만 있다면……. 우리 주위엔 너무나도 쉬운 일이지만 그것이 행해지기엔 너무나 힘든 일이 있다. 그 일이 바로 나에겐 길을 따라 마냥 걷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일이다. 시간속에, 사람들의 시선 속에 난 갇혀진 채 걷는 일을 접어야만 했다. 사람 냄새가 뵈미는 곳에서 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아마 난 아무 의미없는 시선을 두는 일과 생각하는 일 밖에 없다. 언제나, 누구나 생각하는 것을 좋아할 것이다. 생각은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진정제 같은 것이다. 그 진정제는 집으로 가는 길에도 할머니 댁으로 하는 길에도 언제나 그랬듯이 나타난다. 길은 항상 나에게 무언가를 생각하게 해주는 존재기에…….

언젠가 한번 전에 걸어가 보았던 길을 걸어서 가 보았다. 마음이 편해진다. 그리웠던 풀내음도 흙내음도 코끝에서 맴돈다. 시원히 흐르는 물 소리도 들린다. 그 때 그 길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내가 돌아오길 기다린다. 그 기다림은 설레임으로 날 맞이한다. 오늘 다시 그 길을 걷고 싶다. 아무 생각없이…….



## 한·일 두 나라의 미소

장성여자중학교 2학년 2반

김 선 영

우리 나라는 옛 부터 일본과의 감정이 좋지 않았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일. 일본이 우리나라 민족말살정책을 펴며 우리 나라 문화를 짓밟고 없애려고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본은 지금에 와서도 그 일을 사과하려 하지 않는다. 역사왜곡으로 그 일을 감추려고 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본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 괜히 경쟁심이 느껴졌다. 그 중에서도 특히 축구경기. 우리 가족은 일본과 한국이 축구경기를 하면 굉장히 흥분한다. 나는 비록 경기장에서 보는건 아니지만 우리나라가 이기길 바라며 학원도 빼먹고 TV앞에서 소리소리 지르면서 본다. 이런 한국과 일본이 월드컵 공동개최를 한다는 얘길 들었을 때 정말 화합해서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나 역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었다.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한 친구와 나는 사소한 일이지만 약간의 말다툼으로 큰 싸움이 일어났다. 그 때는 그 친구가 원수같고 너무 미워 보였다. 그 때 마침 운동회가 열렸는데 그 친구와 내가 반대표로 같은 경기에 나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친구가 너무 밉고 싫어서 경기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우리팀이 이겨야 할텐데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와 나는 싸우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협동해서 경기를 풀어 나갔다. 그 결과 운동회 결과도 좋았고 그 친구와 나는 예전처럼 친하게 지낼수 있었다.

나는 한국과 일본이 그 친구와 나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한다.



드컵이라는 중대한 행사를 눈앞에 두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나라가 화합한다면 월드컵 개최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을 것이고 또 두 나라의 나쁜 감정도 조금은 잊고 서로 가까운 나라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나는 이 과정에서 한국이 일본보다는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싶다. 학교에서 일본과 한국을 비교하는 내용의 비디오를 보여 주었는데 그 때 나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조금의 뒤처짐 없이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덜컥났다. 한국과 일본이 친절도 테스트를 할 때 외국인이 동전을 많이 떨어뜨렸는데 한국에서는 딱 한명의 사람만이 주워 주는 반면 일본은 그 자리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이 주워 주는 것이었다. 또 경기장이 있는 도시들을 비교해 보았을 때도 한국은 대도시에 경기장을 지어 환경이 오염된 반면 일본은 비교적 한적한 도시에 지어 공기오염도 덜 되고 교통도 한산했다.

이런 문제를 볼때 한국이 일본보다 뒤쳐지는 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외국인에게 미소를 보이고 또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일본과 동등한 위치에서 월드컵을 개최하고 또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일본간의 감정이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88올림픽을 성공적으로 마쳐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렸던 역사적인 그 순간이 우리가 성공적으로 월드컵을 마칠 때 우리 나라를 내려다보며 환하게 미소지을 것이다.



## 의미있는 길?

함태중학교 3학년 3반

이 보 희

나의 길, 난 지금 아무 것도 계획하지 않은 채, 그냥 이 길, 저 길을 걷고 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정말 바른 길일까? 난 아직 잘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길을 걷고 있는지도. 과연 난 왜 존재하는 것일까?

난 좋은 부모 밑에서 맏딸로 태어났다. 정말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며 잘 지내고 있을 때 귀여운 동생이 하나, 둘 태어났다. 우리 가족은 모두 5명. 정말 화목한 가정이었다.

나의 인생길은 포장된 비단길이였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난 어느 새 비포장도로로 들어서고 있었다. 왜지? 나의 실수일까? 나의 죄값일까? 난 아무 이유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4학년 때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셨다. 이런 끔찍한 일이 어머니 눈에 맺힌 눈물이 날 더 가슴 아프게 했다. 정말 산 것도 기적이라는 사람들의 말. 살기가 싫다. 두렵다. 나의 길이 얼마나 더 험해질지 모르는 일이다. 아버지는 아직 의식이 없으시다. 나의 길이 왜 이렇게 험해지고 있지?

어머니께서 직장을 잡으시고, 아버지도 눈을 뜨셨다. 이제서야 조금씩 나의 길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아버지는 조금씩 회복하고 계셨고 엄마는 열심히 뛰셨다. 난 부모님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하고 동생에게 잘 해주고 식사도 차려주었다. 노력하면 할 수 있다는 말이 사실인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다시 행복을 찾아가고 있었다.



그렇게 포장도로를 찾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또 고난이 이제는 오솔길로 들어서고 있다. 아버지의 병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결국 이 곳 병원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게 되어서 대구 쪽으로 옮기게 되었다. 이런 비극이. 엄마는 나에게 동생들을 잘 돌보고 있으라는 말을 남기고 병원으로 가셨다.

그러던 어느 날, 느낌이 무지 안좋았었다. 역시나 예감이 맞았다. 무슨 심각한 일이 생겼다는 듯이 담임 선생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병원에 가 보니 아버지는 혼수상태였고 어머니는 울고 계셨다. 여관에 가서 자자고 하셔서 자리 갔다. 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 아침. 일어나 보니 내 옆에는 동생뿐이 있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난 병원으로 갔다.

이런 비탈길이 되어 버렸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셨다. 어제가 마지막. 이런 일이 생기다니 너무 끔찍했다. 지금의 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비탈길을 오를 수는 없었다. 지금의 난 더 이상 어느 길도 택할 수도 없이 그냥 걷고 있을 뿐.....



## 태백문화원 연혁

- 1984. 1 황윤덕씨 등 19명이 태백문화원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 1984. 8. 17 문화공보부 법인 설립허가, 황윤덕씨 초대원장 취임
- 1984. 1. 1 태백시 장성동 69-2번지에 태백문화원 개원
- 1985. 7. 18 문화원 활성화를 위해 이호진씨 등 12명을 운영위원  
으로 위촉
- 1985. 12. 31 민속놀이 '태백갈풀썰이' 등 12개 사업완료
- 1986. 2. 27 제2차 정기총회 개최
- 1986. 7. 21 문공부로부터 정관변경허가, 부원장제도 신설
- 1986. 12. 31 청소년백일장 및 사생대회 등 15개 사업 완료
- 1987. 2. 24 제3차 정기총회 개최
- 1987. 12. 31 창간호 '태백문화지' 발간 등 13개 사업 완료
- 1988. 3. 24 제4차 정기총회 개최
- 1988. 8. 16 임시총회 개최-신임원장 장인원 원장 선출
- 1988. 12. 31 웅변대회 및 사시랭이 발굴 사업 등 10개 사업완료
- 1989. 3. 24 제 5차 정기총회 개최
- 1990. 6. 13 문화부로부터 90년도 시범문화원으로 선정
- 1990. 10. 16 임시총회 개최 - 부원장 선출(김영훈 이사)
- 1990. 12. 31 불우소년소녀가장돕기 통기타 콘서트 등 14개 사업  
완료
- 1991. 2. 26 제7차 정기총회 개최
- 1991. 12. 31 폐광기록사진집 "막장사람들" 발간 등 12개 사업 완료
- 1992. 2. 27 제8차 정기총회 개최
- 1992. 12. 31 전통향토음식솜씨자랑대회 등 13개 사업 완료
- 1993. 8. 17 제3대 원장으로 우성조씨 취임



- 1993. 12. 31 효자비 건립 등 15개 사업 완료
- 1994. 4. 18 문화체육부로부터 한국문화학교 태백문화학교  
설립인가
- 1994. 12. 31 문화학교 운영 등 16개 사업 완료
- 1995. 2. 25 제11차 정기총회 개최
- 1995. 12. 31 태백문화 제9집 발간 등 15개 사업 완료
- 1996. 2. 25 제12차 정기총회 개최
- 1996. 10. 25 신축문화원 원사 이전
- 1996. 12. 9 문화원사 준공식
- 1996. 12. 31 백일장 등 12개 사업 완료
- 1997. 3. 11 제13차 정기총회 개최
- 1997. 12. 31 한강대제 등 12개 사업 완료
- 1998. 2. 24 제14차 정기총회 개최
- 1998. 12. 31 숲대복원사업 등 14개 사업 완료
- 1999. 3. 5 제15차 정기총회 개최
- 1999. 4. 23 임시총회 - 우성조 원장 연임
- 1999. 12. 31 태백산학술대회 등 22개 사업 완료
- 2000. 2. 29 제16차 정기총회 개최
- 2000. 12. 31 천제 등 23개 사업 완료
- 2001. 2. 27 제17차 정기총회 개최
- 2001. 12. 31 전통음식솜씨자랑대회 등 23개 사업 완료
- 2002. 2. 26 제18차 정기총회 개최
- 2002. 12. 31 초금연주회 등 21개 사업 완료



## 2002년도 태백문화원 사업실적 현황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주요사업내용
문화학교	국악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문화원	- 대상 : 일반인 30명 - 강사 : 이숙영 - 수강일자 : 매주 화, 금 (오전 10:00-12:00) - 수강내용 : 장고지도
	테데베어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문화원	- 대상 : 일반인 20명 - 강사 : 이경옥 - 수강일자 : 매주 수,목 (오후 13:00-15:00) - 수강내용 : 인형만들기
	도자기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문화원	- 대상 : 일반인 20명 - 강사 : 조미영 - 수강일자 : 매주 월,화 (오전 10:00-12:00) - 수강내용 : 생활용품제작
	주부가요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문화원	- 대상 : 일반인 50명 - 강사 : 김만식 - 수강일자 : 매주 월,목 (오후 13:00-15:00) - 수강내용 : 건전가요지도
	칼라믹스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문화원	- 대상 : 일반인 30명 - 강사 : 공선녀 - 수강일자 : 매주 월,목 (오전 10:00-12:00) - 수강내용 : 각종 장식품 및 인테리어
	한문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문화원	- 대상 : 일반인 30명 - 강사 : 김강산 - 수강일자 : 매주 화,금 (오후 13:00-15:00) - 수강내용 : 백경문 지도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주요사업내용
문화 학교 운영	스포츠댄스 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일반인 50명</li> <li>- 강사 : 이지연</li> <li>- 수강일자 : 매주 화, 금 (오후 13:00-15:00)</li> <li>- 수강내용 : 기본스텝지도</li> </ul>
	사진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일반인 30명</li> <li>- 강사 : 이석필</li> <li>- 수강일자 : 매주 수, 목 (오후 13:00-15:00)</li> <li>- 수강내용 : 사진이론 및 실기지도</li> </ul>
	종이접기 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일반인 30명</li> <li>- 강사 : 김미향</li> <li>- 수강일자 : 매주 월, 수 (오전 10:00-12:00)</li> <li>- 수강내용 : 종이접기, 종이조각, 자격증 지도</li> </ul>
	가야금교실	2002.4-6월 2002.9-12월	태백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일반인 10명</li> <li>- 강사 : 박미숙</li> <li>- 수강일자 : 매주 수, 목 (오전 10:00-12:00)</li> <li>- 수강내용 : 가야금지도</li> </ul>
향토조 사연구 사업	태백문화 제16집 발간	2002.1-12월	태백 문화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 : 태백소식, 백일장 수상작품 외</li> <li>- 분량 : 250 페이지</li> <li>- 부수 : 1,000부</li> </ul>
문화 사랑방 사업	문화유적지 순례	2002.10.23	도자기엑 스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가인원 : 문화가족 120명</li> <li>- 내용 : 서울 경복궁</li> </ul>
	제17회 남녀백일장	2002.5.30	동점 구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 : 태백시 관내 중, 고등부</li> <li>- 부문 : 시, 시조, 산문</li> <li>- 시상 : 각부문 장원, 차상, 차하, 장려, 입선</li> <li>- 참여인원 : 150명</li> </ul>



사업명	세부사업명	사업기간	장소	주요사업내용
향 토 행 사 사 업	제10회향토 음식솜씨 자랑대회	2002.11.13	태백 문화원	- 대상 : 관내거주자 - 출전부문 : 원형부, 개발부, 가마부 - 시상: 매주 으뜸상, 버금상, 솜씨상
	천체	2002.10.3	태백산 천제단	- 참여인원 : 1,000명 - 내용 :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구하고자 천제를 올림
	수강생 작품전시회	2002.12.2 - 12.6일까지	태백 문화원	- 관람객 : 1,000명 - 전시작품 : 도자기, 풍선아트, 종이접기, 사진
	한강대제	2002.8.4일	검룡소	- 대상 : 전국 일반시민 - 참여인원 : 1,000명 - 내용 : 물먹기대회 (용신제, 유두면 시식회)
	강당대여	연중 8회	태백 문화원	- 대상 : 관내 시민 및 관내 단체 - 연인원 : 1,600명
	초금연주회	2002.6.7일	태백 문화원	- 대상 : 일반시민 - 참여인원 : 200명
	군부대 위문공연	2002.7.25일	통리 군부대	- 대상 : 국군장병 - 참여인원 : 200명
	철쭉제 음식맛자랑	2002.6월	태백산 도립공원	- 대상 : 일반시민 및 관광객



## 태백문화원 이사

직위	성명	주 소	비고
고문	황윤덕	서울 종로구 부암동 210-13	
고문	장인원	태백시 황지3동 자혜의원	
원장	우성조	태백시 문곡동 27번지 2/2	
부원장	박광옥	태백시 황지1동 단위농협	
부원장	전영호	태백시 삼수동 한일건설	
이사	주양식	태백시 상장동 210-9 귀뚜라미보일러	
이사	방병국	태백시 혈동 50번지	
이사	권영섭	태백시 삼수동 22/3	
이사	강성화	태백시 구문소동 6/4 성남기업	
이사	강성희	태백시 황지1동 49-184 용원토건	
감사	유호명	태백시 황지동 3대림아파트 301-305호	
감사	장성일	태백시 황지1동 70-56번지 강원일보사	

### ☐ 사무국

직위	성명	주 소	비고
사무국장	김강산	태백시 상장동 2/5	
간사	김시자	태백시 황지동 2/7	



## 태백문화원 운영위원

직위	성명	주 소	비고
운영위원	김윤대	태백시 황지동 117-2 태백자동차매매상사	
운영위원	장화윤	태백시 황지동 12-1 사진세상	
운영위원	전영수	태백시 황지동 215-10 신진토건	
운영위원	이문근	태백시의회	
운영위원	문상곤	태백시 문곡동 5-20 초가	
운영위원	신원철	태백시 황지1동 태백철물	
운영위원	하진호	태백시 황지동 제일생명 황지영업소	
운영위원	홍성일	태백시 황지동 제일생명 황지영업소	
운영위원	이동형	태백시 황지동 산 172-1 (주)정회개발	

## 태백문화학교 강사

직위	성명	주 소	비고
강사	이숙영	태백시 장성동 174번지	국악교실
강사	김만식	태백시 황지동 선명아파트	주부가요교실
강사	조미영	태백시 황지1동 대운아파트	도자기교실
강사	김강산	태백시 상장동 210-9	한문교실
강사	박미숙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가야금교실
강사	이지연	태백시 황연동	스포츠댄스교실
강사	이경옥	태백시 삼수동 팔마아파트	테디베어교실
강사	공선녀	태백시 문곡동 사영아파트	칼라믹스교실



## 태백문화원 후원위원



성명	주 소	비고
고영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동현A 3-406	
김시영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 1동 419-2	
김재림	서울시 양천구 신월 7동 시영A 20-902	
서강석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66-246	
신동춘	서울시 성동구 옥수동 한남하이츠 3-102	
이근태	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대림A 7-128	
장무부	서울시 강동구 둔촌 1동 주공A 104-503	
홍성필	서울시 관악구 신림1동 삼천리빌라 4-101	
전춘권	서울시 강서구 화곡2동 155-36	
홍영치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우용태	경북 포항시 괴동동 1번지 사서함 36호	
김창남	서울시 용산구 보광동 350-2	
송준강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청신A 3-102	
이단화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94-11	
최옥화	서울시 서대문구 홍제1동 330-306	
이춘자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A주공 319-402	



## 향토사연구회

2

성명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이동헌	태백시 황지동 9-3	553-3637	
김 암	태백시 황지동 4대림A 502호실	552-7574	
김인수	태백시 황지1동 중앙로 한성통신	552-8229	
조미영	태백시 황지1동 대운아파트 2-506	552-7576	
이상본	태백시 황지1동 11-2 한성지업사	552-2225	
정의준	태백시 철암1동 5-7	582-9114	
장화윤	태백시 황지1동 10-1	552-6651	
이성우	태백시 황지1동 A우석 105-301	553-0622	
이명진	태백시 황지1동 상수도사업소	552-1360	
안석호	태백시 상장동 11-2		
석수덕	태백시 황지2동 10-1	553-1666	
정원범	태백시 황지1동 4-1	552-3248	
김부래	태백시 황지1동 5-6	552-3267	
김준연	태백시 황지3동 2-1	552-2048	



## 태백향토문화연구회

성명	주 소	비 고
장성일	태백시 황지1동강원일보사	회장
신원철	태백시 황지1동 2/2 태배철물	
이상출	태백시 상장동 244-3	
정연수	태백시 태백우체국사서함 4호	
오광희	태백시 황지1동 육성빌라 2층 신동아화재	
배해진	태백시 백산동 75-1 태백레미콘	
최홍조	태백시 문곡동 산 28-45 장성여고	
남중훈	태백시 상장동 태백소방서 소방과	
조규오	태백시 황지동 49-1	
임규선	태백시 황지동 태백제일상사	
박미영	태백시 상장동 3/3 87-36	
황정아	태백시 문곡동 태양빌라 B동 103호	
박영란	태백시 황지동 17/5	
변진호	태백시 상장동 함태A 가동 402호	
김재록	태백시 장성동 태백경찰서 정보과	
황명현	태백시 태백소방서 방호과	
김영철	태백시 황지동 (합) 건축사사무실 태백	
최동진	태백시 태백시청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계	
방미란	태백시 장성동 그림그리는 아이들	



## 태백문화학교 동문회

성명	주소	비고
이숙영	태백시 장성동 174번지 3/3	회장 부회장 총무
심관옥	태백시 화광동 9/6	
우인숙	태백시 황지동 선명아파트	
안경희	태백시 소도동 1/5	
우분자	태백시 동점동 2/4	
진동원	정선군 고한읍 고한 12리 10반	
전영숙	태백시 상장동 9/2	
김홍숙	태백시 상장동 10/2	
백옥화	태백시 황지동 4대림아파트 502호	
이복남	봉화군 석포면 대현리 185번지	
배금순	태백시 황지동 49-208	
이금순	태백시 소도동 1-3 1/1	
박상희	태백시 상장동 2주공 태백건축사	
김귀동	태백시 소도동 10번지 46호	
황순옥	태백시 금천동 16-27	
박철성	태백시 철암동 349	
윤정숙	태백시 소도동 1/5	
박재옥	태백시 황지동 2/1	
박훈남	태백시 황지1동 20-1	
엄순자	태백시 장성동 8/7	
박종순	태백시 철암동 철암고관사	
임미순	태백시 소도동 3/4	
이창식	태백시 동점동 1/1	
엄귀자	태백시 소도동 4/5	
정종선	태백시 철암2동 3/2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1	
송남득	태백시 철암2동 남동상가 206	
김태선	태백시 화광동 8/5	
김정녀	태백시 계산동 2/5	



성명	주소	비고
손정임	태백시 철암동	
문정자	태백시 황지동 7/3	
이숙희	태백시 황지동	
이상연	태백시 황지동	
권순자	태백시 황지동	
김진애	태백시 동점동 1/1	
김순자	태백시 화전2동 10/6	
손옥희	태백시 황지동	
한부강	태백시 협심동 협심아파트 다동 302호	
박우기	태백시 황지동	
함금순	태백시 황지동	
홍계춘	태백시 황지동	
곽영자	태백시 소도동	
권옥주	태백시 구문소동	
최숙자	태백시 상장동	
홍정임	태백시 상장동	
박말옥	태백시 장성2동	
전덕순	태백시 상장동	
김경자	태백시 동점구문소동 동점아파트 305호	
박화숙	태백시 장성동 협심아파트 9동 408호	
박금자	태백시 상장동	
정숙이	태백시 구문소동 6/3	
이해숙	봉화군 석포면 484-29	
안연금	태백시 황지동 2주공아파트 9-104	
신음전	태백시 황지동 2주공아파트 7-103	
김영녀	태백시 황지동 2주공아파트 2-405	
이순조	태백시 상장동	
김연옥	태백시 황지동 남청아파트 1204	
김옥분	태백시 상장동	
이경옥	태백시 삼수동 팔마아파트 1408	



## 태백문화원 명심회

성명	주소	비고
김순달	태백시 황지3동 1/1	고문 고문 회장 부회장 총무
홍순남	태백시 황지1동 4/4	
심금량	태백시 백산동 79번지 4/1	
이옥희	태백시 철암동 상철암아파트	
김옥성	태백시 상장동 유진아파트	
이영옥	태백시 계산아파트 201-305	
윤수희	태백시 황지1동 7/2	
이복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102-1003	
김순남	태백시 동점동 동점아파트 9-201	
김계향	태백시 상장동 2주공아파트 204-101	
백옥화	태백시 황지동 4대림아파트 502	
정봉주	태백시 장성동 170-107	
권길자	태백시 상장동 6/2	
이병란	태백시 현대아파트 103-1203	
이춘예	태백시 상장동 11/3	
김주향	태백시 철암동 349	
김현자	태백시 황연동 15-303	
한갑순	태백시 구문소동 3/4	
서남술	태백시 상장동 1/7	
노정희	태백시 황지동 2/2	
김점순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102-205	
김미영	태백시 황지동 궁전아파트 205	
김옥자	태백시 황지1동 3대림 302-302	
배영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101-1402	
채명자	태백시 연화동 한보 314-103	
공선화	태백시 장성동 89	
정순란	태백시 장성동 170-137	
양금자	태백시 상장동 6/6	
이정숙	태백시 황지동 4대림아파트 501	



성명	주소	비고
이정미	태백시 통동 한보5단지 502-108	
이귀순	태백시 상장동 1/2	
남명숙	태백시 장성동 문화연립	회 장
최옥선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104-404	부회장
김정숙	태백시 연화동 경동아파트 310-302	총 무
송남득	태백시 철암동 남동상가 206	
박선민	삼척시 도계읍 전두2리	
류명희	태백시 화전동	
박훈남	태백시 황지1동 20-1	
박옥선	태백시 황지동 육성빌라 404	
정명희	태백시 상장동 현대아파트 102-708	
김명구	태백시 장성1동 5/4	
배황순	태백시 황지동 11/4	
조종란	태백시 소도동 목련아파트 201-202	
송탄실	태백시 장성동 6/2	
임혜옥	삼척시 도계읍 전두리	
신소자	태백시 장성동 계산아파트 209-303	
김순자	태백시 상장동 한전아파트 105	
손승란	태백시 장성동 화광아파트 19-301	
김정자	태백시 황지동 3대림아파트 303-202	
변순옥	태백시 황지동 15/5	
김경자	태백시 철암동 상철암아파트 11-507	
이정숙	태백시 황지동 17/2	



## 종이접기연구회

성명	주소	비고
김미향	태백시 황지동 대운아파트 2-305	
경은화	태백시 구문소동 동점아파트 5-506	
이경숙	태백시 황지동 대운아파트 1-305	
이미숙	태백시 황지동 한독패션	
장춘화	태백시 황지동 시영아파트 105-201	
배순녕	태백시 황연동 한보5단지 6-303	
김화옥	태백시 삼수동 195번지 수자원공사	
이영근	태백시 삼수동 195번지 수자원공사	
김금심	태백시 황지3동 2/4	
이경남	태백시 황지1동 5/2	
정혜운	태백시 화전동 태백광업소	
황효순	태백시 장성1동 5/4	
김영화	태백시 황지동 6/1	
김장순	태백시 황지동 2/7	
강영혜	태백시 황지동	
이현주	태백시 상장동 1주공	







---

## 太 白 文 化 (제16집)

발행일 : 단군기원 4335년 12월 25일

발행인 : 우 성 조

편집인 : 김 강 산

발행처 : 태백문화원

편집소 : 시민의신문

인쇄처 : 대성문화출판사

전화 : 651-2121, 4354

등록 : 1993년 8월 20일 제3호

---

■ 본 지는 국비와 지방비 일부보조로 발간함.



